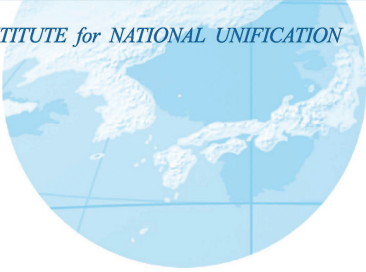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6호 (2014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6호 (2014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1 November 2014

① ② 주차_11.01-11.09

1. 대남	9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3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7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21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24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③ 주차_11.10-11.16

1. 대남	3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5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39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42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45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④ 주차_11.17-11.23

1. 대남	5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55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61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64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68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⑤ 주차_11.24-11.30

1. 대남	7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78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84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87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91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Contents

12 December 2014

① 주차_12.01-12.07

1. 대남			95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98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03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08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11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② 주차_12.08-12.14

1. 대남			117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21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25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28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30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③ 주차_12.15-12.21

1. 대남			137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41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인쇄: 2014년 12월 발행: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11.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에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3. 대내 정치	149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55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57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4 주차 12.22-12.28

1. 대남	16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66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70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75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76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5 주차 12.29-12.31

1. 대남	181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라. 대남 군사 관계	마. 남북 경제 관계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183	
가. 공식발언과 제안	나. 주요 매체 논평	다. 회담 관련
라. 대미국	마. 대중국	바. 대일본
사. 대러시아	아. 국제기구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186	
가. 김정은 동향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다. 공식 행사
라. 주요 기관 행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188	
가. 정책 동향	나. 주요 조치	다. 경제 상황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190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나. 시장 관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마. 사회 동향	

■ 11월 일지 / 194

■ 12월 일지 / 19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01-11.09

11월

1·2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개요

1. 대남

- 조평통 성명,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남북대화 없다”(11.1)
- 北 조평통, 통일현장은 “체제대결 기도” 비난(11.6)
- 北, 대북전단 살포 거듭 비난(11.1, 3~5, 8)
- 北, 스마트폰 北 해킹 주장은 “새 모략극” 비난(11.3)
- 北, 南 호국훈련은 “북침연습” 비난(11.7)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인권문제 거듭 반박(11.4, 7)
- 北, 8일 억류 미국인 2명 모두 석방(11.8)
- 조선총련 건물·토지, 일본 부동산기업에 매각 확정(11.5)
- 北 특별조사위원회, 북일협약에서 “일본인 납치범 조사방침” 전달(11.5)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마감공사 현장 방문(11.1)
- 김정은 黨 제1비서, 4월 포사격 시찰후 인민군 간부 167명 강등(11.4)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석(11.5)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약공장 시찰 및 의약품 대량생산 지시(11.8)
- 北 전군 대대장, 김정은에 충성 다짐(11.7)

4. 경제

- 北, 철도 현대화 독려(11.8)
- 北, 연말 앞두고 연일 ‘연간생산계획 초과’ 선전(11.6~7, 9)
-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세계 하위 11~16% 수준(11.6)
- 北, 中 항공유 수입 회복세...올해 1만3천t(11.4)
- 北, 상하이~평양 직항 타고 마라톤 참가 상품 허가(11.6)

5. 사회

- 北 대남매체, 연일 신상털기식 탈북자 비난 공세(11.4)
- 北, 에볼라 예방·차단위해 수입품 검역 및 외국인 격리조치 지속 시행(11.3, 6)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남북대화 없다”(1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위임’에 따라 ‘중대 입장’을 천명한다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훼손하는 뼈라 살포 망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 대화도, 북남관계 개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성명은 탈북자단체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100여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낸 사실을 거론하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뼈라 살포 망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비호, 두둔, 조장하는 자들과 그 무슨 대화를 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함.
- 성명은 특히 “뼈라 살포 망동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 처단할 것”이라며 남한 당국이 이들을 북측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통일현장은 “체제대결 기도” 비난(11/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6일 서기국 보도에서 정부가 내년에 공포할 예정인 ‘통일헌장’이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괴뢰패당의 통일헌장 조작 책동은 체제대결, 제도통일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이어 통신은 조평통이 보도에서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조국통일3대헌장’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을 ‘통일대강’으로 내세우며 “괴뢰패당은 범죄적인 통일헌장 조작 놀음을 당장 걷어치우고 북남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일헌장, 통일대강들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음을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노동신문 “南, 대북전단 살포 무조건 막아야”(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뼈라 살포의 막후조종자, 흉악한 장본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나날이 파국으로 치닫는 북남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 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 뼈라 살포에 대한 비호 조장과 묵인을 당장 중지

하고 그것을 무조건 제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함.

- 신문은 1일 ‘무력 충돌의 위험한 불씨’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지금 북남관계를 엄중히 해치는 가장 침예한 문제”라며 “빠라 살포는 곧 하나의 전쟁 행위로서 그것이 감행되면 도발을 짓부쉬버리기 위한 소멸 전투가 있기 마련”이라고 경고함.
- 또 ‘사대매국노들의 얼빠진 핵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지금은 북남관계의 전도가 좌우되는 매우 중대한 시기로서 당국자라면 누구나 언행을 책임적으로 해야 할 때”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준국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발언을 비난함.

● 北 신문 “南, 미국 ‘인권공세’ 가담 시 남북관계 파국”(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인권 모략의 불순한 목적은 가리울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 정부를 향해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상전과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 압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적극 가담해 나서면서 민족의 이익을 계속 해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파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함.

● 北, 대북전단 거둬 비난…“빠라는 인권 모략”(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대결과 전쟁을 몰아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빠라 살포 난동과 그 파국적 후과(결과)는 괴뢰당국이 강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의 대결적 본질을 날낱이 폭로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말로는 대화와 신뢰를 떠들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고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남북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함.
- 또한 신문은 3일 ‘광대극의 추악한 내막’이라는 글에서도 남한 정부의 ‘인권모략’이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 사실 등을 비난함.

● 北 매체 “스마트폰 北 해킹 주장은 새 모략극” 비난 (11/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의 국내 스마트폰 해킹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데 대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깨트린 데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가 높아가는 것과 때를 같이 한다”며

-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날려버린 죄행을 정당화하고 북에 대한 적대감정을 고취하려고 ‘해킹’설을 조작했다는 내외여론의 주장은 우연하지 않다”고 주장함.
- 이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로부터의 출로를 새로운 ‘북풍’ 조작으로 벗어나 보려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역대로 써먹는 상투적 수법”이라며 “그 앞장에 이른바 모략의 소굴인 괴뢰정보원(국정원)이 서 있다”고 비난함.

● **北, 연일 전단 살포 비난하며 대남 압박 (11/4, 민주조선; 11/5,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민주조선은 4일 자에 실린 ‘사태의 엄중성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세계제패 야망 실현에 적극 편승하는 남조선 당국 으로서는 흡수통일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질 뿐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애당초 바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논평에서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에서 탈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뼈라 살포 행위를 묵인, 조장시킴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차던졌다”고 비난함.
- 통신은 또 5일 인민보안부 간부의 주장을 소개하는 형식의 글에서 “만일 그들(남한 정부)이 지금과 같은 반통일 대결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화는 고사하고 기구조준타격은 물론 그 본거지와 배후 지휘세력에 대한 타격까지 선포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복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평양방송 또한 5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은 한 줌도 못 되는 너절한 인간스레기들의 망동 때문에 엄청난 화를 입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통신, 南 호국훈련 비난…“북침연습”(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논평에서 우리 군이 10~21일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인 호국훈련에 대해 “이번 호국훈련은 그 규모와 내용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 더욱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것으로 하여 호전광들의 전쟁 광기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난함.
- 통신은 “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을 운운하면서 합동상륙훈련, 서북도서 방어훈련, 요격훈련 등 도발적인 훈련들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며 “미제 침략군도 투입된다고 한다”고 지적했으며, “호전광들은 해마다 ‘호국’의 간판 밑에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 연습을 벌여놓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회만을 노려왔다”고 덧붙임.

● **北 신문, 연일 뼈라 살포 비난…“남북 대화 없다”(11/8,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8일 ‘대화를 우롱하는 범죄적 망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가 이미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뼈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은 언제 가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민주조선도 8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문제는 괴뢰당국에 뼈라 살포를 막을 의도가 꼬물만치도(조금도) 없다는 데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뼈라 살포 망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와 마주앉아 대화할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신형 전술미사일, SS-21 개량형 추정”(11/3, 38노스)**

-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소장은 3일(현지시간) 38노스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새 미사일도 SS-21의 사거리를 더 늘린 개량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기함.
- 이와 함께 노동신문 등에 실린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곳과 6월 26일 발사한 곳이 같았으며, 원산 인근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단지처럼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유소년축구단 참가 2014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막(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7일 보도를 통해 한국·북한·우즈베키스탄·중국 등 4개 국가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한 2014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가 개막했으며, 북한 유소년 축구단 선수 중 8명도 개막식에 참석하고, 개막식이 끝난 후 북한 4·25 체육단 유소년팀과 경기도 유소년 팀의 경기가 이어졌음을 전함.

- 韓美 「전작권」 재연기 합의를 ‘북침야망 실현을 위한 반민족적 범죄’ 등으로 비난 지속 및 ‘北, 핵억제력 강화 정당성’ 부여(11.2, 중앙방송·평양방송)
- ‘南 당국이 뼈라살포의 배후 조종자이며 진범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뼈라살포를 계속 묵인·조장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청난 후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11.6, 노동신문)
-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며 ‘괴뢰패당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참혹한 폐허지대,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 및 ‘집권세력의 독재정치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는 극악한 파쇼폭압통치’라고 비난(11.7, 중앙통신·노동신문)
- ‘통일현장’ 제정 계획 관련 ‘남북 사이의 체제대결, 제도통일’ 기도를 드러낸 것 ‘이라고 연일 비난(11.9,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외무성 “인권공세’ 美와 인권·핵 대화 안해”(1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진정한 인권대화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를 전복하려는 적에게는 인권대화는 물론 핵대화도 허용할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미국은 먼 앞날도 아니고 바로 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벌써 우리 병진노선의 승리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통신은 다른 논평을 통해 10월 21일 북미 제네바합의 20주년을 맞은 사실을 언급하고 “대조선 적대시정책이야말로 미국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우둔한 자살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우리의 핵능력 강화가 미국의 전략적 안보에 위협으로 느껴진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인권문제 거듭 반박…“美 ‘인권소동’ 안 통해” (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인권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에서 우리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군사적 억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
- 논평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북한 체제를 압박해 왔으며 ‘인권소동’도 이같은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인권은 특정한 나라나 세력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의 인권기준이 세계 보편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모두 석방…귀국길에(1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미국 국무부의 8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억류해온 미국인 케네스 배(46)와 매튜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석방했다고 보도함.
- 두 미국인은 8일 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과 함께 평양을 떠나 미국령 괌 공군기지에 도착했으며, 오후 미국을 향해 출발해 8일 밤늦게 워싱턴 주 매킨주 공군기지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마. 대중국

●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회부 반대…내정 간섭말라”(11/4, 포린폴리시; 1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기사를 통해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4일 진행된 미국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domestic affairs)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음을 전함.

● **북한산 무연탄, 중국 항만서 중량 미달 또 적발 (11/8, 제노만보)**

- 중국 산둥(山東)성 룡커우(龍口)항 출입국검사검역국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수입한 무연탄에 대한 검사에서 16차례 연속으로 애초 계약한 양보다 실제로 배에 실려온 양이 적은 것을 적발했다고 현지 매체인 제노만보(齊魯晚報)가 8일 보도함.

바. 대일본

● **북한 에볼라 차단 조치로 북일 스포츠 교류 연기(11/4, 도쿄신문)**

- 도쿄신문은 4일 일본체육대가 북한에서 가지려던 스포츠 교류 시합이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외국인 입국자 격리 조치로 급거 연기됐다고 보도함.

● **조선총련 건물·토지, 일본 부동산기업에 매각 확정(11/5,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5일 보도를 통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소법정이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마루나가 홀딩스에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를 매각도록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조선총련이 낸 특별항고를 기각했다고 전함.

● **북한, 일본인 납치범 조사방침(11/5,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5일 북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28~29일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에서 북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인 납치 가담자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는 보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北-우간다 외교당국, 협력 강화 협정 체결(1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우간다가 지난달 31일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부문별 회담’을 했으며 “조선 외무성과 우간다 외무성 사이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고 1일 보도함.
- **주영 북한대사관 미술전…첫 공관 개방 눈길(11/3, 텔레그래프)**
 -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3일 보도를 통해 주영 북한대사관이 11월 4~7일 동안 런던 북부 일링의 주택가에 있는 공관을 개방하고 북한작가 미술전을 개최한다고 전함.
 - 매체는 해당 전시회 기획에 참여한 영국 미술전문가 데이비드 히서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최고위층의 결단으로 전시회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으며, 공관 1층 라운지에 임시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만수대 예술단 소속화가들의 작품 수십 점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 **北 김영남 아프리카 순방 마무리…‘고립탈피’ 초점 (11/4, 조선중앙통신, NK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통해 10월 21일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수단, 콩고, 우간다를 방문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강하국 보건상, 궁석웅 외무성 부상,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과 함께 3일 비행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힘.
 - 북한 공식 매체는 이번 순방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NK뉴스는 지난 1일 김 상임위원장과 동행한 궁석웅 부상이 오켈로 오리엠 우간다 외교부 차관에게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4일 보도함.
- **北 농아인들 핀란드 방문…장관 면담(1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8일 핀란드 국제개발부 유하 펠토넨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 농아인 3명과 조선장애인보호연맹 관계자 3명 등 북한 대표단 6명이 7일(현지시간) 세르파 파테로 국제개발부 장관과 30분간 함께 면담을 가졌다고 전함.
 - 이어 방송은 대변인이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핀란드는 북한에 순수한 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을 뿐 (장애인 지원을 비롯한) 개발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음을 전함.

-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모략적으로 꾸며내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北)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해보려는 더러운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11.1, 중앙통신·노동신문)
- ‘군축은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격화시키며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은 핵군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11.1,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총비서 추대 17돌’과 ‘黨창건 69돌 및 ㄷㄷ결성 88돌’ 즈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다고 소개(11.3, 중앙통신)
- 양형섭, 11월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 방문한 駐北 체코대사와 담화(11.3, 중앙통신)
- 韓美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 관련 ‘이번 합의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北)와 군사적 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11.4, 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발언(북핵 포기는 실현 불가능, 대화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자국 내에서까지 실패한 정책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 주장(11.4, 중앙통신)
- 강용덕 라트비아 주재 北 대사, 10월 28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11.4, 중앙방송)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11월 6일 주북 폴란드 대사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11.6, 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11월 3일 김정일 사망(12.17) 3주기를 즈음하여 ‘추모행사준비위원회’ 결성(11.6, 중앙통신)
- 최혁철 알제리 주재 北 대사, 11월 5일 주재국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11.8, 중앙방송)
- 김준갑 駐말리 北대사, 10월 28일 ‘말리를 위한 연합 위원장(불까숨 아다라)’ 의례 방문(11.9,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평양공항 공사 질책…마감공사 중단·재설계 지시(1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1일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마감공사 현장을 방문해 ‘민족성’을 살리지 못한 시공 방식을 질책하고 재설계를 지시했다고 1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현지도에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능오 당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그를 수행했으며, 건설장에서 강기섭 민

용항공총국장과 립광옹을 비롯한 간부들이 일행을 맞이했다고 덧붙임.

- 건설 현장 곳곳을 둘러본 김 黨 제1비서는 “전번에 2항공역사(2청사)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성,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하라고 과업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질책함.
- 김 黨 제1비서는 순안국제공항 맞은 편에 청사와 활주로를 더 짓고 평양 중심부와 공항을 고속철도와 도로로 연결해 “세계적인 비행장”으로 건설할 구상도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 4월 포사격 시찰후 인민군 간부 167명 강등(4/26, 조선인민군; 11/4, 마이니치신문)**

- 마이니치신문은 북한 인민군 기관지인 『조선인민군』의 4월 26일자 기사를 인용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올해 4월 인민군부대의 사격 숙련도를 지적한 이후 인민군 간부들이 대규모로 강등되었다고 11월 4일 보도함.
- 이어 『조선인민군』 4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올해 4월 인민군 제681 군부대 산하 포병부대의 포 사격 훈련을 시찰하고 질책했으며 4월 25일자로 관련 부대가 해산되고 간부 167명이 강등되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김정은, 지팡이 없이 軍회의 참석…전투력 강화 지시(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보도를 통해 지난 3일과 4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참석하여 직접 연설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참가자를 비롯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연설을 통해 “인민군대에 있어서 싸움준비, 훈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절박한 과업은 없다”며 “싸움준비에서 내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대들에서는 부업을 강하게 내밀어 중대들을 다 부자중대로 만들고 군인들에게 언제나 푸짐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함.

● **北 TV, 김정은 영상 공개…여전히 다리 절어(11/6,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黨 제1비서 참석 하에 지난 3~4일 평양에서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영상을 방영함.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TV의 영상을 기반으로 지난달 14일 장기간의 칩거를 깨고 등장한 이후 북한 매체가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영상 속 김정은 黨 제1비서는 의장에 입장하거나 연단으로 이동할 때 지팡이 없이 걸었으나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6일 보도함.

● **北 김정은, 제약공장 시찰…의약품 대량생산 지시(1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의약품 생산공장인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방문한 의약품 생산공장이 2011년 2월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찾았던 곳이며,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허환철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음을 전함.
- 이어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살펴보고 의약품검정소, 수액공장 등을 둘러보고 공장에서 간편하면서 쓰기에 편리한 여러 가지 휴대용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제약공업 발전에서 이 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군인과 인민들에게 보내주며 의약품의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박봉주,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개건 공사현장 현지 요해(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보도를 통해 박봉주 내각 총리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개건 공사현장을 현지 요해했으며, 그에 앞서 중앙동물원 개건·보수 공사장과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를 돌아보았다고 전함.

● **최룡해, 장성택 측근 숙청자 명단에 올리라고 지시(11/5, 요미우리신문)**

- 요미우리신문은 5일 북한 관계 소식통 인용한 보도를 통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작년에 처형당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가까운 간부를 숙청 대상자 목록에 올리도록 군에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함.

● **박봉주, 황해남도 응진·강령·신천·은률군의 낱알털기 정형을 현지 요해(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보도를 통해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 응진·강령·신천·은률군의 낱알털기 정형과 평안남도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의 낱알털기 정형을 현지 요해했으며, 올해 가뭄으로 내년 농사에 필요한 관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조건에서 물 확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김정은조선’…北, 김정은 붙인 신조어 속속 등장(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보도에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3~4일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보고에서 “이 땅 위에 김정은백두산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다음을 전함.

● **北 전군 대대장, 김정은에 충성 다짐(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대대장과 대대 정치지도원들이 7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모여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며 행사에 황병서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북한군 지휘부가 참석했다고 전함.
- 이어 황 총정치국장이 연설에서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에 대한 백옥같은 충성을 지니고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 모든 대대를 김정은 빨치산대오, 당의 제일 근위대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으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을 대표해 대대장과 대대 정치지도원들도 연설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일 한평생은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를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운 애국자의 영웅적 한생이었다'고 칭송하고 '모두다 김정은 두리에 뭉쳐 새로운 100년대를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승리의 년대로 빛내어 나가자'고 강조(11.1, 중앙통신·노동신문)
- 「선군정치」는 “지배주의 세력에게 강타를 안기는 위력한 정치방식, 자주정치를 대표하는 위대한 정치방식”이라고 ‘김정일의 선군정치 정당성·생활력 및 김정은 계승 발전’ 강조(11.5, 중앙통신·노동신문)
- ‘당의 결정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기적을 창조해 나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조선이 세기를 주름잡으며 비약할 수 있었다’며 ‘당의 존엄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 보장하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과 인민의 자랑이고 긍지’라고 주장(11.9,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8일 前 소련 국방장관(드미트리 야조브)의 생일(90세) 즈음 현영철(인민무력부장)을 통해 ‘친서와 선물 및 꽃바구니’ 전달(11.9,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신문, 철도 현대화 독려…“수송문제 해결 방도”(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평양철도대학 교수인 조명남 박사가 기고한 글에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인 철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기관차와 화차를 비롯한 수송수단의 질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우고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철도 현대화를 독려함.
- 조 박사는 최근 철도 분야의 과학자·기술자들이 비동기 견인전동기를 설치한 교류기관차 ‘선군붉은기’ 1호를 개발했다며 “레일 맞담용접기 제작, 철도수송 조직과 지휘, 경영활동의 정보화 실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돼 철도의 중량화와 고속화, 철도 운수정보관리체계 확립에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함.

나. 주요 조치

- **北, 연안 개발 대비 ‘바다오염방지법’ 대폭 강화(10/22, 민주조선; 1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입수한 민주조선 10월 22일 자 ‘법규해설’ 코너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바다오염방지법’을 수정·보충해 공포했다고 보도함.
 - 민주조선은 개정 바다오염방지법은 6개 장 6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환경보호사업을 건설에 앞세우는 것은 국가의 중요 정책”이라며 “해안 연선의 주민지구, 산업지구 건설에 앞서 바다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매체는 또 개정법을 통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국가적인 오염방지 체계 수립, 수질보호구역 지정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해안 지역 기관별로 ‘해안관리구역’을 설정해 오염 방지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세계 하위 11~16% 수준(1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6일 보도에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에 실린 ‘북한 국민소득 통계 소개 및 소득수준 비교’ 논문을 인용하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에는 세계적으로 하위 3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1~16% 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음을 전함.
- **北, 연말 앞두고 연일 ‘연간생산계획 초과’ 선전(11/6~7, 9, 노동신문)**
 - 6일자 노동신문은 1면에서 자강도에 있는 차가평시멘트공장이 지난달 말 작년 한 해 생산량의 1.3배를 달성했다고 밝힘.
 - 신문은 7일자 1면에서도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수산협동조합이 지난달 중순에 연간 생산계획의 1.5배를 달성했으며 신의주를 비롯한 각지의 고치(누에고치)생산사업소에서도 연간 생산계획을 뛰어넘었다고 소개함.
 - 이어 신문은 9일 ‘연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혁신’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내각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의 올해 소금생산계획이 큰 폭으로 초과 달성됐다고 밝힘.
 - 신문은 특히 올해 소금 생산량이 작년보다 28만여t이 늘었다며 제염 부문 노동자들의 ‘혁신적인 투쟁’을 높이 평가함.
 - 신문은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도 지난달 13일 부로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으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올해 비료 생산량이 기존 최대 생산량 기록의 1.2배에 달했다고 선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中 항공유 수입 회복세…올해 1만3천t(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1월부터 9월 까지 1만 3천 톤의 항공유를 수입해 작년 같은 기간 359톤 보다 증가했음을 전함.
- 이어 뉴스는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항공유 규모는 2011년 동기에는 3만 8천 톤, 2012년 동기에는 3만 9천 톤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에서 사는 항공유 규모는 여전히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덧붙임.

● 아일랜드 NGO, 20억 규모 새 대북지원 추진(11/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방송을 통해 1997년부터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과 산림 황폐화 방지, 식수·위생 개선 활동을 펼쳐왔던 아일랜드 NGO ‘컨선 월드아이드’가 150만 유로(약 20억 3천만원) 규모의 새로운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함.
- ‘컨선 월드아이드’의 이파 블랙 북한 담당관은 유럽연합(EU)에 신청한 150만 유로의 예산지원이 승인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북한 강원도 지역에서 영양 개선 및 식량지원 사업을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북 지원사업은 주로 강원도 통천군과 법동군에 집중될 것이라며 “두 지역 주민들에게 보전농법을 전수하고 협동농장에 관개시설을 설치해줄 것”이라고 전함.
- 이어 블랙 북한 담당관은 통천과 법동 지역의 식품가공공장 재건을 돕고 공공시설과 일반 가정에 화장실도 지어줄 계획이며, 이번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음을 방송은 전함.

● 北, 상하이~평양 직항 타고 마라톤 참가 상품 허가(1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중국 상하이~평양 직항 노선을 이용해 내년 4월 11~13일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관광상품을 미국 뉴저지의 북한 전문여행사 ‘우리투어스’에 허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방송은 여행사에서 마라톤대회에 미국인을 포함해 어떠한 국적의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으며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관광객 또는 선수에게는 북한 감시인이 따라다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어 해당 관광 상품을 구매한 관광객들은 마라톤대회 전날 김일성경기장을 둘러볼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며, 평양과 개성, 비무장지대 등의 관광을 포함한 6박 7일 일정으로 가격은 2천 400달러(약 260만 9천원)라고 전함.

-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덕성탄광, 월 석탄 생산계획 완수(11.1, 중앙방송)
- 위성남새온실(위성과학자 주택지구,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신형 태양열온실) ‘첫 물 남새 수확 및 주택지구 주민들에게 전달’ 선전(11.2, 중앙방송)
- 원산 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113.8%)·원산유리병공장(121.1%)·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110.6%), 연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 이룩(11.3, 중앙방송)
-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 소금생산 실적(작년 대비 2.3배) 선전(11.4,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에 “자연 에너지자원 개발, 이용에 대한 연구사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연에너지연구소’가 새로 꾸러졌다”고 보도(11.4, 중앙통신)
- 건설재건공업성 일꾼들, 10월 인민경제계획 113% 초과 수행(11.6, 중앙방송)
- 北, ‘CNC부하전력관리체계’(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발)가 자강도를 비롯한 여러 도, 시, 군들에 도입되어 은을 내고 있다고 선전(11.7,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체육은 포성 없는 전쟁…우승은 민족의 힘”(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조선의 체육열풍’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서 체육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강조함.
- 정론은 “조선의 체육열풍, 이 말이 안고 있는 의미는 간단치 않다”며 “체육은 나라의 진보와 민족의 운명발전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강력한 변수”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체육은 총포성이 없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체육은 국력의 대결이며 체육경기에서의 우승은 민족의 힘과 정신력의 주장”이라고 덧붙임.
- 나아가 정론은 “조선의 체육열풍은 김정은 동지께서 일으키는 오늘의 새 시대의 기상”이라며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30년, 300년에 맞먹는 두터운 페이지를 아로새긴 원수님의 체육강국 건설 영도사”라고 선전하며 체육열풍을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공으로 칭송함.
- 이어 김 黨 제1비서와 체육인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금메달로 떨치고 빛내는 체육 전장의 미더운 전우”라고 표현하며 김 黨 제1비서가 체육인을 ‘애국자’, ‘멋쟁이’ 등으로 부른다고 소개하였으며, “체육은 유희이나 오락이 결코 아니다. 체육에 대한 사랑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고 집단에 대한 사랑이며 생활에 대한 애착이다”라며 모두가 체육열풍에 뛰어든 것을 호소함.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北 대남매체, 연일 신상탈기식 탈북자 비난 공세(11/4, 우리민족끼리; 11/6,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민족끼리에서 지난 4일부터 매일 ‘탈북자, 너는 누구냐’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 인터넷매체 뉴포커스의 장진성 대표를 잇달아 비난하는 등 탈북자들에 대한 신상탈기식 비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지난해부터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탈북자들을 비난했지만, 탈북자들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방식과 함께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출신학교를 비롯한 기본적인 경력을 그대로 공개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을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관리 “에볼라 차단 위해 모든 수입품 검역”(11/3, 조선중앙방송)

- 리철진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11월 3일 조선중앙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국경지역의 검역강화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반입 통로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함.
-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운수수단들과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철저히 검역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단 하나의 수입품도 놓치지 않고 철저한 소독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경지역과 공항 등에서 입국자들을 빠짐없이 격리중이라고 덧붙임.

- **北 휴대전화, 한 달에 천원 내면 200분 기본 통화(1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은 4일 북-중 접경지역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휴대전화의 기본요금은 북한 돈 1천원(10월 15일 환율을 기준으로 북한 돈 1천원은 약 12센트)이며, 기본요금으로 한 달에 200분의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보도함.
 - 이어 방송은 북한에서 평양과 북한 체신성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합작으로 운영하는 '고려링크' 대리점이 평양과 각 도 체신국에 설치됐으며, 이곳에서 휴대전화 판매와 요금 수납 등이 이루어진다고 전함.

- **北 올해 남자축구 최강팀은 청년동맹 소속 '햇불팀'(11/3, 조선중앙통신; 11/4,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3일 공화국선수권대회(우리의 전국체전에 해당) 축구 1급 경기가 끝났다고 하며 "40여 일간 치열하게 벌어진 강팀들 사이의 대결전에서 햇불 남자팀이 우승했다"고 전함.
 - 연합뉴스는 4일 조선신보의 1월 보도를 인용하여, 햇불 축구팀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작년 5월에 갖 조직되었으며, 특히 김정은 당 제1비서가 "체육 열풍을 일으키는 데서도 청년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며 햇불팀 설립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함.

- **北, 에볼라 예방 위해 호텔 등에 외국인 격리(11/6, 조선신보)**
 -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위원회 중앙지휘부 상무책임자인 박명수 국가위생검열원장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들은 평안남도 안주시 청천강여관과 평안북도 신의주시 압록강 여관에 격리돼 보건 담당자의 의학적 감시를 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함.
 - 이어 국가비상방역위원회는 보건성·농업성·노동성·철도성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 도·시에 비상방역지휘부를 꾸리고 전국적인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사업을 지휘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에볼라 예방 조치에 따라 북한 주재 외교·국제기구 대표부 직원들은 해당 대표부에, 재일동포는 평양호텔 등 지정장소에 격리된다고 전함.

- **北 대학입시에 외국어 회화 도입...“실천형 인재 양성”(10/30, 교육신문; 11/9, 연합뉴스)**
 -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10월 30일자)의 '외국어 청취 및 회화 시험이 진행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내각)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 입학시험과 상급학교 추천을 위한 예비시험에서 외국어 청취 및 회화시험을 조직한다"고 밝혔다고 연

합뉴스가 9일 보도함.

- 교육신문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과학발전과 세계 선진과학기술 습득, 국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며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실천형 인재 양성에서 외국어 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는 아주 중요하고 무겁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 뉴스는 김일성종합대학 등 주요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평양 지역 수험생은 내년부터 예비시험, 대학별 시험 등 총 2회에 걸쳐 영어 듣기·회화 시험을 치르게 됐다고 전함.

● **北 엄윤철, 세계역도선수권서 2개 금메달(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역도의 간판 엄윤철(23)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은 엄윤철이 8일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역도 56kg급 경기에서 용상 168kg에 합계 296kg을 들어 올려 용상과 합계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함.

- 낙랑구역 인민병원 청년일꾼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한 ‘직관물 등을 통한 위생선전(감염경로·전파경위·방역 등) 활동’ 전개(11.2,평양방송)
- 황해남도, 역사유적들을 원상대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보수공사 진행(11.3,중앙통신)
- ‘우표와 우표관련 유물수집발굴사업’ 진행(사용하지 않는 우표·엽서 및 인쇄설비들과 도구, 우표관련 유물자료 등) 예고 및 ‘해당기관·개별적 소장 자료들’을 팩스·이메일 통해 수집(11.5,중앙통신)
- 평양 육아원·애육원의 원아들, 11월 6일 새로 지어진 새집으로 이사(11.6,중앙통신)
- 전국 생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11월 5일과 6일 평양에서 진행(11.6,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1차 무한국제교예축전(11.1~6, 중국 무한시)에 참가한 北 교예팀, 최고상인 ‘황학금상’ 획득(11.9,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10-11.16

11월

3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南 전단살포 중단 재촉구(11.10, 15)
- 北, “더 높은 애기봉 등탑 건설은 엄중한 도발”(11.10)
- 北, “북침전쟁연습 용납못해” 호국훈련 비난(11.12~13, 15)
- 北, 호국훈련에 맞춰 판문점 JSA서 저장도 도발(11.10)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오바마 친서 주목 “美 행동 따라 호응”(11.11)
- 前 소련 국방장관, 김정은에 감사편지, 북러친선 의미(11.12)
- 北·러시아,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 체결(11.12)
- 北,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11.10)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중앙양묘장 시찰(11.11)
-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식료품공장 시찰(11.15)
- 北 최룡해, 러시아 방문(11.14)
- 北, 김정일 3주기 분위기 부각(11.12, 14)

4. 경제

- 北, 남북-유라시아 철도 계획(11.8, 11)
- 北, 평안북도 동림군 서양관광객에 개방(11.13)
- 北, 방북 기자단에 외국인 투자혜택 소개(11.12)
- 중국 연변, 북한 연결 국경통상구 인프라 보강(11.13)
- 독일 NGO, 北서 20억 규모 채소종자 생산 지원(11.14)

5. 사회

- 北 대입 ‘뇌물액’도 올라(11.13)
- 北 ‘어머니날’ 맞아 여성 역할·충성심 강조(11.16)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조평통, 호국훈련 비난…“북침전쟁연습 용납못해”(1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중앙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2일 서기국 보도에서 호국훈련은 북침전쟁연습이라며 “무분별한 북침 전쟁연습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함.
- 조평통은 특히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상에서 잇따른 군사적 충돌 위기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하는 우리 함선과 군인들에게 마구 총포 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수차례나 감행했다”고 주장함.
-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평화를 강조한 외중에 진행된 호국훈련은 겉과 속이 다른 남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해 북침 핵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국방위, 南에 군사훈련·전단살포 중단 재촉구(1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15일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진정으로 관계개선과 대화를 바란다면 미국을 끌어들이 벌이는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고 동족을 겨냥해 벌이는 ‘호국-14’와 같은 실전북침전쟁소동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15일 보도함.
- 또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며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모독하고 우리 체제를 헐뜯어대면서 마주앉아보겠다는 그 자체가 철면피의 극치”라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통신 “더 높은 애기봉 등탑 건설은 엄중한 도발”(1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반공화국 심리전 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새로 건설 예정인 애기봉 전망대를 언급하며 “무모한 망동으로 조성될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애기봉 등탑 확대 놀음을 당장 건어치워야 한다”고 밝힘.

- 이어 논평은 “애기봉 등탑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해 북남 사이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광란적인 대결 소동의 상징물”이라며 전망대 높이를 높이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일으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노동신문 “빠라 중단없이 대화 없다”…南 거듭 압박(11/10,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0일 ‘북남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빠라 살포를 중단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부당한 전제조건’으로 혈뜬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생역지”라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표현하며 “대통령 감투를 쓰기도 전인 2012년 10월 반공화국 빠라 살포에 앞장선 쓰레기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자들과 함께 먹자판을 벌여놓고 격려해주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 역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달 6일 국회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10일 주장함.

● **北 신문 “독도시설 건립 취소는 친일 굴종행위” 비난(1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검토하기 위해서인가, 포기하기 위해서인가’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남측이 “독도시설물 건설을 취소한 것은 일본 상전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친일매국노적 기질의 발로”라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은 동족대결 야망이 골수에까지 들어박힌 나머지 민족의 운명은 아랑곳도 않고 재침을 꿈꾸는 침략세력(일본 지칭)과 결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유신 독재자의 친일바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 집권세력의 행적은 걸음걸음이 치욕스러운 대일 굴종으로 일관돼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또한 “사대매국노들의 친일 굴종 행위로 오늘은 독도의 주권이 농락당했다면 내일은 민족의 운명이 통째로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굴러 떨어질 수 있다”라며 “현실은 민족의 자주권과 운명을 지키자면 사대매국노들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함.

● **北, 호국훈련 거듭 비난…“북침전쟁책동 좌시안해”(11/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연평도의 교훈을 잊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을 언급하며 “무모한 북침 전쟁연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노동신문도 13일 ‘전쟁머슴꾼의 어이없는 허세’라는 제목의 글에서 호국훈련을 비난하며 “이 불장난 소동이 가뜩이나 참여한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에 어떤 파국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호국훈련에 맞춰 판문점 JSA서 저장도 도발”(11/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일 보도를 통해 북한군이 10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군사분계선(MDL)에서 저장도 도발을 감행해 군 당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군 10여 명은 10일 오전 9시 40분께 JSA내 우측 MDL로 접근해 설치된 ‘MDL 풋말’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가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받고 오후 1시께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현정은, 금강산관광 16주년 행사차 18일 방북(11/16, 연합뉴스)**

- 통일부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의 금강산 관광 16주년 행사를 위한 방북을 16일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현 회장과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등 22명은 18일 오전 10시 강원도 고성 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출경해 금강산에서 기념행사를 한 뒤 현지시설을 점검하고 오후 4시께 돌아올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는 “정부는 순수한 기념행사를 위한 방북인 만큼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에도 매년 방북을 승인해 왔다”며 “기념행사 외에 북한측 관계자와의 별도의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힘.

바. 남북 사회 관계

● 유진벨재단 “내년 봄 北에 결핵병동 3동 지을 것”(11/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보도를 통해 북한에서 결핵치료 지원사업을 해온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내년 봄 북한에 결핵치료 병동 3동을 새로 짓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고 전함.
- 유진벨재단은 이번 방북 기간 다재내성결핵치료센터에서 환자들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1천100여 명의 환자에게 모두 7억7천만원 어치의 결핵치료약을 전달했다고 뉴스는 전함.

● 평양과기대, 이달 19일 첫 학부 졸업생 배출(11/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평양과기대)이 11월 19일 학부 졸업식을 통해 첫 학부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11일 보도함.
- 이어 평양과기대를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관계자는 “북한 당국의 에볼라 방역 조치로 외부인사들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7개 종교단체, 남북 공동행사 관련 北접촉 신청(11/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7개 종교단체가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위해 통일부에 대북 접촉을 신청했다고 13일 보도함.
-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장재언 조선카톨릭협회중앙위원장 겸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을 비롯한 북측 종교 단체 관계자를 만나 남북 공동행사 개최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남북 종교교류와 관련해서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접촉신청 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인원은 실무협의를 필요한 위주로 검토할 계획으로, 조만간 검토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北 (조국통일연구원), 11월 11일 ‘세월호 참사 「상보」 를 통해 이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南 당국의 솔직한 인정과 심판대에 나설 것, 진상규명·관련자 처벌’을 주장(11.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통일헌장’ 제정 추진(‘15년 광복 70주년 계기)에 대해 ‘체제대결을 극대화하려는 책동의 일환, 흡수통일야망 실현’이라고 비난 공세(11.11, 평양방송)
- ‘호국훈련’ 실시 관련 ‘북침을 노린 무모한 군사적 망동, 북남관계 파국을 부추기

는 군사적 도발소동'의 제목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범죄적 망동이고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우리(北)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경우 천 백배의 보복타격으로 전면 소탕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11.12,평양방송)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11.13)】 우리 軍의 호국훈련을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北)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北)는 괴뢰패당의 북침핵전쟁 책동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강위력한 선군의 총대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11.13,중앙통신·중앙방송)
- 韓美 공군의 '맥스더' 연합훈련(11.14~22, 군산기지) 예고,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장본인'이라고 비난(11.14,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인권문제 관련 '南 당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심각한 집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의 발로이며 체제통일과 반공화국 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발악적 책동의 산물'이라고 왜곡 주장(11.15,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엇-3를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토를 외세에 내맡긴 쓸개 빠진 매국 역적들만이 할 수 있는 짓'이라며 '韓美의 무기장사놀음은 우리(北)를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떠밀 뿐'이라고 비난(11.16,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언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남이 쓴척'...北매체, 일본인 유골문제 '꼼수' 비판(11/10, 조선중앙통신; 11/13,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보도에서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 ‘1코리아뉴스’에는 ‘묘비 없는 무덤, 일본인 유골 문제를 살펴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며 글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이 글은 “일본인 유골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일제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며 일본이 북한 내 사망자 유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해왔다고 주장함.

- 연합뉴스는 13일 보도를 통해 조선중앙통신이 소개한 이 글이 '1코리안뉴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인 역사학자 조희승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함.

● **조선신보 “北, 오바마 친서 주목…美 행동 따라 호응”(11/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미국인 두 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데 주목하며 앞으로 미국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밝힘.
- 신문은 11일 '정보기관 총괄자가 전달한 오바마 친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임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정보기관의 최고수장을 평양에 파견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와 각오는 앞으로 미국이 취하게 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함.
- 또 “미국은 승산이 없는 (대북) 강경책에 매달려왔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그러한 실패를 바로잡고 대책해야 할 위치에 있는 DNI 국장이 교전 상대국의 수도를 방문한 것은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조선도 적대관계에 있는 정보기관의 최고위 인물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함.

● **北 “北 미사일 잠수함 보도’는 美의 교활한 술책”(1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에서 “최근 미국이 언론을 통해 우리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에 대해 계단식으로(단계적으로) 계속 여론화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를 소개함.
- 이어 “이것은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들의 반발을 무마시켜 고고도미사일 방위체계 (THAAD·사드) 구축을 강행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 논평은 “미국이 우리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여론을 확대하여 국제무대에서 대조선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고 타산(계산)했다면 그보다 큰 오산은 없다”며 “그것은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밝힘.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오바마 “억류자 석방은 작은 제스처…북,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11/10, AFP, DPA, 로이터 통신)

- AFP, DPA, 로이터 통신은 10일 보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두 명을 석방한 것은 작은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함.

● “美 재무부, 北 관련 금융거래주의보 또 발령”(11/14, 미국의소리)

- 미국 재무부가 지난 12일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다시 발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함.
-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금융거래 주의보를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금융, 상업 거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방송을 통해 밝힘.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前 소련 국방장관, 김정은에 감사편지…북리친선 과시(1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야조프 전 장관이 자신의 90회 생일을 축하해준 김정은은 黨 제1비서에게 답례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2면에 그 전문을 게재함.
- 전문에 따르면 야조프 전 장관은 발신일이 이달 9일로 된 이 편지에서 지난 8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김정은은 黨 제1비서가 친서와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주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파견한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함.

- 이어 “오늘 당신(김정은)께서는 저 자신뿐 아니라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다”라고 강조함.

● “北-러시아,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 체결”(11/12, 미국의소리,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북한과 러시아가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상호 강제송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번에 체결한 양국의 협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대방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면 구금하며, 조사를 통해 불법 입국자 혹은 체류자로 판명될 경우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12일 전함.

아. 국제기구

● 北,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1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매춘·색정문학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고 10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이 이번에 상기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정부의 아동중시정책과 인권 분야에서 자기 할 바를 다해나가며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과시”라고 강조함.

자. 기타국가

● 특이사항 없음

- 韓美의 「전작권」 재언기 합의는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단단히 틀어쥐는 동시에 美 군수독점체들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적인 책동이 낳은 것’이라고 비난(11.10,중앙통신)
- 美 해군의 SM-6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교전능력 테스트 성공 관련 “세계평화와 안전파괴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이라며 ‘무력증강 책동 중단’ 촉구(11.11,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최근 미국에서 연이은 총격사건(10.24, 워싱턴주 고교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논할 아무런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인권재판관 행세’ 조소(11.11,중앙통신·민주조선)

- 총련일꾼 대표단(단장: 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 부장), 11월 12일 비전향장기수 최태국과 상봉모임 진행(11.12,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1월 14일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팔레스티나국가 선포' 26주년 축전(11.1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교예배우들(*제11차 무한국제교예축전 참가, 11월1일~6일 중국), 11월 14일 귀환(11.14,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중앙양묘장 시찰(11/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평양에 있는 중앙양묘장을 시찰하고 나무심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중앙양묘장의 묘목온실, 묘목포전, 나무모영양단지 등을 둘러본 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산림 황폐화 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며 중앙양묘장의 묘목생산기지 확장과 묘목 생산에서 선진과학기술 수용, 산림과학원 리모델링도 강조했다고 전함.
- 중앙양묘장 시찰에는 최룡해·최태복·오수용 노동당 비서와 한광상 당 재정경리 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수행했고 현지에서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과 중앙양묘장 일꾼들이 이들을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동영상 공개…지팡이 짚고 부축받기도(11/1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1일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서 ‘40일 잠행’을 끝내고 지팡이를 짚은 채 공개 활동을 하는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모습을 공개함.

● 北 김정은, 軍 식료품공장 시찰…생산 현대화 강조(1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현대적으로 개건된 인민군 산하 식품공장인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 黨 제1비서가 “우리 당이 바라는 현대화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라고 강조했다.

- 김 黨 제1비서의 공장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최룡해, 김정은 특사로 17~24일 러시아 방문(11/1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에서 러시아 외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언론보도문을 통해 “최룡해 비서가 김 黨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이달 17~24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러시아 외무부가 “최룡해 특사의 방문 기간에 정치대화 수준 격상, 통상경제관계 활성화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을 포함한 양자 관계 현안과 상호 관심사인 일부 국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중앙통신도 14일 “김정은 동지의 특사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룡해 동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신문 “김정은 있어 사회주의 기적 이어질 것”(1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1면 전체에 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는 약동하는 조선의 힘이다’라는 제목의 ‘편집국 논설’을 통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집권 3년간 활동을 집약하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띄움.
- 논설은 “시대의 생ن길을 헤치고 조선이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자문하

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선택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비약적 발전을 담보하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주장함.

- 논설은 또 미국에 대해 “우리 인민을 핵 선제공격의 희생물로 만들어 세계무대에서 영영 없애버리려는 흥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며 “제국주의는 그 계급적 본성으로 하여 모든 인간적, 이성적 능력을 상실한 횡포무도한 침략자, 약탈자들”이라고 비난함.

● **北 “머지않아 김정일 3주기”… 벌써 추모분위기 조성(11/12,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2일 ‘위대한 장군님과 영원한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혁명적 품모’라는 글에서 “우리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장군님과 피눈물 속에 영결한 때로부터 3년이 되어온다”고 3주기를 직접 거론함.
- 또 신문은 “지난 3년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계셨다”며 당원, 장병,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도 12일 프랑스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3주년을 추모하는 회고위원회가 조직됐다고 전함.

● **北, 김정일 3주기 분위기 부각… “선군혁명 업적 빛내자”(11/1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업적’과 공업 발전에 쌓은 ‘업적’을 부각하며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대이은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어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의 선군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라며 “누구나 김정은 동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참된 동지, 진정한 선군혁명 전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도 14일 여러 지역에 김일성·김정일 모자이크벽화가 새로 세워진 소식과 우크라이나, 네팔, 우간다 등 여러 나라에서 김정일 추모 위원회와 ‘회고위원회’가 결성됐다고 잇달아 보도하며 분위기를 띄움.

- 北, 사설을 통해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모두다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호소(11.10, 중앙통신·노동신문)

- 「총련」 일꾼 대표단, 만경대방문 및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김정숙평양방직공장·능라급등어관 등 참관(11.11, 중앙통신)
- 4.15총성의 돌격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11월 12일 오수용(黨중앙위 축하문전달)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1.13, 중앙방송)
- 박금산(前 자강도 인민보안국 폭발물처리대 대장)에게 “공화국영웅(*7월 18일, 폭발물처리 작업 中 사망) 칭호 수여식, 11월 14일 진행(11.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 현지지도 및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과학자 기술자들(공장현대화사업에 적극 기여)에게 「감사」 전달(11.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 15일 시리아 대통령에게 ‘시정운동’ 44돌 즈음 축전 발송(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일꾼대표단(단장: 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 부장), 11월 15일 귀국(11.15,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내륙철도 현대화, 남북-유라시아 철도 첫 단계”(11/8, 통일신보; 11/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신보 11월 8일자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각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의 김철호 부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이 “조로(북러)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발전과 이익에 부합되는 대규모 철도협조계획 실현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고 11일 전함.
-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철도 개진사업은 모스크바 선언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협조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모스크바 선언에는 조선의 북남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중계수송로를 창설할 데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함.
- 김철호 부국장은 “재동역-강동역-남포역 구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그 후 여러 단계에 걸쳐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통일신보를 통해 밝힘.

나. 주요 조치

- **北 고려항공, 평양~함경도·양강도 노선 정기 운항(11/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지난 7월부터 평양과 함경남도 선덕, 함경북도 어랑, 양강도 삼지연을 오가는 고려항공 정기노선을 개설해 운항 중이라고 전하면서 “과거에 이들 구간을 잇는 항공편은 있었지만 정기항로는 아니었다”며 “평양~삼지연 구간은 거의 만석이며 겨울철에 운항하지 않는다”고 밝힘.
- **“北, 평안북도 동림군 서양관광객에 개방”(11/13, 연합뉴스)**
 - 13일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양 관광객들이 신의주시 부근의 동림군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13일 보도함.
 - 뉴스는 서양 관광객들이 중국의 국경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 차량으로 신의주와 동림군을 방문하거나 평양에서 기차로 이들 지역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함.
- **北 ‘조선 명승지로 오세요’…매체마다 관광지 홍보(11/16, 연합뉴스; 11월호 금수강산)**
 - 연합뉴스가 16일 입수한 금수강산 11월호의 ‘조선의 관광지를 찾아서’라는 이름의 코너에서 삼지연을 비롯한 백두산 일대 명소들을 소개함.
 - 금수강산은 ‘조선의 관광지를 찾아서’ 코너를 10월호부터 연재하기 시작했으며, 10월호 첫 기사에서는 작년 10월 들어선 승마장인 미림승마구락부를 포함한 평양의 명소들을 소개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北, 방북 기자단에 외국인 투자혜택 소개”(11/12, 자유아시아방송,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을 찾은 유럽 언론인들에게 투자 혜택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함.

- 연합뉴스는 12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이번에 유럽 기자들과 북한 관리의 만남을 주선하고 외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세금, 인건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중국 연변, 북한 연결 국경통상구 인프라 보강(11/13, 연변인터넷방송, 연합뉴스)**

- 13일 연변인터넷방송에 따르면 연변 주는 국가 자금을 유치해 허룽(和龍)시 난핑(南坪)통상구, 투먼(圖們)시 국경 다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연합뉴스는 13일 중국 현지 소식통들이 북·중이 취안허~원정리 새 국경 다리를 내년 5~7월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북한 함경북도·양강도와 9개, 러시아 연해주와 1개 국경통상구를 운영 중인 연변은 장기적으로 두만강 하구에 ‘북·중·러 3국 국제자유관광구’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함.

● **“獨NGO, 北서 20억 규모 채소종자 생산 지원”(11/14, 미국의소리)**

- 독일의 민간 구호단체 ‘벨트홍거힐페’가 내년부터 북한에서 채소 종자 생산사업을 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함.
 - 이 단체의 게르하르트 우마허 북한담당 국장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서 중국 배추와 토마토, 고추 등 8~10개 종류의 채소 종자를 생산하고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종자가 북한 전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힘.

●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 농업 협력에 가속도(11/14, 연합뉴스, 인테르팍스통신)**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은 뒤 생산물 일부를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한 농업협력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있다고 전함.
 - 인테르팍스통신에 따르면 북한 농업부 고명희 부부장이 14일(현지시간) 극동 하바롭스크주를 방문해 이 지역의 농지 1만 헥타르(ha) 이상을 빌려 채소 재배, 목축, 농산물 가공 공장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 **“北·中 원유거래 정상...통계 고의누락 추정”(11/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기사를 통해 중국 정부의 통계 수치상으로는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중국이 장기간 북한에 원유를 전혀 수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함.
 - 뉴스는 정부 당국자가 14일 “중국 통계에는 원유 수출이 전혀 안 잡혔지만 실제로는 수출 방식이든 원조 방식이든 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하

고 있다”며 “중국이 민감한 원유 수출 통계 수치가 외부의 주목을 받는 것을 꺼려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음을 전함.

- 정부는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한 원유를 정제하는 기간산업 시설인 평안북도 피현군의 봉화화학공장을 가동 중인 정황도 위성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뉴스는 전함.

- 수산과학분원 서해바닷가 양식연구소, ‘공업적 방법으로 바닷지렁이, 왕새우 증식’ 성공 보도(11.10,중앙통신)
- 계절호(신대쇠밭줄공장 지배인), ‘신대쇠밭줄이 아시아-유럽지역 등지에서 인기가 높다’며 제품 소개(내마모성 등) 선전(11.11,중앙통신)
- 함흥시멘트공장의 10월 31일 현재 연간 시멘트생산 계획 117.8% 초과 및 평양시여단의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공사량 85% 수행 선전(11.11,평양방송-중앙방송)
- 윤영석(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 부총국장),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12개 도(직할시)에 경제개발구를 내오기로 했다고 소개(11.12,중앙통신)
- 해주시, 중심광장지구에 수백세대의 살림집건설을 추진(11.12,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성 환경과학기술연구원, ‘아황산가스 자동측정기’ 국산화 실현 및 도입 보도(11.13,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레이저연구소의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형태 측정기술 연구 완성 및 새 기술(첨단제품의 정밀도를 높이고 수명 연장과 선진국의 레이저 측정설비에 비해 측정시간 1/5 단축 등)’ 소개 선전(11.14,중앙통신)
- 北, 국가적 조치에 따라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선전(11.15,중앙통신)
- 각지 임산사업소, 통나무 생산에서 혁신(11.16,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 역도, 세계선수권서 금메달 행진...리정화도 금(11/12, 조선중앙통신)

-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북한 여자 역도선수 리정화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또한 통신은 북한의 김명혁이 지난 10일 남자 69kg급 용상과 합계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함.

● 北 대입 ‘뇌물액’도 올라...“김일성대 입학 5천달러”(11/13,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 대북 무역상을 인용해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의 국어대학 같은 곳에 입학하려면 최소 미화 4~5천 달러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 액수는 3년 전보다 20% 오른 것”이라고 전함.
- 대학 졸업 후 관광안내원 등으로 배치받을 수 있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철구평양상업대학 관광봉사학부의 경우 입학 뇌물은 3천 달러 정도이며 상류층 속에서 여전히 인기가 많은 김일성대 부속 평양의학대학은 밴 종류의 차량을 1대 바치면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함.
- 이어 방송은 황해북도 사리원농업대학의 경우 최소 300달러, 많게는 800달러의 뇌물을 주면 입학할 수 있다고 전함.

● 北 ‘어머니날’ 맞아 여성 역할·충성심 강조(1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선군시대 어머니들은 애국충정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끝없이 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자식들을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선군혁명의 계승자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주문함.
- 신문은 ‘혁명의 어머니들의 영원한 사랑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은의 증조모 강반석과 조모 김정숙의 희생을 부각하는 일화를 소개하며 그들의 모성을 강조함.

- 제15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11.10~14) 개막식, 11월 10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11.10,중앙통신)
- 北 김은국 선수, 2014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카자흐스탄)에서 금메달 3개(인상, 용상, 합계) 획득(11.10,중앙통신)
- 강효남(조선항공협회 서기장), “공화국선수권대회 및 청년선수권대회 낙하산 정점강하경기” 진행(평양 항공구락부, 5일간) 및 ‘경기 성과 및 개인 집단경기 결과’ 등 전언(11.11,중앙통신)
- 박철수(남포시 위생방역소 실장), 남포시의 에볼라 바이러스 위생방역사업(격리병동 구비·치료제도 구성, 외국인 격리·의학적 감시 등) 전개(11.11,중앙방송)
- 박무송(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처장), ‘北, 비물질 문화유산(현재, 민요 ‘아리랑’·김치담그기 풍습 등 20여개 등록) 보호사업 전국적 추진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위한 국제기구 등 교류사업 추진’ 피력(11.11,중앙통신)
- ‘계급교양 주제의 글 및 그림 작품현상 모집’ 총화모임, 11월 1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1.13,중앙통신)
- 신양군·용원광산·평안남도 연유상사, 모자이크 벽화(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설치(11.13,중앙통신)
- 개건 준공된(*10.28) 5월1일경기장의 내·외부 건축·조형미 및 편의시설 등 선전과 신성철(의학과학원 실장)의 ‘팔씨름의 뇌 노화방지 효과’ 소개(11.14,중앙통신)
- 연풍과학자휴양소, 11월 16일 ‘첫기 휴양’ 시작 보도(11.16,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17-11.23

11월

4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조평통, 남한 ‘유엔 인권결의’ 추동질…전면 선전포고(11.22)
- 北,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앞두고 ‘패전의 교훈’ 잊지 말라 강조(11.21)
- 北, 한미연합 훈련 연일 비난(11.17~18, 20)
- 北, 금강산 공동행사 보도(11.18)
- 北, 대북전단 살포 비난(11.20)
-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실무협의단 방북(11.21)

2. 핵문제 및 외교

- 北, UN 인권 결의안 채택(1.18) 연일 비난 및 전쟁 억제력 강화 언급 (11.19~20, 23)
- 北, 을사조약 불법성 강조 및 일본에 과거 청산 촉구(11.18)
- 北, 미국 역사 거론하며, 미국은 태생적 ‘인권유린국가’라고 비난(11.19)
- 北, 미국의 ‘비핵구상’ 비난 및 북한의 핵 억제력 정당성 강조(11.21)
- 중국, 北 핵실험 위협에 ‘정세완화’ 강조(11.20)
- 최룡해 당 비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면담 및 북-러 협력의지 시사(11.19, 21)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34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 현지지도(11.17)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방문(11.21)
- 김정은 黨 제1비서, 제572대연합부대와 제630대연합부대 현지지도(11.23)

4. 경제

- 중국 최대 서점 프랜차이즈 ‘화문서국’ 북한 진출(11.20)
- 북한 접경 중국 도시들 ‘경제합작구’ 준비 가속(11.20)

5. 사회

- 北, 재외공관·무역기관 특별사찰(11.21)
- 10월 평양 낙랑구역에서 건설 중이던 38층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사고(11.19)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연평도 포격 4년 맞아 “패전 교훈 잊지 말라”(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이 21일 서남전선군 사령부 보도를 통해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되는 우리 군의 서북도서 지역 전력 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패전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성명에서 “우리 장병들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침예한 열점수역에서 도발의 불장난을 벌여놓으며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북한 “남한 ‘유엔 인권결의’ 추동질…전면 선전포고”(11/2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서기국 보도에서 남측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 놀음’을 벌였다고 이는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특히 남측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논의를 ‘광란 소동’이라고 비난하며 남측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인권 모략의 소굴’로 만드려고 있다고 주장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호국훈련 연일 비난…“남북관계 최악의 위기”(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미제와 괴뢰패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수자’라는 큰 제목 아래 2건의 기사·논평을 싣고 호국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먼저, ‘전쟁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고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호국훈련은 “고의적인 북남관계 파괴책동”이라며 이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함.
 - 이어 ‘호국훈련의 침략적 정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이번 호국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북침전쟁도발 소동’이라며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는 남측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주장함.

● 북한 “대북전단은 인권모략…남북관계 위해 중단해야”(1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변함없는 대결정책과 인권모략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과 남의 대화와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속에 품은 칼부터 버리고 반공화국 뼈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행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신문은 대북전단 살포가 반복 ‘인권모략 소동’의 한 고리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국방부 “한미, 북한 핵시설 가동·운영 계속 주시”(11/19, 38노스; 11/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민석 국방위 대변인이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시설 가동이나 운영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외무성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강력 반발하며 전쟁 억제력 강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행위는 정말로 배격돼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20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38노스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운데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을 수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군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풍계리에서도 현재는 특이동향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잠수함미사일 발사관 지상실험 실시”(11/21, 워싱턴프리비컨)

- 워싱턴프리비컨은 미국 정보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보 당국에서 지상에서의 SLBM 사출 모의실험이 지난달 말 실시됐음을 포착했다”고 21일(현지시간) 전함.
- 관리들은 이 실험이 “발사 과정의 초기 단계”라면서도 북한이 “잠수함에서의 핵 공격 능력 확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고 매체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금강산 공동행사 보도…“김정은, 커다란 관심”(11/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금강산 관광 시작 16돌 기념 공동행사가 18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진행됐다”며 북측에서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행사에서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과 황호영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장이 연설했으며, 연설을 통해 “김정은 원수님께서 현대와 금강산 관광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고 있다”며 “북과 남이 힘을 합쳐 금강산 관광길이 하루빨리 다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행사 참가자들이 공동식수를 했으며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금강산지구의 시설물을 돌아봤다고 덧붙임.

● 개성공단에 에볼라 바이러스 검역장비 오늘 설치(11/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경의선 육로 북측 통행검사소 입경동에 거치식 열감지 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북측 인력에 검역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한 다음 돌아올 예정이라고 20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온 검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에 검역장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검역장비는 총 4천500만원(대당 1천500만원)가량으로, 북측에 일정 기간 무상 임대된다고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 ‘이희호 여사 방북’ 실무협의 21일 개성서 개최(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통일부는 이희호 여사 방북 협의와 관련해 이희호 여사 측 관계자의 21일 개성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전함.
- 뉴스는 이에 따라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 등 김대중평화센터측 관계자 7명이 육로로 개성에 들어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방북 시기와 인원, 동선 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이어 뉴스는 김대중평화센터측이 이번 협의에서 북한 영유아를 위한 모자 등 물품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임.

● 통일부, 남북청소년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개성방문 승인(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9일 통일부가 남북청소년교류사업 협의를 위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의 개성 방문을 승인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에 따라 이운식 사무처장 등 민화협 관계자 3명이 20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청소년교류사업과 관련한 일정과 장소, 참가인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함.

● “北, 고령 이 여사 평양방문 환영”...실무협의단 방북(1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방북 관련 실무 협의를 할 김대중평화센터와 ‘사랑의 친구들’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방북길에 올랐다고 보도함.
- 뉴스는 사랑의 친구들 회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이 이날 출경 직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에서도 이희호 여사가 고령이신데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전해왔다”면서 “이 여사님이 평양에서 어린이 보육시설 몇 곳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이어 실무협의단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이정원 사랑의 친구들 사무총장 등 모두 7명으로 개성공단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소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양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시기·경로·지원물품 등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南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 11월 17일 ‘을사조약(1905.11.17)’ 109주년 즈음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 비난 및 ‘△외세 배격(미군 철수)·우리민족끼리 입장견지, △한미 합동훈련 반대·남북 관계개선(빠라살포·인권사동 분쇄) 투쟁’ 선동 <공동호소문> 발표(11.17,중앙통신)
- 통일부 장관(11.4, 주한 공관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 등 우리 당국의 ‘北,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비판에 대해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책임 전가 지속(11.17,평양방송)
- ‘남한 당국이 빠라살포를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북남대화·관계개선은 없다’고 재차(11.15, 北 국방총 정책국 대변인 성명) 강조(11.17,평양방송)
- 韓美 연합 ‘맥스앤더훈련(11.14~22)’ 실시 관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노력에 대한 우롱이고 악랄한 도전이며 정세파국을 부채질하여 새 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화가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것’이라고 왜곡 비난(11.18,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방위사업청이 내년도 예산에 ‘전단탄’(대북전단을 더 정확하게 북한에 보낼 수 있

는 포탄) 개발비로 18억 3,500만원을 편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북남관계를 악화 시키려는 고약한 심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빠라살포가 계속되는 한 북남대화 나 관계개선은 절대로 없다'고 비난(11.19,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당국이 <2014 호국훈련> 을 실시하면서 '국제무대에서는 東北亞의 평화와 협력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온 거래와 국제사회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라고 비난(11.20, 중앙통신)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90.11.20) 관련, 지난기간 '조국통일운동 투쟁' 치하 및 "현시기 반통일 세력의 동족대결 책동을 짓부시고 북남선언들을 고수 이행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주장(11.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대변인 성명(11.21)】 연평도 포격전 4주년 보수단체 규탄행사 관련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당국에 의해 계획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왜곡 및 '최고준엄을 모독 중상한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11.21,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現 남북관계 책임을 우리 당국의 '反北 적대행위(2014 호국 훈련 등, 빠라 살포, 인권문제 제기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 및 '南 당국이 대결소동을 강화한다면 남북 대화와 관계개선의 문은 열릴 수 없다'고 강조(11.23,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UN 인권결의안 배격...전쟁억제력 강화할 것"(1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전하며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번 결의의 강압 통과를 전면 배격"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된 것을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전쟁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전함.
- **북한 국방위 "인권결의 배격... 초강경대응전 진입"(1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23일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해 조작해낸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선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특히 “며칠 전 오바마의 친서까지 들고 찾아온 미국 고위관리들을 아랑 있게 대해주었고 여러 명의 미국 국적의 범죄자에게도 인도적인 관용을 베풀어주었다”며 “그러나 미국은 대조선 인권소동에 광분하는 것으로 응수했으며 그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을 첫 과녁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함.
- 이어 “대조선 인권결의를 두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함.
- 한편 국방위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한 러시아와 중국 등을 지칭, “의롭고 대 바른 여러 나라가 미국 주도하의 대조선 인권소동에 반기를 들고 사태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노동신문 “을사조약은 불법…日是 과거 청산해야”(1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을사조약 109주년을 맞아 게재한 ‘날강도적으로 조작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 글에서 “‘을사5조약’은 명백히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허위날조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1905년 11월 17일)은 불법이라며 일본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라고 촉구함.
- 이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과거 을사5조약 날조범죄를 성근하게(성실하게) 인정하고 과거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신문, 연일 美 역사 거론하며 ‘인권 역공’(1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미국을 겨냥한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의 왕초’라는 제목의 코너에서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흑인 노예해방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863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해방선언을 “북부의 산업 부르주아들이 남부의 노예주들을 물어메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으로 몰아붙이며, 미국을 태생적인 ‘인권유린국가’로 비난함.

● **북한, 미국 ‘비핵구상’ 비난…“핵억제력 정당성 반증”(1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비핵세계 구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북핵 위협’을 구실로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짓 말쟁이의 본색을 드러낸 이 망발은 우리의 핵 억제력의 정당성을 다시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핵무기 전력운용 시스템개선 계획은 미국 정부가 내세워온 비핵화 구상과 모순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을 무장 해제하고 핵무기의 현대화·상용화를 발광적으로 다그치고 있다”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클래퍼 “북한 관리들, 만찬때 인권 개입말라 비판”(11/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했던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관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음을 17일 보도함.

● **북한 “미국이 인권결의안 강압…제한없이 대책 강구”(11/22,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22일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며 모든 대책을 동원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뜻을 밝힘.
- 또 북한인권결의안에 표결에 참여한 국가 중 상당수가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미국과 일본의 ‘위협’ 탓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공정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돈을 걸고 벌어지는 정치적 협잡놀이”이라고 비난함.
- 노동신문도 22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제목 아래 4개의 논평·논설 등을 싣고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거듭 비난했으며, ‘또다시 확증된 우리의 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권결의안 통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고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날조로 일관된 모략문서’라는 제목의 논평은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북침전쟁의 서막’이라며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함.

마. 대중국

● 중국, 北 핵실험 위협에 “정세완화해야”(11/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각국이 정세 완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20일 보도함.

● 중국, 북한 접경서 한국계 미국선교사 정식 체포(11/21, AFP, 연합뉴스)

- AFP 통신은 장페이홍(張培鴻) 변호사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접경에서 기독교 선교활동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기독교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펼치온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74)이 지난 18일 지린(吉林)성 옌벤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에서 횡령과 송장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음을 21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하여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그가 지난 8월께 부인과 함께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탈북자를 교육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중국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외국인들의 활동에 대해 부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고 21일 보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푸틴 대통령, 북한 특사 최룡해 접견”(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8일(현지시간) 크렘린궁을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음을 19일 보도함.
- 뉴스는 18일 면담이 언론 초청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푸틴 대통령과 최 비서의 상세한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 비서가 푸틴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고 최근 들어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함.

● 러시아 외무장관, “푸틴 대통령, 김정은과 정상회담 준비돼 있어”(1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회담한 뒤 단독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최고위급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양측이 합의한 시기에 진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고 21일 보도함.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북한 측은 회담에서 2005년 9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러시아는 이 같은 북한 측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이 중요한 정치 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합의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장관은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러-북 통상경제관계는 이미 진행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달 말로 예정된 하산-나진 구간 철도를 이용한 석탄 시범 운송 행사가 끝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구체적 작업이 시작되길 기대한다”면서 “북한 측도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음을 뉴스는 전함.
- 이어 장관은 최근 유엔 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 ‘비건설적’이라고 비판했으며, “러시아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며 “인권과 자유 문제를 다루는 유엔 기구가 감찰기관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지적함.

● 북-러 군 부총참모장 회동…“군사협력 강화”(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함께 방러 중인 노광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 측과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보도함.
- 통신은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노 부총참모장이 지난 19일 모스크바에서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났다고 “쌍방은 조로(북러)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데 대한 의견들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밝힘.

아. 국제기구

● 북한대표부 “어떤 상황 벌어질지 두고보면 알 것”(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오전 ‘책 임문제와 ICC 회부’ 내용을 빼고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부결시켰다고 19일 보도함.
- 뉴스는 유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기정사실화하자 북한 유엔대표부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전함.
- 이어 뉴스는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북한 김성 참사관이 부결 직후 북한 대표부 앞에서 ‘수정안 부결은 사실상 결의안 원안의 채택을 의미하는데 북측의 대응책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답하지 않다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보면 안다”며 목청을 높였음을 전함.

● 북한 최명남 부국장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는데…”(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 대표들은 국제사회가 대결을 선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19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결의안 통과 이후 발언권을 얻은 최 부국장이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답했으며,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스타브로스 람브리니스 EU 인권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대결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는데…”라며 언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자. 기타국가

● 북한군 2명 사격훈련 시킨 스위스 장교 경징계 처분(11/17, 트리뷴 드 즈네브)

- 트리뷴 드 즈네브 신문은 스위스 군검찰이 17일(현지시간) 지난 5월 제네바 안보 정책 센터(GCSP)의 교육과정에 참가한 북한군 장교 2명에게 사격 훈련을 시킨 스위스군 대령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보도함.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80호(11.22) 우리 정부가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놀음을 벌렸다’며 이는 ‘우리(北) 제도, 인민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선전포고’라며 ‘인권의 미명하에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11.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 정부의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일본과 사전협의 없이 자동개입 한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장본인으로서의 미국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비난(11.22, 중앙통신)
- 미군의 6.25전쟁 당시 북한군 전쟁포로 대상 “인권유린만행(강제역류 등 국제법 전쟁법규를 유린)”을 주장하며 미국의 ‘北 인권문제 제기 및 인권재판관 행세’ 조소(11.23, 평양방송·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또 軍 식품공장 시찰…‘군인복지’ 행보(11/1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의 수행하에 현대화 작업을 마친 북한군 제534부대 산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근에 이 공장을 비롯해 인민군대의 후방기지들을 면 훑날을 내다보며 현대화함으로써 올해가 우리 군인들을 위한 후방 토대의 기초를 튼튼히 다진 해로 됐다”고 강조하면서, “현대화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을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불타는 애국심에 의거해 현대화 사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독려했음을 전함.
-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방문한 제534군부대가 보급을 담당하는 후방총국 부대로, 평양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 5월 이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대화를 지시한 바 있다고 17일 보도함.

● **北 김정은 軍 수산물공장 시찰…김여정 동행(11/19,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겸 후방총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김양건 당 비서, 오일정 당 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박명철,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인민군 제567군부대 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이 사업소의 성과를 치하하며 이는 “패배주의에 빠져 우는소리만 하며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는 사회의 일부 단위들과는 달리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겠다는 각오와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함.
- 노동신문도 19일 세 개 지면에 걸쳐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작업장과 이를 둘러보고 주민들 무리 속에서 이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듯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모습이 담긴 사진 30여 장을 게재하며 ‘인민 친화적’인 최고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여 전함.
-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여동생 김여정이 주요 생산시설 현지지도 수행 명단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음을 19일 보도함.

● **北 김정은, 북쪽 변방 공군부대 시찰…훈련 독려(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정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과 함께 북쪽 변방의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방문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전투기 조종사들의 학습·훈련시설인 ‘비행대대강실’과 ‘비행조종연습종합강실’을 둘러보고 “비행사들을 언제 어느 때 그 어떤 불리한 정황과 조건이 조성돼도 자기 앞에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자면 비행조종연습기재에 의한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이어 이 부대가 ‘정상적인(변동없이 정상적으로 계속되는) 동원 준비’를 잘 갖춘 점을 치하하고 “외진 북변에 위치한 군부대인 것만큼 후방공급사업과 생활조건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김정은, 연합훈련 참관…“군종·병종 간 협동”(11/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연합협동훈련을 참관하고 각급 부대와 지휘관들의 작전지휘능력 향상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 제572대연합부대와 제630대연합부대 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 나가 훈련 계획을 요해(파악)하고 훈련개시 명령을 하달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번 훈련이 “새 연도 전투정치훈련에 진입하는 전군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훈련제일주의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강조함.
 - 김 黨 제1비서는 훈련을 마치고 나서 앞으로 불시에 훈련을 조직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훈련과 같은 연합협동훈련을 자주 진행해 군종, 병종 부대들 사이의 긴밀한 협동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의 불의(불시)성과 신속성, 일치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함.
 - 김 黨 제1비서의 이날 훈련 참관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노동당 부장 등이 수행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은 세습’ 정당화…“창창한 미래 확신”(1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백두산강국의 천년 미래를 열어 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설명하며 “가장 빛나는 업적은 영도의 계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논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과 꼭 같은 또 한 분의 백두의 천출위인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군대와 인민의 최대 영광”이라며 ‘백두혈통’을 내세워 김정은 세습의 ‘정통성’을 부각함.
- 또 논설은 김정은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중화학 공업에 우선 투자하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하며 이는 모든 분야에서 ‘존엄과 영광을 떨칠 수 있는 만년초석’이 됐다고 치켜세움.

- 北,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참석 하에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대학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제막식 진행(11.19,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등 국가책임일꾼들, 11월 19일 인민군 2월20일공장 참관(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의 혁명영도사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펼쳐주었다”고 ‘김정일의 선군정치 업적’ 칭송(11.20,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46호(11.20),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연풍과학자휴양소·평양 육아원 건설자들에게 노력영웅 칭호 등 1441명에게 수여(11.22, 중앙방송)
- 北, “연평도 포사격전투 승리” 4주년 군민연환 모임, 11월 23일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진행 및 ‘자랑스러운 승리, 백두산 총대의 단호한 의지와 불패의 위력 과시(리성국)’라고 주장(11.23,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北 신문 “건축물에서 김정은 시대 발전상 보라” (1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참으로 멋있는 시대’라는 제목의 2면 정론에서 “건축만큼 나라의 발전 면모를 직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다”며 “건축, 이것으로 우리는 조국의 솟구치는 기상과 힘을 말한다”고 강조함.

- 이어 신문은 현재 북한에서 지열난방시스템 등을 갖춘 ‘녹색건축물’이 늘어나고 있고,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선 ‘다용도·다기능화’ 건물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건축물의 성과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 끝에 닿아 굳어진 인민사랑의 결정체”라며 ‘업적’으로 치켜세움.

● **북한, 물고기잡이 독려…“황금해의 새 역사 펼치자”(1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1면에 게재한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수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찬양하고, 수산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의 성과를 독려하면서 바다에서 ‘물고기 대풍’을 만들자며 어획량 증대에 힘쓸 것을 촉구함.
- 신문은 군인과 주민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안기는 것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의지라며 “우리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말로서가 아니라 높은 어로실적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온 나라에 물고기대풍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게 해야 한다”면서 다음 달 17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는 것과 관련해 “장군님께 더 높은 물고기잡이 성과로 충정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수산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하며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거해 고깃배들의 성능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어구들을 현대화하며 선진적인 어로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시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함흥-원산 잇는 7번째 고속도로 건설중”(11/23, 연합뉴스)**

- 북한이 항구도시인 강원도 원산과 공업지대인 함경남도 함흥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함.
- 북한이 외부에 배포한 원산 소재 현동공업개발구 투자 제안서에 따르면 “개발구가 원산항까지 6km, 원산-함흥 고속도로까지 12km 범위 내에 있어 대외적인 인원·물자·자금의 유출입에 매우 유리하다”며 원산-함흥 고속도로를 인근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언급함.
- 또한 흥남공업개발구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현재 건설 중인 원산-함흥 고속도로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중국, 국경교량 연결사업 속속 ‘재점화’(11/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압록강변의 지린성 지안(集安)시와 북한 자강도 만포시를 연결하는 지안-만포 대교의 접속교량·도로 설계 입찰공고를 냈음을 18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방정부들이 내륙에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내세워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 사업 승인을 받아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 美전문가, “제재대상 북한기업, 중·러에서 영업활동”(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미국의 동아시아문제 전문가인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과 캐서린 딜 연구원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조선연하기계가 중국 기업 1곳, 러시아 합작회사 1곳을 통해 영업을 지속했다”며, 사실상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꾸준히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보도함.

● 러시아 건설사 사장 구속 불구, 북한철도 개보수 차질 없어(11/19, 인테르팍스통신)

- 인테르팍스통신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19일 진행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북한 철도 개보수 사업)는 러시아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사인 브리지 그룹(Bridge Group)이 추진하고 있다”며 컨소시엄을 주도한 건설사 ‘모스토빅’ 사장의 체포와 가택연금이 공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9일 보도함.

● 중국 최대 서점 프랜차이즈, 북한 진출한다 (11/20, 중국신문망,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 본사를 둔 중국 최대 규모의 서점 프랜차이즈 기업인 신즈(新知)집단유한공사가 지난달 19일 북한의 국립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과 북한에 신즈집단의 대형 서점 ‘화문서국(華文書局)’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20일 보도를 통해 신즈집단유한공사가 올해 1월 북한 오문무역총회사와 손잡고 쿤밍의 유명한 호수 관광지인 덴츠 부둣가에 북한식당과 미술·공예

품 전시공간을 갖춘 ‘북·중 문화협력교류센터’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화문서국은 도서뿐만 아니라 음반, 영상물, 문구, 스포츠, 야외용품 등을 취급한다고 덧붙임.

● **북한 접경 중국 도시들 ‘경제합작구’ 준비 가속 (11/20, 중국신문사)**

- 중국신문사는 지난 8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동북진흥 지원에 관한 중대 정책 의견’에 “요건을 갖춘 동북지역 접경 현(縣)·시(市)의 변경경제합작구 설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관련 지방정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20일 보도함.
- 매체는 또한 기존에 변경경제합작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기획해온 지린성 지안(集安)시와 허룽(和龍)시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미 지안시 정부는 변경경제합작구 건설사업을 이미 시 중점 프로젝트로 정한 상태이고, 허룽시는 변경경제합작구를 통해 철강, 기계, 전자, 국제보세물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을 전함.

● **북-러 경제 인사회동…“경제협력 강화”(1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함께 방러 중인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장이 러시아 측 원동발전상 알렉산드르 갈루슈카와 면담했으며, 경제·무역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조를 심화 발전시켜 실질적 결과를 더 많이 이룩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 했다고 21일 보도함.

● **러시아 석탄 4만t, 北나진항 거쳐 29일 포항에 도착(1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21일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운송 사업이 내주 실시되며, “우리측 점검단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24~28일 방북해 석탄 하역 및 선적, 선박 입출항, 철도·항만 연결선 등 나진항과 연계된 육·해운 복합 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보도함.
- 뉴스는 우리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관계자 12명과 정부 관계자 1명 등 13명은 먼저 항공기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24일 철도 편으로 북한 나진항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 운송은 서시베리아의 광산에서 생산된 유연탄 4만500t, 400만 달러 어치를 먼저 철도로 북한으로 옮긴 다음 나진항에서 이를 중국 선적 화물선에 실어 포항항으로 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임.

- 평안북도의 가을철국토관리사업 성과(의주군: 다리건설·도로 포장, 신의주: 3만 5,000㎡ 토량처리, 광산군: 20km 제방 보강) 선전(11.17, 중앙통신)
- 국토휘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11월 19일 정영남(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 위 부위원장/개막발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1.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시멘트 생산 성과(작년 대비 135.3%) 선전(11.19,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 금속의 내부에 생긴 균열이나 불순물 등을 판별하는 '휴대용 검사장치' 개발(11.19, 중앙통신)
- 만경대학학생소년궁전, 냉난방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관로 굴착공사 진행(11.21,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응용하여 '전력망 관리지원 정보체계' 개발(11.22, 중앙통신)
- 北, 김정일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발표한 48건의 저작들이 수록된 '김정일 선집' 증보판 제24권 출판(11.22,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파리 유학 北대학생, 北 강제송환 과정에서 탈출해 은신(11/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던 북한 엘리트 대학생이 자신을 강제송환하려던 북한 호송조에 공항으로 끌려가다 극적으로 탈출, 모처에서 은신 중이라고 19일 보도함.
 - 뉴스는 한씨가 최근 북한 당국의 ‘장성택 잔재 청산’ 작업으로 숙청당한 인물의 아들이고, 북한 당국이 외국에서 무리하게 강제송환을 시도한 이유로 보인다며 파리에서 공부하는 북한 유학생을 북한기관 요원들이 사실상 ‘납치’해 강제소환하려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프랑스와 북한 간 외교 마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북한, 재외공관·무역기관 특별사찰(11/21, 산케이신문)**
 - 산케이신문은 북한의 국외 간부와 접촉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재외공관이나 무역기관 등을 특별 사찰하고 있다고 21일 보도함.
 - 신문은 올해 7월 내려진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사관이나 무역기관 등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과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파견돼 전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하며, 통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간부를 감시하는 것은 ‘안전 대표’라고 불리는 각 공관에 배치된 보위부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처럼 조직지도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보위부원의 부정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북한, 사이버범죄 법제화 움직임…“사회적 위험행위”(9/14, 정치법률연구; 11/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입수한 북한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최신호(9월14일 발행)가 ‘컴퓨터망 범죄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이버 범죄를 자세히 다루었다고 보도함.
 - 논문에 따르면 ‘컴퓨터망 범죄’를 “정보기술을 이용해 컴퓨터망 정보체계의 안정성을 파괴하거나 정상운영에 피해를 주는 형벌을 줄 정도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컴퓨터망 범죄의 개념은 공화국 형법에서 독립적으로 구분한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에 속하는 구체적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덧붙이며 현행법에 사이버 범죄가 명시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함.
 - 또한 뉴스는 논문이 “컴퓨터망 범죄의 범죄자로는 반드시 높은 기술을 가진 컴퓨터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감행하는 보통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일정한 단체(법인도)도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음을 전함.

마. 사회 동향

● 北, 고아원 보육교사 각별히 챙겨…평양 견학(11/1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배려’로 전국의 육아원·애육원 보육교사들이 ‘어머니날’(11월 16일)을 맞아 평양견학을 하고 있다며 관련 기사를 보도함.
- 신문은 고아원 보육교사들이 금수산태양궁전, 만경대 김일성 생가, 평양시 육아원·애육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등을 참관하고 국립교향악단 공연을 관람했으며, 평양 견학에 나선 보육교사들에게는 어머니날인 16일 아침 여성회관에서 김 黨 제1비서의 선물전달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하여 “평양을 견학하는 각지 육아원·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 종업원들은 자기들에게 각별한 정을 기울이며 치마저고리감 등을 안겨 준 노동당에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고 17일 보도함.

● 北 ‘DIY 교육프로그램’ 인기…놀이형 교재도 관심(11/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함경남도 함흥학생소년회관 ‘정보기술소조’가 올해 만화영화 주인공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 프로그램을 내놨으며, 함흥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프로그램에는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 등장하는 등 유희 형식이 다양하다”며 “함흥시내 40여개 소학교에서 이용되고 있고 전국 학교들에서도 도입 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신문은 평양 창덕학교에서 기본적인 자료만 입력하면 수업시간표, 성적관리 등 수업과 관계된 각종 자료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편리하게 수업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 측이 소스코드를 공개했다고 전함.

● 이번엔 평양 38층 아파트 붕괴(11/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10월 평양 낙랑구역에서 건설 중이던 38층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인해 일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함.
- 북한의 한 소식통은 “지난 10월 중순, 평양시 락랑구역 일대에 건설 중이던 38층 아파트의 한쪽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18층에서 작업하던 23살 난 여성 돌격대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19일 방송에 밝힘.

- 사고 원인과 관련해 그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휘어져 올라가던 이 아파트는 천정에 설치해놓은 기중기(크레인)가 넘어지면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 부분을 통째로 뚫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모유 수유율 28%...늘었지만 평균 미달(11/22, 미국의소리)**

- 지난해 북한 산모들의 모유 수유율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유니세프는 지난 20일 발표한 ‘2014 세계아동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산모의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이 2012년(18%)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28%를 기록했다고 밝힘.
- 앤드루 브라운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 대변인은 방송에 “북한 산모들에게 출생 직후 1시간 이내 모유 수유를 하고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모유 수유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함.

- 제18차 전국 체육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 11월 17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한 광복(黨 부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1.17, 중앙통신·중앙방송)
- 엄윤철(56kg급)·려은희(女 69kg급) 등 역대 선수들의 ‘2014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善戰(금메달 12개, 국가별 순위 1위) 보도(11.17, 중앙통신)
- 중앙계급교양관에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유해·유물들(최근 발견된 유골 338구·유물 300여점 등)’ 새로 전시(11.17, 중앙통신)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89.11.20) 25주년 즈음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미래중시, 아동중시 정책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다’며 ‘사회주의 제도’ 찬양(11.20, 중앙방송·노동신문)
- 北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 탁구경기(100여개 단체·남녀 선수 1,000여 명 참가), 11월 17일~20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11.20, 중앙통신)
- 홍국현(男 73kg급)·김설미(女 48kg급) 선수, ‘2014년 청도 그랜드상 유도경기대회(11.19~, 중국)’ 금·동메달 획득(11.20, 중앙통신)
- 北 축구팀, ‘2015 동아시아컵’(중국, 2015년 8월 개최) 참가자격 획득 보도(11.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어린이 건강의 날’ 즈음 행사, 11월 21일 김형훈(보건성 부상, 北어린이후원협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옥류아동병원에서 진행(11.21, 중앙통신)
- 北 설경선수(女, 78kg급), 2014년 청도 그랜드상 유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획득(11.21, 중앙통신·중앙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24-11.30

11월

5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南 ‘인권결의’ 가담 및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난(11.24, 26)
-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방한, 남·북·러 협력 논의(11.27)
- 나진-하산 프로젝트…시범수송 석탄 포항 도착(11.29)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유엔 인권결의안 연일 비난(11.24~26, 28~29)
- 北, 한반도 유사 시 주일미군 자동 개입 비난 및 핵위협(11.30)
- 北, 최룡해 방러 성과 강조(11.26)
- 北, 러시아와 해방 70주년 공동행사·대표단 교류(11.25)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미국 ‘인권공세’ 비난(11.25)
- 김정은 黨 제1비서, 신천박물관 방문(11.25)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4·26만화영화촬영소 현지요해(11.26)
- 김정은 黨 제1비서,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비행훈련 참관(11.28)
- 北 최룡해, 방러 마무리(11.24)
-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직급, ‘노동당 부부장’(11.27)

4. 경제

- 北, 전력난에 화력발전소 증설(11.26)
- 北, 러시아 극동 지역 농·축산업 진출 박차(11.26)
- 동해 북일 중간선 부근에 북한어선 급증(11.27)

5. 사회

- 北, 김정은 평양건축종합대 방문 1주년 강조(11.26)
- 北,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11.27)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민화협 “남 ‘인권결의’ 가담…극악한 정치도발”(11/24, 조선중앙통신)

-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인권결의 조작놀음에 적극 가담해 나선 괴뢰패당의 행위를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정치적 도발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범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규탄·단죄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민화협은 이어 “우리는 지금까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며 “그러나 괴뢰패당은 대결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 인간쓰레기(탈북자 지칭)들의 뼈라 살포 망동에 대한 비호·조장으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함.
- 또한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선 남한의 행위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남조선 괴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초래될 파멸적 후과(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국방위 성명에 주민 동원 ‘강경대응’ 분위기(11/24,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4일 ‘인권 모략의 대가는 무자비한 징벌’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 통과를 환영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 괴뢰패당에게 차례질(돌아갈) 것이란 무자비한 징벌의 첩추뿐”이라고 위협함.
- 조선중앙방송도 24일 정철 국가가격위 부원이 “미친놈들이 감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운명의 전부인 최고존엄까지 거론했다는데 이 결의를 조작한 주범들과 그에 가담한 자들을 어찌 이 지구 상에서 숨을 수 있게 놔둘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난…“대가 치를 것”(11/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논평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24일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에 편승한 현 남조선 정권의 반공화국 인권 책동이 역대 최악”이라고 공격함.

- 통신은 이어 남한이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적극 동참했다며 “괴뢰 패당의 인권 소동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합세해 신성한 공화국의 체제와 제도를 압살하려는 동족대결의 최극한점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이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함.
- 또한 “괴뢰 패당이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편승해나서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해 계속 분별없이 미쳐 날뛰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경거망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 방한…남북러 협력 논의(1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27일 방한했다고 전함.
- 갈루슈카 장관은 28일까지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남·북·러 협력사업 등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나진-하산 프로젝트 탄력…시범수송 석탄 포항 도착(11/29, 연합뉴스)

-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러시아산 석탄을 싣고 북한 나진항을 출발한 화물선이 29일 오전 경북 포항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배에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된 시베리아산 유연탄 4만500t이 실려 있으며, 석탄대금과 운송비를 합친 사업 규모는 400만 달러가량이라고 뉴스는 전함.
- 뉴스는 또한 화물선은 일단 해상에 정박하고 있다가 내달 1일 오전 포스코 전용부두인 포항항에 입항해 유연탄을 하역할 예정이며, 하역작업은 3~4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유연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옮겨져 고로에 들어가는 코크스 원료로 사용된다고 전하였고, 포스코 측은 유연탄이 시범적으로 들여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추가공급 여부와 유연탄의 질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고 보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개성 영통사서 남북 합동법회 봉행(11/2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6일 보도를 통해 북한 개성 영통사에서 26일 낙성 9주년 및 대각국사 의천 스님 913주기 열반다례제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열렸다고 전함.
- 연설에서는 “북남 불교도들이 힘을 합쳐 복원해놓은 영통사는 지금 통일 도장으로서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의 골이 깊어가고 6·15 시대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모독하고 짓밟는 용납 못 할 행위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우리민족끼리가 소개함.

- 남북고위급접촉 등 현 남북관계 관련, ‘남조선 당국은 관계개선의 기회를 망쳐놓은 현 사태 앞에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망동을 성근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실로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발언과 처신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11.24,중앙통신·노동신문)
- ‘호국훈련’ 진행 등 관련 ‘대규모 합동상륙훈련은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노골적인 책동’이라며 ‘만일 괴뢰들이 거어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제가 지른 불에 영영 타죽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11.24,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남 당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서로 비방중상을 하지 않을 데 대한 북남합의의 난폭한 위반’이라며 ‘남 당국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이 진정이라면 채택된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습성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11.25,중앙통신·노동신문)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北 핵실험에 대비해 대비태세 강화)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의 침략적 목적을 가리며 북침핵전쟁도발로 확대하려는 괴뢰호전광들의 범죄적 계책’이라고 비난(11.25,중앙통신·노동신문)
- 박제동(北 인민경제대학 교수), 韓美 「전작권」 再연기 합의 관련 ‘보수패당은 미군의 남한 주둔을 반통일 세력의 집권에 유리하게 이용해왔다’고 주장(11.26,중앙통신)
- ‘오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곳은 남조선’이라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등 거론 ‘군졸들을 침략야망실현의 도구로, 대포밥으로 여기고 개 취급하는 軍 상층부와 비호두둔하는 역적패당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반인권적인 폭력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비난(11.30,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은 인권 정치화…위험한 전례”(1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을 통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돌파적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책동에 편승하여 국제무대에서 위험한 전례를 만들려는 불순세력들의 정치협잡행위”라고 주장함.
- 논평은 이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책동이 묵인된다면 정치적 동기로부터 특정한 나라들을 골라 문제시하는 행위가 갈수록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조선신보 “최룡해 방려, 대미 억제 위한 북·러공조”(11/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동북아 질서 재편을 예고한 조(북)러 특사외교’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하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의미심장한 사태진전”이라고 강조함.
- 이어 신문은 최룡해 특사와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에 대해 “조선(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온 미국이 더는 무분별한 대결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조·러 공조체제가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함.
-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친서’에는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조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도에 대한 조선 측의 견해가 반영됐다”고 강조함.

● 북한 “미국과의 결전에서 핵무력 발휘할 것”(1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의 인권 공세는 침략과 간섭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이 유엔 인권결의안을 조작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우리는 침략의 원흉이며 인권유린의 괴수인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 억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라는 데 대해 숨기지 않는다”고 밝힌.

- 또 신문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와 인권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함.

● **북한 매체 ‘김정은 암살’ 영화 비난…“극악한 도발”(11/28, 우리민족끼리)**

-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 ‘인터뷰’ 개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이 영화를 미국의 ‘극악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한 징벌’을 경고함.
-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완전한 현실 왜곡과 괴이한 상상으로 꾸며진 모략영화 상영 높음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한 도발행위이며 정의로운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주도 일본 비난…“징벌 못 면해”(1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논평에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감히 훼손시킨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어리석게 작당한 것으로 하여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위협함.
- 통신은 “일본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 분위기에 편승해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통과시키는 데서 한몫 했다”며 “일본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초강경 성전의 기본대상으로 낙인됐으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어리석은 노릇에 말려들게 됐다”고 지적함.
- 이어 통신은 “지난 세기 초엽부터 우리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천추에 용서 못할 한을 남긴 백년숙적이 바로 일본”이라며 “일본이 저들의 죄악을 반성하기는커녕 상전의 비위를 맞춰가며 우리의 참다운 인권을 걸고드는 그 꼬락서니는 역겨운 구토를 자아낸다”고 비난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반발하며 ‘반미사상 무장’ 독려”(1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최근 유엔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군대와 인민을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적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사설은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인 군사·정치·경제적 봉쇄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반공화국 책동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 강화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신문은 5면 ‘반역패당의 대결야망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등의 논평에서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비난하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 노골적인 ‘비방 중상행위’라고 비난하였고, 6면 ‘조선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등의 논평에서는 주한미군 성범죄를 지적하며 “미국은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함.

● **북한, 한반도 유사 시 주일미군 자동 개입 비난(1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일본에 파국적 운명을 강요하는 상전의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주일미군의 자동개입 입장을 발표한 속내는 ‘북침’과 ‘제2의 조선전쟁’에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이어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침략야망을 버젓이 드러내며 힘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의 입장은 미국의 전쟁도발에는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전면초토화로 대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임.
-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각오하고 있으며 만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비상이 강화될 것이며 머지않아 현실로 증명될 것”이라고 경고함.
- 신문은 ‘악의 화신 미국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글을 통해서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침을 단행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적 책동”이라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인종차별 시위 미국은 인권 유린의 표본국”(1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 확대는 “극심한 인종차별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는 인권불모지로서 미국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산 증거”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 유린의 표본국으로서 제 주제도 모르고 자기의 찌그러진 인권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재보려는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고 강조함.

● **북한 인권연구단체 “유엔 인권결의는 정치협잡품”(1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8일 발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상보’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반공화국 적대행위로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의 진정한 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반공화국 인권결의라는 정치협잡품이 나오게 된 흑막을 발가놓음으로써 그 후과(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고 설명함.
- 특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주도한 EU를 “미국의 삼살개”, “숨이 꺼진 EU의 독자성” 등의 표현으로 폄하하고 유엔을 향해 “미국의 강권과 전횡, 달려 주머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주장함.
- 상보는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온갖 인권모략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이 주인된 세상, 인민의 참다운 인권이 가장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북한 “러시아와 해방 70주년 공동행사·대표단 교류”(1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이 해방 70주년을 맞는 2015년에 러시아와 공동 경축 행사를 진행하고 대표단 교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힘.
- 통신은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경제 무역과 인도주의, 국제무대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전함.
- 특히 “쌍방은 조국해방 70돌과 러시아의 조국전쟁승리 70돌이 되는 다음 해에 공동의 경축 행사들을 성대히 조직하며 대표단 교류를 비롯한 두 나라 사이의 왕래와 협조를 활발히 진행해나갈 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소개함.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인권결의안 비난 대규모 군중대회(1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군민대회에서 연설자들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파렴치한 정치적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 무대를 도용해 벌여놓은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국권을 해치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행사에는 김기남·김평해 노동당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군장병, 공장·기업소·농장·대학의 일꾼, 근로자, 학생들이 참석함.

●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 방북 여전히 검토 중”(11/26,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6일 유럽연합의 마야 코치안치크 대변인이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EU 인권특별대표가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아직 북한이 방북 초청을 공식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적십자, 북한 이산가족 서신교환사업 중단상태(11/2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북한의 가족에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서신을 전달해온 미국 적십자사가 지난해 초부터 서신 교환 사업을 중단했고, 미국 적십자 측이 서신 전달을 중단한 이유가 북한 적십자사와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방송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유럽과 아시아지역 가족재회사업을 담당할 리사 갈리가 “적십자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를 상대로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간단한 인사만 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 규탄대회 지방으로 확산(11/26, 조선중앙통신)

-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난하는 북한의 군중집회가 평양에 이어 지방에서도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26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 광란극을 짓밟개버리기 위한 평안남도, 함경남도 군민대회가 26일에 진행됐다”고 밝힘.
- 군민대회에서는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초강경 대응전’을 선포한 지난 23일의 국방위원회 성명이 낭독됐으며, 군인, 노동자, 학생 대표들이 연설했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군중의 ‘시위 행진’이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함.

자. 기타 국가

● 프랑스, ‘핵 위협’ 북한에 경고…“추가제재 부를 뿐”(11/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보도에서 프랑스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실험 위협을 계속할 경우 유엔의 추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함.
- 필립 베르트 프랑스 정치 자문관은 24일 핵 비확산을 주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 위협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뉴스는 전함.

- 對北인권결의안 유엔 통과에 대해 미국과 서방이 ‘돌파적 진전’으로 평가하는 것 관련 ‘미국을 위시로 한 적대세력들은 국제무대에서 개별적 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전복에 도용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11.24,중앙통신)
- 오바마 美 대통령이 호주의 대학에서 한 연설(11.15, 지금은 역사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때)을 거론하며 “파멸을 앞둔 자들의 공상스러운 비명”이라며 ‘미국은 지금 자기역사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11.25,중앙통신)
- 美 사법부가 특수 장치를 탑재한 비행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에 대해 ‘미국에 의해 개별적 사람들로부터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들까지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특등 인권유린 범죄국, 인권 교살국’이라고 비난 (11.25,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국의 ‘핵무기 전력운용 시스템개선 계획’에 대해 미국의 ‘비핵세계’ 구상은 “핵 군축이 아니라 핵 현대화 계획”이라며 ‘미국의 핵위협에 핵억제력 강화로 대응’ 강조(11.26,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박근광 黨 부부장), 11월 24일 말레이시아 수상과 담화 (11.27,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한반도 유사시 駐日美軍 자동개입’ 입장 발표 관련 ‘침략야망을 빼앗이 드러내며 힘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전쟁도발에는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전면 초토화로 대답하겠다’고 강조(11.30,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박봉주(총리), 바베이도즈 수상에게 자국 독립 48돌 즈음 축전(11.30,중앙통신·중앙방송)
- 駐이디오피아 北韓대사 김혁철, 11월 25일 同國 대통령 작별 방문(11.30,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6·25 미군만행 고발’ 신천박물관 방문(11/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대표적인 반미교양 시설인 황해남도 신천박물관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신천박물관 방문 이유에 대해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천만 군민을 반미 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려고 찾아왔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 黨 제1비서의 박물관 방문에는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 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 黨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박명철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미국 원색 비난…‘인권공세’ 분노 표출(1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를 통해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신천군 일대에서 대규모 양민 학살을 저질렀다며 ‘살인귀’, ‘식인종’,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 등 거친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4·26만화영화촬영소 방문(1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4·26만화영화촬영소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김 黨 제1비서는 “민족제일주의, 집단주의, 계급교양 등에 이바지하고 과학적인 판단과 추리,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며,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덕적 품성을 키워주는 만화영화들을 창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 또한 통신은 이날 김 黨 제1비서의 시찰에는 김기남 당 비서와 리재일 제1부부장,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김의순 부부장이 동행하였다고 밝힘.

- **“김정은, 독립채산제 확대 새 경제대책 지시”(11/27, 도쿄신문)**
 - 도쿄신문은 27일 북한의 김정은 黨 제1비서가 ‘530 조치’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개편대책을 지시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530 조치는 공장, 기업, 농업 부문의 생산·분배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적 향상을 겨냥한 것으로,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공장 등의 현장에 하달돼 실행을 위한 세칙까지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전함.

● **북한 김정은,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 비행훈련 참관(11/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항공 및 반항공군 여성 추격기 비행사(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라며 김 黨 제1비서가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들인 조금향·림설의 이착륙 단독비행훈련 모습을 보고 ‘불사조’라고 치하했다고 전함.
- 김 黨 제1비서의 이날 비행훈련 참관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조경철 군 보위사령관,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노동당 부장이 동행했으며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현지에서 영접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최룡해 방러 마무리…“내년초 정상회담 할 듯”(1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보도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난 17일(러시아 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20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했고, 이어 21일 극동 도시 하바롭스크에 도착한 그는 24일 북한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전함.
- 뉴스는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최룡해, 연해주서 경제협력 논의…방러 마지막(1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보도를 통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특사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방러 마지막 날인 24일(현지시간) 극동 연해주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미클루셰프스키 주지사와 회담했다고 전함.
- 뉴스는 최 비서가 회담에서 “연해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극동개발 전략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러) 협력을 위해서도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양측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음을 전함.

● **북한 ‘빨치산혈통’ 띄우기…최룡해·오일정 역할 주목(11/24, 조선중앙TV; 11/25,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24일 저녁 김일성 주석의 항일빨치산 동료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을 모델로 한 예술영화 ‘백옥’ 1부를 방영함.

-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이 영화의 첫 공개 당시(2009) “영화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했던 항일혁명투사 오진우를 원형으로 하여 혁명의 영도자를 백옥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받아들여모신 전사의 투철하고 진실한 사상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고 25일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공군지휘부에 김일성 부자 동상 설립(11/29,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이 29일 항공절을 맞아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웠다고 조선중앙TV가 밝힘.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29일 제막사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며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단 한대의 적기가 얼씬하지 못하게 강철같은 군기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김일성 부자 동상이 설치된 기관은 인민무력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인민보안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국가과학원, 보위대학 등 이라고 29일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박봉주(내각 총리), 자강도 강계포도술공장·강계목재가공공장·강계연필공장 현지 요해 및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기지 조성 등 협의회 진행 및 생산공정 현대화’ 독려 (11.26,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 정영원 「청년동맹」 부위원장), 11월 26일 러시아 방문차 출발(11.2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의 유훈 관철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밝혀주고 있는 과학적·백과전서적인 지침이며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해 나가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역세게 전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11.30,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방위 성명' 지지 양강도 군민대회, 현지에서 진행(11.30,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노동인구 감소 대비해 노동력 질 제고 추진”(11/27, 미국의소리)

- 북한이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교육 개선을 통해 노동력의 질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방송은 북한 교육위원회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5~2040년 북한의 0~14세 인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보고서는 교육을 개선해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방송은 전함.

다. 경제 상황

● “자연에너지 내세웠던 北, 전력난에 화력발전소 증설”(11/25, 38노스; 11/2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6일 보도를 통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25일(현지시간) 38노스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평양과 가까운 평안남도 강동군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전함.
- 멜빈 연구원은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결과 건설 중인 발전소의 발전 용량이 100~300MW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 화력발전소 중 규모가 가장 큰 북창화력발전소의 발전 용량 1천600MW의 약 20% 정도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 멜빈 연구원은 북한에 북창발전소를 비롯해 주요 화력발전소 8곳이 있고 이들 발전소의 발전용량이 약 2천770MW로 추산되지만, 이들 중 선봉화력발전소와 12월 화력발전소 두 곳은 가동 중단 상태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음을 뉴스는 전함.

● **북한 황해북도 예성강에 ‘청년4호발전소’ 준공(11/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보도를 통해 북한 황해북도에 건설한 ‘예성강청년4호발전소’ 준공식이 27일 열렸다고 전함.
- 통신은 “예성강에 발전소를 건설해 황해북도 지역의 긴장한(부족한) 전력문제를 풀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 관철에서 또 하나의 성과가 이룩됐다”며 “도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됐다”고 보도함.
- 이어 준공식에는 동정호 건설건설재공업상, 박태덕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김정은 ‘물고기잡이’ 독려…북한 수산자원 고갈 우려(7/15,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11/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4년 제3호(7월15일 발행)에 실린 ‘현시기 해양자원 보호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소개하며, 북한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어획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보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말레이 “사고 탄광에 북한인 46명 취업…합법 고용”(1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보도를 통해, 말레이시아 언론이 내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지난 22일 보르네오 섬 사라와크 탄광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 광부 119명 가운데 북한인이 4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보도했다고 전함.
- 뉴스에 따르면 완 주나이다 말레이시아 내무차관은 북한 광부들이 사라와크 주와 북한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현지 탄광에서 일하게 됐다며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진출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설명함.

● **북한 “내륙철도, 북러경협 본보기…물류거점 될 것”(11/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내각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의 김철호 부국장이 “우리는 이번 철도개건사업(내륙철도 현대화사업)을 조로 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의 본보기로

잘 이끌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이어 김 부국장이 북러 합작으로 마무리한 나진-하산 철도와 나진항 3호 부두 현대화사업을 언급하고 “철도개건사업 또한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조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인 것과 함께 전망적으로 제3국으로의 수출물자 중계수송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을 신문은 전함.
- 또한 신문은 김 부국장은 내륙철도 현대화사업 1단계 공사인 재동역(평안남도 은산)~강동역(평양)~남포역(남포)의 175km 구간 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평양역~순천역(평안남도 순천)~고원역(함경남도 고원)의 230km 구간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을 전함.

● **북한, 러시아 극동 지역 농·축산업 진출 박차(11/26, 연합뉴스)**

-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고명희 북한 농업부 부부장이 26일(현지시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아 연해주 정부 농업국 국장 안드레이 브론츠와 농업, 축산 분야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는 26일 보도함.
- 고 부부장은 26일 연해주에서 온실을 이용한 채소 생산과 양돈 등의 사업을 벌이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연해주 정부 측에 임대 가능한 농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번 시찰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에 브론츠 국장은 러시아 및 중국 농업 기업들이 연해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하는 사례들을 거론하며 북한과도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러시아의 대형 농업·식품 기업인 ‘루스아그로’도 연해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동해 북일 중간선 부근에 북한어선 급증”(11/27, 아사히신문)**

- 아사히 신문은 27일 동해의 북일 중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이 올 들어 급증했다고 보도함.
- 일본 수산청과 해상보안청에 의하면, 동해의 북일 중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400척가량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함.

● **중국 연변 여행사, 북한관광 중단에 백두산서 활로 모색(1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외국인 여행객 입국 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관광상품을 주로 판매해온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여행사들이 백두산 관광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함.

- 엔벤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아직 북한 측에서 언제쯤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관광 수요를 흡수하고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대안으로 백두산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뉴스는 엔벤지역 관광업계가 백두산 관광업체인 창바이산(長白山)관광과 손잡고 지난 15일부터 엔벤주 주도 연지(延吉)에서 매일 출발해 당일 도착하는 백두산 관광 직행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으며, 백두산을 관리하는 지방정부도 지린성 주민에게 내년 4월까지 백두산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나섰음을 전함.

-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 해당 나라와 민족의 국력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며 ‘오늘의 천리마기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당과 김일성·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11.24,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전국광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 11월 25일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로 황해북도 은파광산에서 진행(11.25, 중앙통신)
- 평양건축종합대학, 김정은 대학 현지도 및 명예총장 추대 1주년 기념 교육과학 성과전시회 진행(11.25, 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의 나무모 생산성과(올해 연간생산계획 120% 수행) 선전(11.25,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제1차 ‘줄기세포의학과학토론회’ 개최(11.26, 중앙통신)
- 주종선(건설건재공업성 돌세척수복연구 소장), 새로 개발한 녹제거 및 녹방지용칠감의 “이용가치(종래 칠감의 제한성 극복 등)와 경제적 의의(칠감 소비량 절감 및 수명 연장 등)” 소개 선전(11.26, 중앙통신)
- 하나전자합영회사, DVD녹화기와 DVD화면노래반주기 등 각종 전자음향제품들 생산투쟁에 주력(11.27, 중앙방송)
- 北 국가과학원, 금도금지 레이저인쇄기술 개발 선전(11.27, 중앙통신)
- 평양시여단과 물길건설기계화 사업소, 황해남도 물길굴 공사에 주력(11.27,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김정은 평양건축종합대 방문 1주년 ‘띄우기’(1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평양건축종합대학 방문 1주년을 맞아 이 대학을 부각함.
 - 신문은 이 대학이 지난 1년간 위성과학자주택단지를 비롯한 200여 건의 건축설계도면을 완성하고 다양한 첨단실험설비를 연구·제작하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거뒀다며 김 黨 제1비서의 ‘덕분’이라고 주장함.
- **“최근 10년간 북한 재해 및 사고 사망자 1천400여명”(11/27,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10년간 북한에서 자연재해와 사고 등으로 최소 1천400여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벨기에 재난 관련 연구소를 인용해 27일 보도함.
 -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610명이 목숨을 잃었던 2007년 홍수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 중에서

홍수가 가장 많았다고 방송은 전함.

- 재난역학연구소는 북한에서 유독 홍수 피해가 많은 이유가 1990년대 이후 농지 확장을 위해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즉시 나무를 심어야 할 민둥산이 북한 전체 토지의 11%가 넘는다고 설명했음을 방송은 전함.

● **북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11/2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북한이 신청한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를 등재했다고 전하면서 북한이 인류무형유산을 등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함.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 벽화, 황해남도 봉천군 루천리·강령군 금동리에 설치 (11.25,중앙통신)
- 국방위 성명(11.23)지시 「청년전위들과 직맹일꾼들 및 직맹원들의 결의대회」, 11월 27일 청년공원야외극장과 전승혁명사적지에서 진행(11.27,중앙통신·평양방송)
- 전국 과수부문 전시 및 발표회,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11.27,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0차 전국 경락학술토론회, 11월 26일과 27일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주최로 고려의학과학원에서 진행(11.27,중앙통신·중앙방송)

12.01-12.07

12월

1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남한의 국가 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 비난(12.1)
- 北, “북남대화 파국은 남한 책임” 거듭 비난(12.2, 4)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12.6)
- 北 종교단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애기봉 트리 점등계획 비난(12.4)

2. 핵문제 및 외교

- 北,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관계 언급 및 러시아 옹호(12.1)
- 北, 일본·EU·미국 등 인권결의안 관련 국가 거듭 비난(12.2~4)
- 北-美, 다음달 싱가포르서 ‘1.5트랙’ 접촉 모색(12.4)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호위사령부 직속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시찰(12.1)
-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1313부대 시찰(12.5)
-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9일메기공장’ 방문(12.6)
- 北, 조직지도부 산하 ‘7과’ 신설 및 기존 노동당 행정부 권능 이전(12.4)
- 北, 과학중시 사상 역설(12.1)
- 北, 장성택 숙청 1주년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 다짐(12.1)
- 北, 김정일 3주기 맞아 ‘선군정치’ 계승 강조(12.2)

4. 경제

- 北, 흥남공업개발구 소개 및 해외동포·외국인 투자 장려(12.5)
- 北, ‘김일성김정일기금’ 쓰임새 확대(12.7)
- 北, 관광 특화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 개설(12.1)

5. 사회

- 北, 흥남공업개발구 소개 및 해외동포·외국인 투자 장려(12.5)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희세의 파쇼악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보안법은 북과 남의 자유로운 래왕(왕래)과 접촉, 대화는 물론 북에 동조하거나 통신, 서신 거래를 하는 것까지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편의제공죄’ 등으로 범죄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정 66주년을 맞은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반인권·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비난함.
- 또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철폐가 없이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인권도, 북남관계개선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보안법이 더욱 살기를 풍기고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등을 그 예로 들.
- 이어 신문은 1일 ‘정당활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통진당에 대한 괴뢰집권세력의 강제해산책동은 사상 유례(전례)없는 파쇼적 난동”이라고 주장함.

● 북한 “북남대화 파국은 남한 책임”...거듭 비난(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대화 간판 뒤에 숨겨진 비수’라는 글에서 “결과 속이 판판 다른 괴뢰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 망동 때문에 북남 관계는 개선을 맞이했다가도 대결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올해 초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지 제안과 합의, 이어진 2월의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의 노력으로 꼽으면서, “괴뢰들이 뼈라 살포와 북침 합동군사연습으로 ‘맹약’을 저버렸다”고 비난함.
- 이어 지난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두 번째 개선 노력으로 들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인권 소동’과 ‘호국훈련’, ‘맥스썬더훈련’ 등으로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함.
- 또 신문은 ‘초강경 대응의 철폐를 피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도 남한 정부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 ‘반북 인권소동’에 앞장섰다고 “북남관계를 대결야망 실현의 농락물로 삼으면서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추후도 용납할 수 없다” 2일 주장함.

- 이어 신문은 ‘헛된 망상, 어리석은 개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통일 재원 마련 프로젝트 ‘통일 향아리’ 사업에 대해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대결을 통해 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괴뢰 패당의 책동에는 변화가 없다”고 2일 비난함.

● **북한 ‘중북 논란’ 신은미 옹호...“진실 알린 것”(12/6,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6일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미동포 신은미의 공화국 방문소감은 동족 대결의 광풍이 몰아치는 남조선 땅에서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라고 주장함.
- “반공사상을 갖고 있던 신 씨가 북한에 다녀온 뒤 현실을 경험하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며 “진실은 도주자(탈북자)들이 앵무새처럼 외워댄 증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동포·외국인의 꾸밈없는 평가에 있다”고 매체는 전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북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없애(12/6,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으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력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되었다고 6일 전함.

- 이어 매체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됨으로써 앞으로 공업지구에서 노동생산 능력을 더 높이고 공업지구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발전시키며 민족 공동의 번영과 균형적 발전을 더욱 추동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 사실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고 6일 보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김여정 방남 추진’ 주장…통일부 “진위 확인필요”(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내년 3월 서울에서 북측과 음식문화 축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남경연) 회장이 4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보낸 의향서에 김여정이 (참가자 중에 있고, 직책은) 대외사업부 부장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고 4일 보도함.
- 뉴스는 이와 관련하여, 남경연은 지난 10월 북측 낙원총무역회사와 함께 11월에 서울에서 음식문화축제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요건 미비로 반려되었으며, 당시 남경연이 가져온 북측의 의향서에 김여정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가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덧붙였다.

● 북한 종교단체 ‘한기총 애기봉 트리 점등계획’ 비난(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종교단체인 조선종교인협의회가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트리 점등 계획은 신성한 종교를 동족대결에 악용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불상사까지 몰아오는 반민족적·반통일적·반인류적 범죄”라고 주장했다고 4일 보도함.
- 담화는 애기봉 등탑은 박정희 정부 때부터 남북대결을 부추긴 ‘심리모략전의 수단’이었다며 한기총이 “종교인의 신앙심과 민족적 양심마저 버리고 반공화국 모략소동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한기총을 ‘사이비종교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위원회, '2015년은 조국해방 70돌, 민족분열 70년이 되는 해이며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북과 남의 노동자들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내년에 북남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공동선언문 발표(12.1, 중앙통신)
- 새누리당의 '北인권법' 제정 추진 등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제기 등에 대해 "정치사기극, 극악한 동족대결광란" 등으로 연일 비난과 '우리(北)가 벌리는 초강경대응전의 기본대상'이라고 위협(12.2,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CBS방송(11.30)을 인용하여 '남조선에 에이즈감염자가 8,6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12.3, 중앙통신)
- '남조선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北)의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기 위한 범죄적인 대북정책의 가장 뚜렷한 발로'라고 비난하며 '그 어떤 날조와 기만으로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흐려놓을 수 없다'고 주장(1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정윤희 사건' 관련 우리 언론사들의 보도를 인용보도하며 '권력을 개인 향락 추구의 필수적 수단으로 여기는 괴뢰집권세력에서 부정추문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며 그것이 파멸을 재촉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비난(12.4, 중앙통신)
- 남한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국민 과반이상 남한 사회 불안, 세월호 참사 등 불안 요인으로 人災 등) 인용, '남한 사회를 인권동토대, 인권불모지'라며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벌일 한 조각의 체면도 없다"고 주장(12.5, 평양방송)
- 합동참모본부 관할 하에 사이버사령부를 두려는 것에 대해 '근경에 처한 괴뢰패당이 위기탈출을 노리고 생각해 낸 궁여지책'이라고 비난(12.6, 중앙통신)
- 대통령이 통일준비위 3차회의(12.2)에서 한 발언(북한 인권문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에 대해 "망발"이라며 '미제의 반공화국 대결각본에 따른 인권소동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주장(12.7, 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북 인권' 연내 안보리 의제 채택 추진에 대해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도발행위로서 절대로 용납 못할 범죄적 망동'이라고 비난(12.7,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언

- 북한 "소니사 해킹은 우리 지지자의 의로운 소행"(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소니사)해킹 공격은 우리의 반미공조 호소를 받들고 펼쳐나선 지지자·동정자의 의로운 소행이 분명할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은 “소니가 미국땅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지, 무슨 못된 짓을 저질러 봉변을 당했는지는 모른다”며 ‘북한 해킹설’을 부인함.
- 이어 남측이 미국에 동조해 이번 해킹 사건을 근거 없이 북한과 연계시키고 있다며 “미국에 무턱대고 아부하다가는 세계적 판도에서 벌어지는 반미성전의 도가니속에 말려들어 무서운 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러시아 편들기…“제2냉전, 미국 패배할 것”(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격화되는 러미 대결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관계를 짚으며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함.
- 신문은 최근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초계비행 확대 등 군사적 조치를 열거하며 “이러한 대응 조치들은 미국의 반(反)러시아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초기부터 모든 책임을 러시아에 씌워 비방하며 국제적 여론전을 조성했다고 주장함.
- 또 “러미 관계를 냉전으로 몰아간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며 “기나긴 싸움에서 패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는 점 한가지는 명백하다. 오늘의 세계에서 패권주의, 지배주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북한, ‘인권결의’ 주도 일본 “영영 없어질 존재”(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쫓대 없이 놀아대지 말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일 일본 반동들이 쫓대 없이 지금처럼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돌격대로 계속 나서는 경우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면전에서 영영 없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하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일본을 연일 강경한 어조로 비난함.
- 이어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초강경대응전’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은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함.
- 또 일제 시대 미성년의 나이로 ‘소년근로봉사대’에 강제동원됐던 북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소개하며 “미국 못지않게 지난 세기 초엽부터 우리 민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천추에 용서 못할 한을 남긴 백년숙적이 바로 일본”이라고 비난함.

● 북한 “식민통치 만행 일본과 계산할 것 너무 많다”(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제 주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인 권결의안을 ‘조작’한 일본이 과거 진행된 북일 간 회담·교섭에서도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에 적대적인 태도로 응대했다고 지적함.
- 논평은 “우리는 일본의 이성 있는 정치가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조일(북일) 간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려는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지만 일본은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으로 대답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일본의 이같은 태도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먼 나라로 되고 있다”며 일제 식민통치 만행으로 “우리는 일본과 계산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경고함.

● 북한 “참다운 인권 여기 와서 배우라”…인권공세 반격(11/23, 통일신보; 11/27, 12/1, 노동신문; 12/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장 리건과 직원 변영금을 출연시켜 북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소개하며 “김정은 원수님의 인덕정치에 의해 장애자 보호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작년 11월 ‘장애자보호법’ 개정, 장애인 보조기구 무료 ‘이동수리봉사’, 장애인 선수단의 인천 장애인아시아게임 참가, 청각장애인 축구팀의 오는 13일 호주 친선경기 참가 등을 성과로 열거함.
- 통일신보는 11월 23일자 평양육아원의 김정희 원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평양육아원·애육원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며 “참다운 인권이 무엇인지 여기에 와서 보고배우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또한 노동신문은 11월 27일자 기사에서 남한 노인들의 높은 자살률을 거론하며 남한을 ‘인권의 불모지’로 매도했으며, 12월 1일에는 국가보안법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회색의 파쇼악법”으로 비난함.

● 북한, 인권결의 EU 연일 비난…“독자성 어디갔나”(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유럽의 독자성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EU를 ‘미국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미국의 꼭두각시로 놀아난 유럽동맹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고 지적함.
- 신문은 이어 2007년 EU가 독자적인 위성위치시스템(GPS) 개발을 위한 ‘갈릴레오 계획’을 추진하는 등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하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쫓대있는 정책을 실시할 듯이 광고하며 등장한 유럽동맹(EU)의 영상(이미지)과 체면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고 비난함.

- 논설은 아울러 미국이 자국주재 유럽 대사관이나 국가수반들을 상대로 ‘정탐’이나 ‘도청’을 했다고 “유럽동맹은 그 누구의 인권을 논하기에 앞서 자기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감행한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미, 다음달 싱가포르서 ‘1.5트랙’ 접촉 모색”(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미국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1.5 트랙’ 방식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린다고 4일 보도함.
- 뉴스는 북한 측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측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던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 북한, 소니 해킹설 부인…“해킹 금지 국제규범 준수”(12/4,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관계자가 VOA에 북한을 소니 해킹에 결부시키는 것은 북한을 겨냥한 “또 하나의 조작”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최근 미국 영화사 소니를 상대로 벌어진 대규모 해킹에 대한 관련설을 부인하고 나섰다고 4일 보도함.
- 이어 방송은 북한의 관계자가 북한은 이미 해킹과 해적판 등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공약했고 이를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북한 장애인 축구팀 13일 호주서 친선경기(12/3, 조선중앙방송, 자유아시아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장애인 지원단체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의 리건 부장과 변영금 부원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북한 장애인 축구팀이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친선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3일 보도함.
-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청각장애인 축구팀이 호주 측의 초청을 받아 오는 13일 시드니 올림픽경기장에서 호주 청각장애인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한다고 전했으며, 이번 경기는 호주 청각장애인 축구팀이 6개월 전 북측에 초청 의사를 전달한 이후 양측 당국간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고 3일 보도함.

- 헤이글 前 美 국방장관의 ‘국방 혁신 구상’(로봇기술과 무기소형화 등 첨단기술을 군사분야 적극 도입) 발표 관련 ‘군사적 패권을 통해 세계 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야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이 날로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고 비난 (12.1,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2일 라오스 대통령(쭙말리 싸이나쑤)에게 ‘라오스 건국’ 39주년 축전 및 ‘北-라오스 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 강조 (12.2, 중앙 방송·중앙통신)
- 쿠바 「혁명무력절(56.12.2)」 즈음 기념 글을 통해 ‘쿠바 인민의 反美·反帝的 사회주의 수호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 표명(12.2, 중앙방송·노동신문)
-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강석주(黨 비서), 12월 2일 이임 駐北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과 담화(1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駐韓美軍 대상 ‘기지촌 성매매’와 ‘日 성노예 범죄’를 거론 “성노예 범죄국들이며 인권유린 표본국들”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저들의 특급범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역사에 없는 최대의 비화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라고 비난(12.3,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12월 3일 이임 駐北 러시아 대사와 담화(12.3,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11.20, 北 인권결의안 유엔 통과 비난)을 12월 2일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 공식문건 ‘A/69/616, S/2014/849호’로 배포 (1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에서 ‘인종차별 시위(‘퍼거슨市에서 백인경찰의 흑인청년 사살 촉발’) 사태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라며 ‘국제인권재판관 행세’ 조소(12.5,중앙통신·노동신문)
-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는 최악의 사태가 수시로 조성되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방해하는 주범,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장본인’이라고 재차 비난(12.6,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북한 호위사령부 포병부대 시찰…훈련 독려(12/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정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과 함께 윤정린 호위 사령관과 김성덕 육군 상장 등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최고지도자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 직속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직속 포병중대를 시찰하고 실전 분위기의 강도 높은 훈련을 독려했다고 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군인들의 질문과 대답 방식으로 진행된 ‘전문훈련’을 참관하고 “군인들을 무기, 전투기술기재에 완전히 정통하고 백발백중의 사격술을 소유한 명사수, 명포수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훈련을 비롯한 각종 전투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맹렬히 벌여야 한다”며 “군인들이 튼튼한 체력을 갖추도록 기계제조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2일 2면에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윤정린 호위 사령관과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모습을 연출한 기념사진을 게재했으며, 조선중앙TV 2일 방송에서도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활짝 웃는 얼굴로 윤 사령관을 잡아당기듯 팔짱을 낀 모습이 포착됨.

● **북한 김정은 또 동계훈련 부대 시찰…‘싸움준비’ 독려(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 黨 제1비서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최귀현 상장과 함께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1313부대’를 시찰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 黨 제1비서는 이 부대의 권총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올해는 당의 훈련 제일주의 방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해였다면 다음해는 훈련의 질을 높이는 해, 전군이 싸움 준비 완성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는 해, 그 어떤 강적도 단맥(한방)에 때려부술 수 있는 무적필승의 최정예 전투대로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통신은 이어 작전계획을 검토한 자리에서는 지휘관들에게 “싸움 준비에서는 내일이 없다는 자각을 안고 싸움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음을 전함.
- 또,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부대의 오중흡정치대학강실, 훈련관도 둘러보고 “군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부대 산하 ‘조재현영웅중대’를 방문해 군인들의 생활 환경을 살펴봤다고 덧붙임.

● **북한 김정은, 메기양어장 시찰…양어산업 질책(1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을 대동하고 메기 양어장인 ‘5월9일메기공장’을 방문해 양어산업 전반이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질책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5월9일메기공장이 생산공정의 과학화로 한 해 수백의 메기를 생산하는 점을 치하하고 이 공장과는 달리 다른 메기공장들이 아직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당에서 양어를 중시하면 양어에 달라붙고 수산을 중시하면 바다로 나가는 일꾼들의 오분열도식(얼마 못가 흐지부지되는) 사업방법 때문”이라고 질타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이 공장에서도 “노력(노동력)과 생산 면적을 늘리지 않고 다음해부터 100t이상의 메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며 ‘컴퓨터에 의한 종합조종체계’ 구축, 선진 양어기술 수용 등을 강조했다고 덧붙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북한 ‘장성택 근거지’ 노동당 행정부 권능 조직지도부로”(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대북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장성택 처형의 후속작업으로 그가 수장으로 있던 당 행정부를 중앙과 도(특별시 포함), 시·군 당 단위까지 모두 없애고 중앙과 지방 당 조직부에 행정부의 권능을 가진 ‘7과’를 신설했다”고 4일 보도함.
- 뉴스는 소식통이 “기존 중앙 당 행정부와 도 당 행정부, 시·군 당 행정과에 있던 간부와 직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지방의 말단 관료나 노동자로 좌천됐으며 ‘7과’는 전원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설명하며, “북한이 당 행정부의 권능을 담당할 조직의 이름을 굳이 ‘7과’로 지은 것도 장성택을 연상시키는 ‘행정부’라는 말 자체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고 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김정은, 10월 아픈 몸 이끌고 ‘과학중시’ 사상 역설(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과학은 사회주의 기관차’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지난 10월 완공을 앞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지도 당시 김정은 당 제1비서의 발언과 행동을 소개하며, “그이(김정은)의 과학중시 사상은 과학기술이 철두철미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숭고한 애국애민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당시의 김 당 제1비서에 대해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찾으셨던 그날 과학자, 연구사들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서 한 대상을 돌아보시고는 ‘또 봅시다!’라며 다른 대상으로 향하시던 원수님”이라고 찬양하며, 김 당 제1비서를 수행하던 간부들이 “너무 무리하신다”, “날이 저물어간다”며 무리한 시찰을 만류하자 김 당 제1비서가 “그럼 날이 어둡기 전에 과학자들과 사진을 찍고와서 또 돌아봅시다!”라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어 신문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젯더미에서 조국을 이끌고 사회주의 대문으로 날아오른 (1950~1960년대의) 천리마 기수들처럼 이 나라를 강성국가의 대문에 하루빨리 들어서게 하자”고 호소함.

● **북한, 장성택 숙청 1주년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 다짐(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3면에 실린 ‘백두의 칼바람 정신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언제나 백두산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걸어온 승리의 길을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 따라 끝까지 이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며, 오는 8일 장성택 숙청 1주년을 앞두고 ‘배신’과 ‘변절’을 경계하며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신문은 옛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제국주의자들의 ‘개혁’, ‘개편’ 바람에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쫓버리고(내팽개치고)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 신념이 떨떨한 자들도 나타났다”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작년 11월 양강도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방문해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밝힌 점을 상기시킴.
- 이어 신문은 ‘마두산의 구호문헌’이라는 글을 통해 마두산 혁명전적지에서 발견됐다는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김 黨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독려함.
- 또한 신문은 1일 2면에 실린 ‘주체혁명 위업의 새 시대를 펼치신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제목 아래 1970년대 김정일 위원장의 젊은 모습이 담긴 컬러 사진 11장으로 가득 채우고, 1면에는 북한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최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이 세워졌다는 소식과 함께 동상 사진을 크게 실음.
- 이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보낸 3년이 “그리움 속에 흘러온 세 해”라며 최고지도자에 대한 ‘도덕의리’를 강조함.

● **북한, 김정일 3주기 맞아 ‘선군정치’ 계승 강조(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로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12월17일)를 맞아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계승을 강조하며 결집을 촉구함.
- 신문은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있었기에 지난 3년간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연전 쾌승을 이룩했다”며 “모두다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자”고 호소함.
- 또 “원수님(김정은)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고 원수님의 안녕과 권위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며 ‘수령결사옹위’가 선군의 핵심이며, “모든 문제를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입각하여 풀어나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빈곤테기산 물려주는 건 죄악”…산림조성 독려(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지금이야말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 운명과 잇닿은 중대사로 여기고 누구나 한몫을 내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산림 조성 운동을 거듭 독려함.
- 사설은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평양 중앙양묘장 시찰 발언을 언급하며 “산림을 제대로 가꾸지 않고 후대에 빈곤테기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고 지적하고 “나무 한그루라도 더 많이 심고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역설함.
- 사설은 또 산림이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북한 현실에서 “강성국가건설 속도가 빨라질수록 목재와 섬유, 종이 등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재와 원료를 보장하는 귀중한 자원인 산림의 몫이 대단히 커진다”며 최근 지속된 홍수와 심한 가뭄으로 인한 자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산림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어 “빨리 자라고 경제적 이용 가치가 큰 나무들을 계단식으로 많이 심어 하루 빨리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산림 조성 방식도 제시함.

- 北 국방위 성명(11.23)지지 군민대회, 김책시 등을 비롯한 각지 시, 군들에서 진행 (12.1,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향국(女, 함흥시 성천강구역)에게 ‘100살 장수 생일상’ 전달 (12.2,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비전향장기수 ‘리공순’에게 80회 생일상 전달(12.3, 중앙통신)
- 김정일 사망(2011.12.17) 3주기 즈음 ‘사회주의 조선의 강성변명을 위해 한평생 인민행 열차를 타고 초강도의 현지도 강행군을 단행하며 주체100년의 총공세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칭송 및 ‘김정은의 선군혁명 영도따라 최후 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것을 강조(12.6, 중앙통신)
- 김일성父子 현지도표식비·혁명사적표식비 준공식, 성천갑문사업소·농업 과학원 감자연구소·해산신발공장·강계목장에서 진행(12.6,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북한, 홍남공업개발구 소개…“합영 개발 추진”(1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함경남도 함흥시에 보세가공·기계설비제작·화학제품 생산 등을 위주로 하는 홍남공업개발구가 건설된다고 이곳을 “전망이 좋은 공업개발구”라고 치켜세우고, 해외동포·외국인의 투자를 독려함.
 - 통신은 홍남공업개발구의 1차 개발 면적은 2km²이며 북한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와의 합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홍남공업개발구의 장점으로 편리한 교통과 인접한 함흥공업지대 등을 꼽음.
 - 이어 통신은 개발구에 마전해수욕장과 마전호텔도 있어 관광업도 유망한 분야라고 덧붙임.
- **북한, ‘김일성김정일기금’ 쓰임새 확대…“경제 협력”(12/7, 연합뉴스; 12월호 금수강산)**
 - 연합뉴스는 7일 김일성김정일기금 이사회의 김철호 부이사가 산하에 있는 총회사를 통해 북한이 주체사상의 국제적 전파를 위해 조성한 ‘김일성김정일기금’의 일부로 “해외 동포 및 외국인들과의 투자 유치, 경제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금수강산’ 12월호를 인용해 보도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관광 오세요”…북한, 관광 특화 웹사이트 개설(11/29, 통일신보; 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1일 ‘조선의 오늘’(www.dprktoday.com)이라는 이름의 대외용 웹사이트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 웹사이트는 ‘내나라’나 ‘우리민족끼리’ 같은 기존 대외용 웹사이트와 비슷하게 기사와 사진, 영상 등으로 북한의 발전상을 선전하고 있지만 북한 관광에 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1일 보도함.
- 이와 관련, 통일신보는 11월 29일 기사를 통해 ‘조선의 오늘’이 평양 ‘모란봉편집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연합뉴스는 웹사이트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관광지를 사진과 함께 상세히 홍보함은 물론, 항공노선과 철로, 입국 절차, 관광 코스, 숙박시설, 평양친선병원 등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과 조선민조보험총회사의 관광보험 서비스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관광총국을 비롯한 중앙 관광기관과 백두산여행사와 나선여행사 같은 지방 관광기관의 전화와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도 공개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임.

● 나진-하산 본계약 내년 정도 예상…北, 적극 의지(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나진-하산 물류 협력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시베리아산 석탄이 나진항을 거쳐 포항에 도착했으며, 1일 하역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본계약이 러시아측과의 협상을 거쳐 내년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1일 보도함.
- 뉴스는 통일부 관계자가 1일 기자과의 인터뷰에서 “본계약을 금년 안에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내년 정도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협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필요하면 시범 운송도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음을 덧붙임.
- 이어 점점 당시 현장 분위기와 관련,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측 모두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초 예정보다 하루 이른 27일 밤 10시께 출항하게 됐다”며 “특히 북측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관계로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21일간 격리 조치를 적용 중인데 점검단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 의지를 보인 바 있다”고 전함.

● **나진-하산 프로젝트 합작사 경영권, 러시아가 행사할 듯(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3사 컨소시엄이 국영 기업인 러시아철도공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보도함.
- 뉴스는 특수목적법인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인 라손콘트라스(2008년 북한과 러시아가 3대7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북·러 합작기업)의 러시아 측 지분을 인수할 예정이며, 최근 우리 기업 컨소시엄이 49%, 러시아철도공사가 5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남북한과 러시아 3각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합작기업의 경영권을 결국 러시아 측이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어 뉴스는 최근 러시아산 석탄 시범운송으로 결실을 본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사업 주도권을 확보할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고 덧붙임.

- 자강도 중소탄광관리국 탄광들, 석탄 생산성과(생산계획 1.2배 수행) 선전(12.1, 중앙방송)
- 선경건재공장(평양시 통일거리)에서 생산되는 수지관(난방관 등)과 색철판 지붕재료(5월1일경기장 등 시공)의 '내구성·시공편리성 및 주요건축물 시공사례' 등 소개 선전(12.2, 중앙통신)
- 검덕광업연합기업소(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 13수직갱 대보수공사를 4달 동안에 끝내고 운영 시작(12.3, 중앙방송)
- 北, 「조선녹색후원기금」 설립(12.4,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새로운 대형 '수격 펌프' 개발(12.4,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53호(12.2), 문천식료공장에 '3중3대혁명 붉은기' 수여(12.5, 중앙방송)
- 2014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다수확품종 알곡작물들과 비료 등 과학기술자료)·발표회(120여건 과학기술성과자료), 12월 3일~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창립 62주년 기념 과학연구성과전시회(270여건 과학연구 성과자료), 12월 2일~5일까지 현지 진행(12.5,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양·천내지구 등 각지 중소탄광에서 연간 석탄생산계획 112% 초과 완수 및 석탄공업성 중소탄광국에서 150여개 탄광 개발(12.5, 중앙통신)
- 김책수산사업소, 연간 수산물 생산계획 초과(106.2%) 수행(12.7,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김정은, 외국담배 흡연 금지령…“애국심 없다” 질책(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지린성 옌벤(延邊)의 조선족 대북무역 사업가의 소식을 인용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근 간부들에게 ‘외국담배 소비 금지령’을 내리면서 북한의 양담배 수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2일 보도함.
- 뉴스는 이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국내에서 나오는 담배도 좋은데 왜 애국심 없이 외국담배를 피우냐”며 간부들을 질책했다고 덧붙였다.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조선신보에 일반인 리설주 등장…‘동명인 추방’ 거짓? (12/1, 조선신보,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일 조선신보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기처녀’ 5회분 동영상에서 지난 8월 열린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참가한 평양역 직원 김설미씨를 소개하며 그의 직장동료 중 한 명인 ‘리설주’ 씨를 인터뷰 했으며, 화면 하단에 ‘평양역 부원 리설주’라는 자막도 함께 넣어 방송했다고 1일 보도함.
- 뉴스는 “리설주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명이인 여성들이 평양에서 추방됐다”고 주장한 자유북한방송의 지난달 보도와 달리, 조선신보에 일반인 ‘리설주’의 인터뷰 동영상에 게재됨에 따라 자유북한방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마. 사회 동향

● 북한 AFC 집행위원 “메시, 평양에 초대하고 싶어”(1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FC 시상식에서 북한 여성 체육인 한은경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이 유명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를 평양국제축구학교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2일 보도함.
- 뉴스는 한 집행위원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수를 물었더니 모두 ‘메시’라고” 답했으며, 또 “모든 학생들이 카카나 메시처럼 뛰어난 선수가 되고 싶어한다”며 “이들은 메시에 대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모든 경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이어 뉴스는 메시가 초대를 받아들여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둘러본다면 북한이 축구실력 향상을 위해 들이는 노력에 감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 조선신보 “북한에는 에이즈 감염자 없다”(1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지난 1일 ‘세계에이즈의 날’ 행사에 참가한 스테판 파울 조스트 북한 주재 WHO 대표가 축하 연설에서 “조선에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적극적인 에이즈 예방 통제 활동의 결과로 평가했다고 3일 보도함.
- 신보는 황철 중앙위생방역소 과장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이 진행한 각종 에이즈 예방 통제 활동을 소개하고, “WHO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에 단 한명의 에이즈 감염자도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전함.

● “北 대학생 치아 열악…인도적 지원 절실”(1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가 4일 ‘평양과학기술대학(평양과기대)’ 의학부 설립 관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이병무 평양과기대 치과대학 설립 학장이 “(북한) 대학생들의 치아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 북한은 치과 치료가 없어 그냥 (문제 치아를)뽑고 있다”고 전했다며 북한 내 열악한 의료 현실을 4일 보도함.
- 뉴스는 이어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이 현재 검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남북 협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북한, 여자축구 대표선수 라은심 띄우기 눈길(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체육강국 건설의 선구자집단 1번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여자축구 대표팀 주장인 라은심 선수의 성장기와 선수로서의 활약상을 자세히 소개하며 라 선수를 ‘용감무쌍한 무적불패팀의 주장’으로 치켜세움.
- 신문은 라 선수가 함경북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노동자의 연약한 둘째딸로 태어났지만 고열에도 연습을 하다 쓰러지는 등 열의와 노력이 남달랐으며, “나이는 제일 많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높이 세워진 훈련과제 수행으로 팀 전체를 불러일으킨 대오의 기수”라고 평가함.

- 국제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12월 3일 ‘강하국(보건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진행(12.3,중앙통신·중앙방송)
-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개막식, 12월 3일 ‘김영훈(체육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빙상관에서 진행(12.3,중앙통신·중앙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08-12.14

12월

2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및 통일현장 비난(12.12)
- 北, 南 인권 발언 원색 비난(12.11)
- 北, 박근혜정부 통일론에 경고(12.12)
- 北, 南 국민통일방송 비난(12.11)
- 北,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제안(12.12)

2. 핵문제 및 외교

- 北, 미국에 인권역공(12.8)
- 北, 유엔 인권결의안 투표 전 미국 압력 행사 주장(12.9)
- 北, 잔류 일본인·일본인처 면회 제안(12.11)
- 北, 인권 압박 ‘핵 억제력 강화’로 협박(12.12)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아내 역할 강조 연설(12.9)
- 김정은 黨 제1비서, 해군 잠수함부대 ‘조선인민군 제189군부대’ 시찰(12.13)
- 공군사령관 리병철 노동당 요직으로 이동(12.8)
- 北 최룡해, 청년동맹 행사 참석(12.12)

4. 경제

- 北, 올해 식량 부족분 72% 확보(12.12)

5. 사회

- 라오스 북송 청소년 기자회견(12.12)
- 北, 내년 4월 마라톤대회 맞춰 국경 다시 개방(12.12)
- 北, 김정일 3주기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12.10)
- 北,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 34% 감소(12.11)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박 대통령 인권 발언 원색 비난…“입조심하라”(12/11,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근혜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제 체면을 스스로 깎는 부질없는 놈두리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우리가 누차 권고한 바와 같이 화근으로 되고 있는 그 입부터 조심하는 것이 북남관계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북한, 박근혜정부 통일론 “실현될 수 없는 개꿈”(12/12,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서기국 보도에서 “온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니 뭐니 하면서 체제대결 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자멸행위”라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평통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내년에 발표할 통일현장,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 구상을 열거하며 ‘체제통일’ 시도로 규정함.
- 이어 조평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며 “체제 대결의 불순한 놀음과 허황한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속할 것”(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12월 17일)를 맞아 발표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 원수님(김정은)의 사상이고 결심”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보고서는 “박근혜 정권이 떠드는 통일은 도이칠란드(독일) 방식을 본 딴 흡수통일로서 본질에 있어서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대결론”이라며 정부의 통일론을 비난함.

-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통일현장과 관련, “지금 북남관계가 전진하지 못하고 통일운동이 곡절을 겪고 있는 것은 통일현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조선 당국에 애초에 북남관계 문제나 통일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결단을 내릴 용단도 주권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한 인권법 제정 또 비난…“남북관계 파국”(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인권의 간판을 단 대결악법조작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고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기 위한 인권모략”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해와 악의에 찬 비방, 범죄적인 뼈라 살포를 범화함으로써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심화하고 종당에는 전쟁밖에 몰아올 것이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비난함.
- 이어 신문은 “괴뢰 패당의 동족대결죄악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계산될 것이며 매국반역의 무리들에게는 준엄한 징벌의 철추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국민통일방송은 심리모략전…남북관계 악영향”(12/11,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논평에서 “괴뢰패당의 통일방송 조작 놀음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발이며 북남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함.
- 통신은 국민통일방송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편승한 심리모략전의 일환”이라며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모략 자료들을 우리에게 들이밀어 그 누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모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또 북한의 TV와 라디오 방송을 관장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이날 남한의 또다른 대북 매체인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방송’이 조선중앙TV 영상을 ‘왜곡 중계’하고 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11일 보도함.

● 조선신보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하면 좋을 것”(12/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분산 개최를 승인한 것을 거론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한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함.

- 신보는 12일 ‘올림픽 공동주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적용되는 IOC의 결정이 올림픽 개최의 재정적 부담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이 기회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설비가 세계적인 수준인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시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 동계훈련 최고수준…AN-2기 공수훈련 20여배 증가(12/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일 보도를 통해 군의 한 소식통이 “11월 초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국지도발 위협을 치밀하게 감시 추적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11월 중순부터 AN-2기를 이용한 특수부대 공수강하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훈련 빈도는 예년보다 20여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뉴스는 소식통이 “포병 실사격훈련도 대폭 증가했으며 전체 전방군단의 도하공격 훈련도 이례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여단급 기계화부대의 전방지역 돌파 시범식 훈련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관광 2개월내 재개 준비” 현대아산 점검단 방북(1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9일 보도를 통해 금강산·개성관광 독점 사업권자인 현대아산 실무진이 9일 겨울철 시설점검을 위해 금강산으로 향했으며, 오전 강원도 고성 동해선 남북 출입사무소로 방북, 2박3일 간 현지 점검을 마친 뒤 11일 귀환할 예정이라고 전함.
- 뉴스는 현대아산 관계자가 “올해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현지 시설을 운영한 뒤 줄곧 비워뒀는데 보일러의 물빼기 작업을 포함해 월동 시설 점검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현대아산 사장 방북신청...김정일 3주기 추모화환 전달(12/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보도를 통해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 등 임직원 8명이 방북 신청을 해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현대아산이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조 사장 일행이 16일 개성을 방문해 현대 개성사업소에서 북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 추모화환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함.
- 현대아산은 “선대회장들부터 현정은 회장까지 이어온 인연과 예로부터 3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를 고려해 추모화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음을 뉴스는 전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유엔 北韓인권결의안·北인권법·국민통일방송 등을 거론 ‘괴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인권 심리모략책동이 절절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하며 ‘공화국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이 된 불패의 강국’이라고 강조 (12.9,중앙통신·노동신문)
-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사건’ 관련 ‘집권자와 인연을 맺고 있는 몇 명의 권력자들이 남조선 정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는 사실은 썩을 대로 썩은 청와대의 진면모를 그 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12.9,중앙통신)
-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조국통일3대헌장을 ‘완벽하고 공명정대한 통일대강,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헌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독일식 흡수통일로서 반평화적·반통일적 대결론’이라고 비난(12.12,중앙통신)
- 남한에서 “인권유린 만행들이 계속 감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제기’는 “신성한 인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12.14,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CIA 고문’ 비난…“안보리는 미국부터 처벌해야”(1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 인권문제를 논의하려면 몇몇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우리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신작칙(以身作則, 솔선수범)의 견지에서 상임이사국인 미국에서 자체 폭로된 세기적인 특대형 인권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있는 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물고문을 비롯한 CIA 고문 실태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중세기적 고문행위들이 미국 대통령의 승인과 비호 밑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됐으니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 불모지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서방 인권 공세 속에 ‘영화’의 역할 강조(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영화 혁명의 길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고귀한 지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혁명 과정에서 근로자 교양의 수단으로 영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특히 신문은 친미 교육을 받은 주인공이 한국전쟁을 겪으며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내용의 영화 ‘최학신의 일가’를 치켜세우며 미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임.
 - 신문은 먼저 “오늘날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은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함께 대조선 인권 광란극까지 조작하면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어찌 보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미국은 인권말살제국”…미국에 인권역공(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살인행위가 정당화되는 암흑사회’라는 논설에서 미국 미주리주의 퍼거슨 시가 흑인 청년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백인 경찰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을 ‘인권말살제국’이라고 비난함.
 - 논설은 “내외 여론은 미국의 극악한 인종차별정책과 인권유린행위에 저주와 규탄을 보내고 있다”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러시아 외무성, 이란 외무성 등의 비판 여론을 자세히 소개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투표 전 미국 압력 행사”(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인권결의안 표결이 박두했을 때 일부 나라 대표가 우리를 찾아왔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미국이 자국의 내부 문제를 국제화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대표들은 ‘조선 문제가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경제 원조에 목매인 정부의 지시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했다”고 강조함.
- 신문은 그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유엔의 ‘간판’을 이용했다면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역설함.

● 북한 “인권 압박 ‘핵 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겠다”(12/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의 범죄적 진상’이란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조작’해 사회주의를 붕괴하려 한다며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가 그 꿈이 개꿈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
- 논평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거짓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는 ‘북한 무력 침공’에 대해 합법적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압살전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이어 논평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의 이름을 빌려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있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범죄자들을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으로 단호히 쓸어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

● 북한 “미국 ‘북한위협론’은 중국 견제 위한 술책”(12/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주변대국을 제압하려는 파렴치한 기만술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내정자의 ‘북한 위협’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주변대국을 제압하기 위한 한갓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힘.
- 논평은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저들에게 도전하는 잠재적 적수들, 짝어 말한다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견제하고 압박하는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한, 잔류 일본인·일본인 처 면회 제안…일본 거절”(12/11, 교도통신)
 - 북한이 전후 북한에 남은 ‘잔류 일본인’과 재일 조선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인 배우자(‘북송 일본인 처’<妻>)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와 관련해 올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협의 때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 정부 대표단에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 면회를 제안했다고 복수의 북일 관계 소식통이 밝힘.
 - 북한은 잔류 일본인과 일본인 처 가운데 평양에 거주하는 등 주소가 확인된 10여 명을 북일 협의 시작일인 10월 28일 별도의 장소에 대기시키고서 일본 측에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대표단은 “납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싶다”며 거절했다고 통신은 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풍계리, 핵실험 임박 징후 없어”(12/10, 38노스)
 - 38노스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는 특이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美 퍼거슨市 사태(인종차별 시위) 관련 러시아 외무성 등 비판을 전하며 “인권유린 왕초인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인권재판관, 인권문제에 대해 시비질하는 것은 가스로운 행위”라고 조소(12.8,평양방송)
- 北 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2.9), 미국이 北인권문제를 UN 안보리 상정을 추진하는 것 관련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안보이사회에 끌고 가는 것은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내자는데 속심이 있다고 비난(12.9,중앙통신)
- 김영남, 12월 9일 작별 방문한 駐北 러시아 대사와 담화(12.9,중앙통신·평양방송)
- 駐北 쿠바대사, 12월 9일 自國 ‘혁명무력절’ 58돌 즈음 오금철(軍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초대한 가운데 연회 마련(12.9,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이 ‘北 위협’ 이유로 남한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저들의 도발적 정체를 덮기 위한 술책’이며 ‘남조선에 미사일 방위체계를 구축하여 핵전쟁의 불집을 터트리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타령’이라고 비난(12.10,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노동당 중앙총, 12월 10일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중앙총 앞으로 ‘총선 승리 및 대통령 被選’ 축전 발송(12.11,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2월 11일 駐北 체코 대사(밀란 흘페이) 신임장 접수(12.11,중앙통신·중앙방송)
- 라오스 주석, 12월 4일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라오스 창건’ 39돌 즈음 보내준 축전에 대해 답전(12.12,중앙방송)
- 일본의 美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위안부 강제연행’ 부분 수정 요구에 대해 ‘역사를 우롱하고 역사에 도전하는 뻔뻔스러운 추태’라며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의 역사왜곡 행위를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고 비난(12.13,중앙통신·노동신문)
- 불법 입북(중국 단둥→압록강건너 입북) 미국인(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 29세), 12월 14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입북 경위,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영향과 지배 강요·인권유린 등 맹비난 및 북한 식 사회주의’ 찬양(12.14,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 시찰 …“공군사령관” 교체 (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수행자 중 리병철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으로 호명함.
- 통신은 리병철 대장 대신 김정은 黨 제1비서를 현지에서 영접한 신임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은 최영호 항공군 중장이라고 밝힘.

● 김정은, 모범군인가족 앞에서 연설…아내 역할 강조(1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모범군인가족대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김 黨 제1비서가 이번 대회를 직접 맡기하고 ‘군인가족들은 총 잡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가 되자’라는 제목의 서한을 대회 앞으로 보냈다고 전함.
- 통신은 공연 관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이 배석했다고 보도함.

● 북한 김정은, 잠수함부대 시찰…“내년 해군력 강화”(12/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해군 잠수함부대인 ‘조선인민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13일 김 黨 제1비서의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이 동행했으며 해군사령관인 김명식 상장, 대연함부대 정치위원 박태수 해군소장 등이 이들을 맞이함.
- 김 黨 제1비서는 잠수함들의 실동훈련을 참관하고 당 70주년인 내년을 “해군무력 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라며 전투훈련의 혁신을 강조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최룡해 방러 이후 첫 공개활동…청년동맹 행사 참석(12/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12월 17일)를 맞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이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모임이 열렸다고 최룡해 비서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도 12일 최룡해 비서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7~24일 김 黨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함.
- 청년동맹은 만 14~30세의 모든 청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북한 최대의 사회단체로, 노동당, 인민군과 함께 체제 유지를 위한 '3대 보루'로 꼽힌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내년 국가기념일, 올해와 변동 없어(12/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보도를 통해 북한 '평양출판사' 발간 '주체 104(2015)년' 달력의 매월 표기된 국가기념일과 관련 설명이 올해 달력과 일치했다고 전함.
- 뉴스는 내년에 집권 4년차를 맞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생일인 1월 8일이 올해 달력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평일인 검은색으로 표기됐고 그의 생일에 대한 다른 표기나 설명은 없었다고 전함.
- 또 뉴스는 달력의 표지에 2011년 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2012년 초 수정 발간된 달력부터 실리기 시작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4년 연속으로 등장했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장성택 처형' 침묵…“로켓발사 성공한 날”(12/1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2일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 간부와 인터뷰에서 “오늘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날로부터 2년이 되

는 날”이라며 이를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성과로 부각시킴.

- 방송은 2년 전 광명성 발사가 김정은의 ‘지도’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명성 발사 성공을 ‘김정일 애국주의가 안아온 민족사적인 대승리’, ‘우주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한 역사적 포성’이라고 치켜세움.

● **북한, ‘3년 탈상’ 이후 김정은시대 본격 개막 예고(12/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3면에 실린 ‘우리는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보낸 시간이 ‘성스러운 3년’이자 ‘불덩이처럼 뜨겁게 흐른 3년’이었다고 회고함.
- 신문은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대형 건설사업을 열거하며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토대 위에서) 눈부시게 도약할 수 있는 정치사상적, 물질문화적 재부를 풍만하게 마련한 역사의 3년이었다”고 평가함.
- 또 “새로운 출전 북을 짙게 울리며 용기백배 나아가는 강대한 철의 대오 앞에 ‘그이’이시자 곧 위대한 승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거연히 서 계신다”며 신문은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예고함.

- 김일성 저작(‘64.12.8,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 발표 50주년 기념보고회, 12월 8일 평양대극장에서 김기남(黨 비서)·량홍주(문화성 黨 책임비서) 및 영화예술부문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2.8,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을 ‘주체혁명의 연대기마다 주체의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끈 탁월한 정치가, 위인중의 위인’이라며 ‘김정일 생전 강성국가건설 노고(‘09년 200여개 현지도 등) 찬양(12.8,중앙통신)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단(단장: 정영원 청년동맹 부위원장), 12월 9일 러시아 일정 마치고 귀환(12.9,중앙통신·평양방송)
- 김정일 사망(12.17) 3주기를 앞두고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은 우리(北) 군대와 인민의 마땅한 본분이고 혁명적 도리’라며 ‘모든 일꾼들은 장군님의 영전에서 다진 맹세를 심장깊이 새기고 조국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강조(12.10,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 총리), 은률광산·재령광산 현지요해(12.10,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친선대표단(단장 : 서호원 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12.11 베트남 방문 후 귀환(12.11,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사망(12.17) 3주기 즈음 인민내무군 청년전위들의 웅변·맹세모임, 12월 14일 어은혁명사적지에서 강필훈(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및 인민보안부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2.14,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계획경제’와 거리두기…“국가가 다 지도 못해”(10/30, 경제연구; 12/14, 연합뉴스)

- 북한은 경제학술계간지 ‘경제연구’ 4호(10월 30일 발행)에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최대한로 발양시키는 것은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함.
- 이 논문은 “각 기업소의 경영 효율을 높이려면 중앙집권적 지도를 일면적으로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기업소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지도할 수는 없다”며 “생산자 대중이 생산·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기업관리를 창발적(창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함.
- 다만 논문은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강화한다면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무시하고 기업의 자유를 주장하는 편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계획경제 체제의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중국에서 태블릿 수입량 급증세”(12/12, NK뉴스)

- NK뉴스는 12일 중국 세관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2월에는 전혀 없었던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태블릿PC 수입량이 지난 10월 한달간 4천대를 넘었다”고 전함.
- 이어 뉴스는 북한 내 노트북 사용량도 증가했다고 소개하며, 북한의 노트북 수입은 2009년 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 수입량은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함.
-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는 “평양의 가게에서 랩톱과 태블릿PC를 팔고 수리하고 있다. 이런 기기의 사용은 북한 중산층에게 보편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올해 식량 부족분 72% 확보”(12/12, 미국의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72%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FAO가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11월 부터 올해 10월까지 외부의 지원과 수입을 통해 확보한 곡물은 24만4천700t이며, 이는 부족분 34만100t의 약 72% 수준이며, 식량 확보방식은 수입이 21만8천t, 외부 지원이 2만6천100t이라고 방송은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스위스산 ‘명품시계’ 올해 수입량 ‘0’”(12/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올해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스위스시계산업연합이 12일 공개한 시계 수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한은 스위스산 시계 수입량은 없다고 전함.

- 평양철도대학의 ‘토벽식온실’ 등 “각지에 무난방박막온실에 의한 버섯재배 장려” 및 평안남북도 등 성과 선전(12.8,중앙통신)
- 가구제품·일용품 도안 전시회 폐막식, 12월 9일 김용진(내각부총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에서 진행(12.9,중앙통신·중앙방송)
- 고려의학과학원 고려약연구소, 협심증 치료에 좋은 ‘단삼은행주사약’을 개발했다고 선전(12.9,중앙통신)
- 흥건도간석지 건설장, 12월 10일 ‘50만산 대발파’ 진행(12.10,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새로운 수질정화제 ‘선경’ 개발(12.10,중앙통신)
- 정동길(국가우주개발국 부부장), ‘우주과학기술토론회(12.10, 김일성종합대학)’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주과학기술발전 사업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부연(12.11,중앙통신)
- 강계시에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 “인공원(연 건축면적 4,400여㎡) 건립 및 수영장 등 편의봉사시설 소개 선전(12.11,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종이공학연구소, 여러 가지 종이제품들(필기종이·위생종이·판종이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다기능초지기” 개발(12.11,중앙통신)
- 금야군 금야강2호발전소, 건설 마감단계에서 발전설비 조립 준비에 주력(12.12,중앙방송)
- 北, ‘각지에서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연구와 탐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자연에너지 개발 보도(12.13,중앙통신)
- 평양식료연합기업소, 연간 인민경제계획 초과(118%) 수행(12.13,중앙방송)
- 자강도 강계목장 등 축산기지들, 연간계획 완수(12.13,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 ‘처형설’ 탈북 청소년 9명 “행복하게 생활”(12/9, 우리민족끼리TV)**
 - 우리민족끼리TV는 9일 ‘납조선 괴뢰들에게 유인납치됐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9명 청소년들의 그 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문철, 정광영, 류광혁, 박광혁은 영웅해산시제1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백영원은 함흥사범대학 예능학부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키우고 있다”고 반박함.
- **“북한, 내년 4월 마라톤대회 맞춰 국경 다시 개방”(12/12, 미국의소리)**
 - 북한이 내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4월 15일)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고려여행사는 11일 북한 체육성 당국자가 내년 4월 12일 열리는 평양마라톤대회에 외국인 관광객의 참가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고려항공도 내년 4월 9일 상하이에서 평양으로 가는 특별여행기를 운항할 예정”이라며 “이는 북한이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 조치를 대회 이전에 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음을 방송은 전함.
- **북한, 라오스 북송 청소년 기자회견…처형설 반박(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이들 청소년 9명이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북한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매체,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도함.

-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남한과 미국의 ‘인권모략가들’이 최근 이들 청소년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했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 나발이 얼마나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다”고 밝힘.

● **미국인 또 불법입북…평양서 미국 비난 기자회견(12/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에 체류하고 있는 미국 공민 아르투로 피에르 마르티네스가 14일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했다”며 그의 발언 전문을 공개함.
- 마르티네스 씨는 자신을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나서 자란 미국 시민이며 현재 29살”이라고 소개하고 북한에 도움이 될 ‘가치있는 자료’를 전달하고자 중국 단둥(丹東)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북했다고 밝힘.
- 그는 기자들과 문답에서 “아주 훌륭한 호텔에서 체류하고 있다”며 “체류 일정이 끝나면 베네수엘라에 정치적 피난처를 요구할 결심”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김정일 3주기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1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모든 주민은 김정일 시대의 ‘애국주의’를 이어받아 국가 발전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함.
- 사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휴양소 등 최근 완공된 시설을 김정은 체제가 이룩한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치켜세우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국주의’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주장함.

● **“10월 북한국방위 신축청사 붕괴로 80명 숨진듯”(12/9, 도쿄신문, 연합뉴스)**

- 도쿄신문은 지난 10월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신축 청사 공사현장(평양)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9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군 당국이 외국 위성에 사고 현장이 포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을 차단한 채 이들에 걸쳐 잔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함.

- 연합뉴스는 9일 보도를 통해 도쿄신문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지난해 말라리아 환자 34% 감소”(12/11, 미국의소리)**

- 지난해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보다 34%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방송을 통해 리처드 시벌스키스 WHO 연구관은 “북한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11년부터 3년간 감염 위기 주민 60% 이상에 모기장과 말라리아 예방약을 지원했다”고 설명함.
- 시벌스키스 연구관은 “말라리아 퇴치 단계에 이르려면 모든 환자는 물론 감염 경로 관리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에서는 감염자와 주변 사람에 대한 관리가 100%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우려함.

● **북한 체조요정 산파 김춘필 감독…“선수 선발의 명수”(12/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북한)의 체조 종목 부문에서 특기선수 선발의 명수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라며 북한 여자체조 감독인 김춘필(53)을 소개함.
- 신보는 김 감독이 김광숙과 홍은정을 세계적인 선수로 양성한 비결은 북한 선수의 신체적 특징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한 데 있다고 전함.
- 이어 신보는 김춘필 감독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는 것보다 그것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표어로 삼아 오늘도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땀을 흘리고 있다고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 새로 개설…학보도 수록(12/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12일 대학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공개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www.ryongnamsan.edu.kp)에는 대학 역사와 연혁, 교육 과정, 과학 연구 성과, 출판 자료, 대외교류 자료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함.
- 특히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최근 학보가 수록돼 있어 북한의 전반적인 연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전집’ 제9권 출판(12.10, 중앙통신)
 - ‘김정일 업적 연구 체득’ 중앙연구토론회, 12월 1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기남(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및 중앙과 평양시내 黨 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12.11, 중앙방송·중앙통신)

- 로철수(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유적유물들에 대한 학술고증 및 보존복원방안 작성 추진과 민족유산보호사업 과학화와 자료기지구축사업’ 등 “민족문화보호사업 활발히 전개” 강조(12.11, 중앙통신)
-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식, 12월 12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12.12, 중앙통신·중앙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15-12.21

12월

3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김대중 평화센터 및 현대아산측의 개성공단 방문 요청(12.19)
- 北,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남한의 '정책 전환' 필요성 주장(12.20)
- 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주권사항 관련 南 항의통지문 거부(12.16)
- 北, '남조선인권유린 보고서' 발표 등 남한 인권상황 지속 비난(12.18, 20)
- 北, '애기봉 트리' 거둬 비난...“점등은 선전포고”(12.21)

2. 핵문제 및 외교

- 北, 미국, 영국, 일본 등 북한 인권 압력 관련 국가 지속 비난(12.15~17)
- 北, 안보리에 'CIA 고문' 안건 상정 거둬 주장(12.16)
- 북한유엔대표부, “소니해킹과 북한은 전혀 무관” 주장(12.19)
- 중국지도부, 북한에 “전통·우의 매우 중시” 메시지(12.18)
- 北, 러시아와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협정 추진(12.15)
-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黨 제1비서 초청(12.20)
- 北, 안보리 회의 불참 의사 전달(12.19)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방문(12.16)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방문(12.20)
-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두 계급 강등 확인(12.18)
- 北, 김정일 위원장 3주기 중앙추모대회 거행(12.17)
- 北, '김정은 시대' 도래 강조 및 경제건설 촉구(12.19)

4. 경제

- 北, 1인당 국민총소득 138만원, 남한의 21분의 1(12.16)

5. 사회

- 김정은 黨 제1비서, 올 4월 외국문화 송두리째 제거 지시(12.20)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한, CIA 고문에 침묵…인권 비판 자격없어”(12/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조평통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CIA의 고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빗발치지만 남한 정부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 고문에 대해 침묵하고 국내적으로도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 통신은 또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이른바 ‘중북 콘서트’를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듯 “괴뢰집권자가 우리 제도에 대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괴뢰당국이 파쇼악법을 휘둘러 마구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北, DJ측·현대아산 23일 또는 24일 개성방문 요청(12/1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를 인용하여,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이희호 여사 및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데 대해 김양건 비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며,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측에 23일이나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해줄 것을 19일 요청했다고 보도함.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이 판문점 채널을 통해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으며, “북측이 초청 대상을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올해 남북관계 경색은 남측 탓…대북정책 바꿔야”(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공보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바라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의지가 있다면 그릇된 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남한의 ‘대결정책’ 탓이라며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조평통이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통일헌법 제정 준비 등 올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통일정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지금 괴뢰패당의 대북정책은 북의 변화와 붕괴에 기본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허황한 몽상’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어 “제반 사실은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북한, 통진당 해산결정 비난…“인권비판 자격 없어”(12/20,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서기국 보도에서 현재의 결정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은 전대미문의 극악한 대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남조선은 악명 떨친 유신독재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은 “더욱이 격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탄압한 괴뢰보수패당의 치졸하고 비열한 망동”이라며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극악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경고함.

- **북한, ‘애기봉 트리’ 거둬 비난…“점등은 선전포고”(1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21일 ‘보도’에서 “박근혜 패당의 동족대결 야망의 산물인 ‘애기봉 점등식’은 우리 군인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직접적인 선전포고”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사령부는 남측이 최근 애기봉 트리 행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애기봉 점등식은 종교행사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자극하려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또한 사령부가 지난 10월 탈북자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포격을 가한 사건을 언급하며 “남측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미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매체, 김무성 ‘북핵 공갈’ 발언 원색 비난(12/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미국 스탠퍼드대 MBA(경영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억제력을 폄하했다며 “우리 핵보유의 정당성과 거대한 의의를 깎아내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박지원 “北 대화재개에 강한 의지…빠라 걸림돌 거론”(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1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러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들과 북한으로 출경했다가 돌아온 박지원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였지만 대북 빠라 살포 중단 등의 조치가 있어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北 “개성공단 규정개정 주권사항”…南항의통지문 거부(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15일 오후와 16일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대북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통지문 접수를 거부했다고 16일 보도함.
- 이에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측이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고 뉴스는 덧붙임.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박지원 의원 방북 논평없이 보도(12/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일 동지 서거 3월에 즈음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화환들을 보내왔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맞아 방북한 박지원 의원과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화환들을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보낸 조의문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전달됐으며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사의의 말씀’을 원동연 부위원장이 남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소개하지 않음.

● **민주평통 ‘北인권결의안’ 반대 18개국에 인권 서한(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16일(현지시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중국, 쿠바 등 18개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17일 보도함.

● **탈북자들 운영 자유북한방송 해킹 공격 받아(12/19, 자유북한방송)**

-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17일 새벽 이 방송 웹사이트에 2012년 8월 이후 게재된 기사들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북한의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글 등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19일 보도함.
- 매체는 새로 게재된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도 포함되어 있으며, “서버 관리업체가 확인한 결과 해킹이 중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 **북한 ‘남조선인권유린 보고서’ 발표…인권문제 역공(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이하 협회)가 20일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유린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남조선인권유린조사 통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범죄, 청년 및 노인의 실업·자살, 군 폭행, 세월호참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등 올 한해 남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이를 모두 남한의 ‘인권유린’사례로 비난하고 있다고 전함.
- 보고서는 특히 유엔 산하 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미국 뉴욕타임스 등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자세히 소개하며 국제사회가 남한의 ‘인권유린행위’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임.

- 우리 대통령 및 외교부 장관의 ‘북핵 및 인권 발언’(최대의 불안요인, 심각한 위협, 모순된 정책, 인권문제를 포함한 내부모순 등) 관련 세월호 침몰사건을 거론하며 ‘절망에 빠진 가련한 정신병자의 발광적인 몸부림’이라고 비난(12.15,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정부의 통일현장 제정 움직임은 ‘체제통일 야망의 뚜렷한 발로로서 동족대결 소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비난(12.16,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대자보(정규직 과보호 발언 등 비판) 관련 ‘반정부적인 대자보가 다시 등장한 것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는 괴뢰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고 비난(12.19,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 “인권 압력으로 비핵화 파탄…미국 책임져야”(1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인권 압박’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가 파탄되는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함.
- 통신은 대변인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조사하는 내용의 정보수권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점 등을 거론하며 최근 미국의 대북인권 압박은 2005년 6자회담으로 채택된 9·19 성명을 무시한 ‘노골적인 인권 대결 책동’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함.
- 이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인권 대결전이 일정에 오른 오늘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덧붙임.
- 특히 “(역류 미국인 석방은) 미국과 대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인권 대결전에 임하기 위해 진행한 청소작업”이라며 미국인 석방은 북미 간 대화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함.

● 북한, 장애인 인권문제 제기 영국의회 공청회 비난(12/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장애인 지원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17일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공청회를 거론하며 “적대세력들이 장애자 문제까지 꺼들여(들고나와) 모략 소동을 벌이는 것은 새로운 인권문제를 꾸며내서라도 우리에게 대한 국제적인 인권 압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한몫 보태보려는 너절한 시도”라고 주장했다고 전함.
- 이어 담화는 “유엔 무대를 통한 반공화국 인권 광란극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이러한 후안무치의 모략품까지 고안해낸 것은 우리 제도에 대한 용납 못할 훼방이며 장애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배경…핵포기 합의 무효”(1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0일 성명에서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핵 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며 핵 무력을 빠르게 강화할 것을 시사함.
- 또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독소 내용까지 들어있는 결의는 어떻게 해서나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추악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최고 표현”이라고 비난하였다고 통신은 덧붙임.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유엔 인권결의안 동참한 일본 또 비난(12/1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6일 ‘과거범죄를 묻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을 규탄’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일본이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특대형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함.
- 논평은 “최근에 일본이 저들에게 쏘리는 국제사회의 눈길을 딴 데로 돌려보려고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에 합세하면서 망동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으로써 궁지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역전시킬수 없다”고 주장함.
- 이어 “일본이 자기 특유의 간교성으로 과거범죄의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해 나설 수록 국제사회의 대일 증오심은 더욱 증폭될 것이며 그것은 일본의 완전한 파멸로 이어질뿐”이라고 덧붙임.

● 북한, 일본 위안부 역사 왜곡 비난…“파렴치한 무리”(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당국의 미국 교과서에 기술된 위안부 기술 수정 요구는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본 반동의 역사부정 책동이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비난함.
- 이어 신문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가 ‘동물’로 취급했다고 비난하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악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반동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무리”라고 강조함.

● 조선신보 “미국-쿠바 국교, 봉쇄정책 실패 입증”(12/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9일 ‘메아리’ 코너에 게재한 ‘역사적인 합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합의가 “미국의 대패, 쿠바의 대승리”라며 “조미(북미)관계와도 결부해 금후의 정세 추이가 주목된다”고 밝힘.

- 신문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 쿠바 봉쇄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역설한 데 대해 "마치 미국의 '무조건 항복' 선언처럼 들린다"고 평가함.
- 이와 함께 신문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공화당을 비롯해 남부 지역 초보수세력들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까운 시기에 제재 해제를 비롯해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시각을 보임.

● **북한, UN 인권결의에 '전쟁억제력 대응' 거듭 천명(12/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범죄적인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공세는 파탄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에 의해 강압 채택된 '인권 결의'는 저들의 새 조선전쟁 도발책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2003년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전날 통과된 유엔결의 등에 비유함.
- 신문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인권유린 만행을 짓부수지 못한 것은 그것을 파탄시킬 수 있는 군사적 힘이 약했기 때문"이라며 "미제를 주되는 공격 목표로 정하고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미국 핵실험 재개론 비난...“세계비핵화 불가능”(1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미국이 있는 한 세계의 비핵화는 실현불가능하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의 핵실험 재개론을 언급하며 이는 "핵 우세에 기초해 세계제패 전략을 실현하려는 핵 광신자들의 망발"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구상은 감축을 내세우면서 이면으로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는 '기만 전략'이라며 이 전략에 싫증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비핵화 구상에 파산을 선고하고 노골적으로 핵실험을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어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핵군비 경쟁을 촉발해 전 세계가 핵 위험 속에 놓일 것이라며 "미국이 있는 한 세계의 비핵화와 안정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안보리에 ‘CIA 고문’ 안전 상정 거듭 주장(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자성남 대사가 15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인 차드의 유엔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소위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불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지역이나 국제적 평화·안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문 보고서 관련 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올리자고 거듭 주장했다고 16일 보도함.

● ‘김정은 암살’ 美영화, 테러위협에 뉴욕 시사회 취소(12/16, 뉴욕타임즈)

- 뉴욕타임즈는 소니를 해킹한 자칭 ‘GOP(평화의 수호자)’라는 단체가 16일 “조만간 전 세계가 소니영화사가 제작한 끔찍한 영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세계가 공포로 가득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라”고 위협했다고 전함.
- 매체는 이어 뉴욕 랜드마크 선사인 시네마가 이를 뒤인 18일 예정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뉴욕 시사회를 테러 위협으로 인해 취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 전문가 “북한 ‘스턱스넷’으로 사이버공격 가능성”(12/17, 38노스; 12/18, 연합뉴스)

- 38노스는 제임스 루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 17일(현지시간) 38노스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스텍스넷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함.
- 38노스는 루이스 연구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 “북한이 10년 전부터 사이버 공격 능력을 계속 키워왔으며 미국과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이란의 뒤를 잇는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재 북한 내에 수천명이 해킹 공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임.
- 이어 북한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암살을 그린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스텍스넷은 공항과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파괴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컴퓨터 바이러스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2011년 이란 핵시설의 핵심인 원심분리기들의 작동을 마비시키는 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8일 보도함.

● “미국, 소니 해킹 배후 북한에 신규제재 등 검토”(12/18, CNN)

- CNN은 김정은 암살 영화를 제작한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결론을 내린 미국 정부가 소니픽처스를 상대로 한 해킹 및 영화 상영 극장에 대한 테러 위협은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보복 조치로 신규 제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함.
- 신호정보와 같은 여러 수단을 통해 그동안 해킹의 배후를 추적해 온 FBI는 이런 여러 증거를 토대로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굳혔다고 덧붙임.

● 북한, 미국에 ‘소니 해킹’ 공동조사 제안…배후설 부인(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0일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이 터무니없는 여론을 내돌리며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데 대처해 우리는 미국측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누구든 한 주권국가에 감히 범죄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부터 명백히 내놓아야 한다”며 “우리는 미 중앙정보국처럼 고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이번 사건이 우리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방도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소니의 영화 ‘인터뷰’의 상영이 테러 위협으로 취소된 데 대해 “우리의 최고준엄을 모독하려는 불순분자들을 절대로 그냥두지 않을 것이지만 보복하는 경우에도 영화관의 무고한 구경꾼들을 목표로 한 테러 공격이 아니라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들과 그 본거지에 대한 정정당당한 보복 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미국은 우리의 공동조사 제안마저 거부하고 끝끝내 우리를 걸고들면서 그 무슨 대응 조치를 운운하는 경우 실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고 통신은 덧붙임.

마. 대중국

● 중국 정부 “김정일은 북한의 위대한 영도자” 평가(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주기(12월17일) 기념식을 하루 앞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3주기 기념식에 중국 측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일 총서기(총비서)는 생전에 중조(중북) 간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고 16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친 대변인의 ‘북한의 조치를 존중한다’는 표현은 결국 북한이 중국에 김 위원장의 3주기 기념식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임.

- 뉴스는 또 ‘최근의 북한정세를 평가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우리는 (조선과) 전통적인 우의를 다져온 이웃국가로, 조선이 발전하고 안정되고 인민 행복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류윈산, 주중北대사관 김정일 3주기 추도식 참석(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중국 공산당 서열 5위로 중앙서기처 서기와 함께 선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7일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중국, 북한에 김정일 추모 꽃바구니 전달(12/1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중국 공산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인 1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주조(북한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꽃바구니를 보냈다”며 “꽃바구니 댕기에는 ‘김정일 동지를 깊이 추억합니다’라는 글발이 쓰여 있었다”고 18일 보도함.

● 중국 지도부 “전통·우의 매우 중시”…북한에 메시지(12/18,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7일 오전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을 찾아 “시진핑 동지가 총서기를 맡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조(북중) 전통·우의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18일 보도함.
- 통신은 이어 류 상무위원이 “중국은 북한과 함께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각도에서 출발해 중조(북중) 전통·우의를 잘 유지·보호하고 공고히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김정일 동지는 중조 전통·우의의 계승·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조화도 전달했다고 덧붙임.

바. 대일본

● 조선총련 건물 매각 결정에 북한 항의 안해(12/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사실상 주일본 북한대사관 기능을 가진 재일본조선인 총연합회(조선총련) 건물의 매각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예상과 달리 일본 정부에 항의하지 않았다고 18일 보도함.
- 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일본 법원이 조선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최종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전후해 북한은 일본 정부에 항의하지 않는 등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임.

● **북한서 목격된 일본인 납북자 정보 100명 분 넘어(12/18, 교도통신,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18일 까지 취합된 납치 피해자와 특정 실종자에 대한 북한 내 목격 정보가 100명 분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18일 보도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특정실종자'란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 피해자와는 별도로, 일본에서 실종된 가족 가운데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18일 보도함.

사. 대러시아

● **러시아-북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협정 추진(12/15, 이타르타스통신)**

- 이타르타스통신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할 '위험한 군사 활동 예방에 관한 협정' 초안에 서명하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에게 북한 측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15일 보도함.
- 통신은 총리령 내용을 인용해 해당 협정이 두 나라의 양자관계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위험한 군사활동을 예방하는 한편, 양국 군대 간 모든 사고를 평화적 방법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 '위험한 군사 활동'이란, 불가피한 상황이나 실수로 상대국 군대 인근에서 행해져 인명 피해나 물질적 손해를 일으키거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행동으로 협정 초안에 규정되었다고 통신은 전함.
- 또 양측이 상대국 군대 주둔지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을 기할 것과 군사장비나 병력의 타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으며, 위험한 군사 활동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평화적 방법으로 수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北김정은, 내년 5월 러시아 방문 가능성”(12/17, 아사히신문)**

- 아사히신문은 외교 소식통 인용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내년 5월9일 열리는 대(對) 독일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초청했다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내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17일 보도함.

● **북한, '김정일 고향'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방문기념비(12/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러시아 하바롭스크 시(市)의 하바롭스크 우초스 전망대에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기념하는 표지비가 건립됐으며, 지난 16일 현지에서 제막식이 있었다고 보도함.

- 이어 통신은 표지비에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2001년 8월17일 하바롭스크시를 방문하시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전함.

● **푸틴, 내년 5월 북한 김정은 러시아 방문 초청(12/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초청했다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고 20일 보도함.
- 뉴스는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2차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북한에만 특별히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과 2차 대전 관련국들 모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유엔 안보리, 22일 북한 인권문제 다룬다(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라고 17일 보도함.

● **‘북한 인권’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에 북한 불참(12/19, AFP)**

- AFP 통신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이 19일 “우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 안보리의 권한은 인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콩고·나이지리아 대통령, 김정은에게 각각 조전(12.16, 중앙통신)
- 나이지리아 대통령·주북 경제 및 무역차사단·중국 대사관·유엔개발계획대표부 등 외국손님들·여러 나라 정당과 단체들, 12월 16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12.16, 중앙통신)

- 北국방위 정책국 성명(12.21)】 소니 픽처스社 해킹 관련 ‘평화의 수호자들이 단행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美연방수사국의 北소행설이 인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오바마대통령의 비례성 대응에 대해 ‘초강경대응전은 백악관과 펜타곤, 美본토 전체를 겨냥하여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및 ‘더 이상 남을 걸고들지 말라’고 경고 (12.21,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어린이식품공장 시찰...아동 영양지원 강조(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룡해 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용원 부부장과 함께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의 안내를 받으며, 평양어린이식품공장을 방문해 어린이를 위한 영양 지원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공장을 둘러본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어린이 식료품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고 “평양어린이식품공장 생산을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적대세력들은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며 “어린이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사회주의를 어떻게 고수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김정일 3주기 앞두고 백두산 천지 올라(12/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 黨 제1비서가 “백두산의 절정 장군봉에 올라 천하를 한 눈에 굽어 보셨다”며 그 시점을 “12월이 눈 앞에 다가오던 때”로 밝혀 그가 지난달 말 백두산에 올랐음을 20일 시사함.
- 신문은 “그이(김정은)께서는 백두산에서 새로운 출발의 포성을 울리셨다”며 “이 의미심장한 출발이야말로 (지난) 3년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총화이며 또한 장차 도래할 미래의 승리를 확고히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김정은, 방직공장 시찰…교복 생산 독려(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최룡해 노동당 비서,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명순 경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옷감 공장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방문해 학생들이 입을 교복 생산을 독려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염색종합직장’을 비롯한 공장 곳곳을 둘러보고 “학생 교복 천 생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오고 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학생 교복 문제를 푸는 데서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 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풀겠다”며 “공장에서 학생 가방용 천 생산에 필요한 기술 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아파트 붕괴 책임’ 북한 최부일 두 계급 강등(5/18, 12/17, 조선중앙통신; 12/18,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사고(5월 13일)와 관련하여 5월 18일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 소식을 전하고 ‘감독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고 책임자로 최부일 등 5명의 간부를 지적함.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를 맞아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이 소장 계급을 달고 김정은 黨 제1비서 뒤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사진을 17일 공개했으며, 이에 연합뉴스는 지난 7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부장이 상장(별 셋)에서 소장(별 하나)으로 두 계급 강등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18일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김정일 3주기 중앙추모대회 거행(12/1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3주기 중앙추모대회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거행됐으며 이를 녹화 실황으로 중계함.
- 중앙추모대회에는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부인 리설주와 함께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룡해 비서, 박봉주 내각 총리,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 당 비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박도춘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 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 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왼쪽 팔에 검은 완장을 차고 참가함.
- 중앙추모대회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의 개회 선언, 묵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추모사 낭독, 최룡해 비서와 황병서 총정치국장, 전용남 청년동맹 위원장의 결의 연설 순으로 진행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거론하면서 “영토도 인구수도 작은 우리 조국을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우뚝 세워주었다”고 핵보유를 강조함.
 - 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비서는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앞 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 결의연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영광스러운 김정은 시대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만복의 씨앗을 온 나라에 떨쳤다”며,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함.

● **주중국 북한공관서도 ‘김정일 3주기 추도식’ 열려(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맞아 오전 중국 곳곳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체류 중인 무역상들과 북한식당 종업원, 중국기업 채용 근로자들이 저마다 국화로 만든 꽃바구니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을 들고 영하 20도를 밑도는 혹한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단체로 북한의 총영사관과 영사사무소 등을 찾았다고 17일 보도함.
- 뉴스는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관계자들도 조화를 준비해 북한 총영사관과 영사사무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고 덧붙임.
- 이어 이날 김 위원장 추도식은 선양, 단둥 지역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현지시간)에 시작됐지만,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의 경우 지난해보다 2시간가량 이른 오전 8시께 시작돼 30분도 채 안 돼 완료됐다고 전하며, 시끌벅적하게 치러진 2주기 행사에 비해 여러 모로 조촐한 느낌으로 진행되었다고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소니 해킹’ 북한 사이버전력, 김정은 시대 대폭 강화(12/20, 연합뉴스)

-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2012년 8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이버 전력의 핵심인 기존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외에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추가해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정찰총국은 북한이 2009년 대외 공작업무를 총괄하고자 인민무력부 정찰국, 노동당 작전부·35호실을 통합해 만든 조직으로, 북한 사이버 전력의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이들 외에도 당, 군, 내각 산하에 다수의 사이버전 조직을 두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사이버전 인력도 김정은 시대에만 3천 명에서 약 6천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해커 부대는 전문적인 해커가 1천200명을 넘어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앞지른다는 평가도 있다고 뉴스는 덧붙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은 집권3년 정치적 업적은 장성택 처형”(1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12월 17일)를 앞두고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지난 3년 동안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도 아래 ‘선군 조선의 만년 토대’가 마련됐다고며 분야별로 그의 업적을 열거함.
-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김정일 黨 제1비서가 ‘일심단결’을 강화했다며 “2013년 12월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계기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세하려 들던 현대판 종파(장성택 세력)들이 단호히 적발분쇄돼 당과 혁명 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 더욱 순결해지고 백배해졌다”고 전함.
- 이어 군사 분야에서는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며 “전투훈련과 싸움준비 완성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평가하고, 작년 3월 당 전원회의의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으로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을 영원히 수호하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임.
-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인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를 ‘전인민적 대경사’로 꼽음.
- 이 밖에도 보도는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설치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서 창조된 ‘마식령 속도’ △농업 분야의 유기농법 도입과 분조관리제의 성과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 △모란봉악단의 새로운 음악 △체육 열풍 등을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업적으로 나열함.

● **‘피눈물의 17일이 왔다’ 김정일 3주기 특별방송 방영 (12/17,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은 17일 특별방송을 통해 북한의 간판 앵커이자,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중앙TV 특별방송으로 전달한 아나운서 리춘희의 추모사 낭독을 방영함.
- 조선중앙TV는 1, 2주기 당시 아침 8시부터 방송을 시작한 것과 달리, 18일 새벽 0시 ‘피눈물의 17일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간판 앵커인 리춘희의 추모사 낭독을 시작으로 종일 방송을 시작함.
- 리춘희는 추모사를 통해 “아버이 장군님(김정일) 정말 뵙고 싶다”, “태양의 그 미소가 못 견디게 그립다”고 회고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노고로 “우리 조국은 위성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강조함.
- 조선중앙방송도 리춘희 앵커가 낭독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18일 새벽 0시에 내보냄.

● **조선총련, 김정일 3주기 맞아 김정은에 충성편지(12/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조선총련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총련과 재일 동포들을 자신의 귀중한 식솔이라고 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발언을 언급하며 “조직 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기층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충성을 다짐했다고 17일 보도함.
- 방송은 이어 조선총련이 “새 세대들에게 총련의 역사와 전통을 잘 알려줘 그들이 애국애족의 계주봉(릴레이 바통)을 튼튼히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며 대를 이은 충성 의지를 드러냈으며, 또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특색있게 기여하고 통일운동과 대외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벌이겠다고 결의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일 3주기 추모…새벽부터 주민들 참배 행렬(12/17, 조선중앙TV, 노동신문,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17일 새벽 2시20분부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동상이 있는 평양 만수대언덕에서 북한 주민들이 참배하는 모습을 중계하며,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 이 새벽 12월의 추위는 맵싸도 가슴 속에 흐르는 그리움과 충정의 열도는 더욱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해설함.
- 노동신문은 17일자 신문의 6면을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글과 사진으로 6개 전면을 채움.
- 1면에 김정일 위원장의 대형 사진과 함께 그를 ‘백두산대국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사설을 실었으며, 김 위원장을 ‘민족의 태양’, ‘위대한 성인’, ‘인간 중의 인간’과

같은 표현으로 극찬하고 그의 후계자인 “원수님(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강조함.

- 이어 2~3면에 실린 정론을 통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김정일 위원장 사후 3년 동안 ‘제국주의 열강’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김 위원장의 ‘위대한 선군시대’에 이어 ‘위대한 김정은 시대’가 펼쳐졌다고 강조했으며, “원수님은 3대를 이어 조선민족이 맞이한 백두산장군, 불세출의 영웅”이라며 “이 하늘 아래엔 천년이 가고 만년이 흘러도 오직 하나 백두산혈통 밖에 없다”고 3대세습 체제의 당위성을 역설함.
- 또 4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6일 박지원 의원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 3주기 조화를 전달한 소식과 함께 조화 사진을 게재함.
- 또한 연합뉴스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맞은 17일 오전 중국 곳곳에 있는 북한대사관과 총영사관에는 현지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들의 발길이 줄었다고 보도함.

● “북한, 내년 통 큰 외교전 펼칠 것”(12/1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2014년 정세 개괄, 조선의 전방위 외교와 6자 구도의 변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년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라며 대화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내년에는 북한이 다양한 대화의 틀을 이용한 ‘통 큰 외교전’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함.

● 북한, ‘김정은 시대’ 도래…경제건설 촉구(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자가 중앙양묘장, 홍남비료연합기업소 등 각종 현지지도에 함께 했던 사진들로 2면을 가득 채우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 탈상을 마친 후 아들인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집중 부각하여 김정은 시대를 빛내기 위한 경제건설을 촉구함.
- 신문 1면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지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등극한 이후 황해도 은률광산, 량강도 감자산지, 전국 화력발전설비 등에서 나타난 뛰어난 발전 성과들을 강조했으며, 4~5면에서 ‘공장현대화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거세찬 함남의 불길로 그날의 맹세를 지키자’ 등의 글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제발전을 촉구함.
- 신문은 또 “김정은 동지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 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전 발언도 큼지막하게 실었으며,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산업발전을 독려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60호(12.12),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 26호 모범기대 영예상(평양호텔 등 6곳), 26호 모범기대 영예상(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공장기계 직장 등 9곳)' 수여(12.16, 중앙방송)
- 김정일의 생애 마지막 현지지도(2011.12.9~10, 함경남도)를 거론하며 '김정일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전열차에 있으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역사를 수놓아 왔다'고 칭송(12.16, 중앙통신)
- 「여맹」 일꾼들과 「여맹」 원들의 맹세모임, 12월 16일 최룡해(당중앙위 비서)·김정순(여맹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회관에서 진행(12.16, 중앙통신)
-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1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16,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駙이란 대사에 '강삼현' 임명(1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12월 18일 파키스탄 수상에게 '학교 테러사건' 관련 위문전문(1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숙(김정은 祖母) 출생(12.24) 97돌 경축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 전람회, 12월 16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12.19,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北 1인당 국민총소득 138만원, 南의 21분의 1(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통계청이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2013년 기준)를 인용해 2013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38만원, 남한의 GNI는 2천870만원으로 나타나 북한의 GNI가 남한의 21분의 1에 불과하며, 작년(20.3배)에 비해 격차가 벌어졌다고 보도함.

● **북한 라선에서 만들어진 의류 한국서도 팔려(12/16, 38노스)**

- 38노스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문제 전문가 프랭크 교수가 기고한 ‘북한의 미래일 수 있는 라선 경제특구’라는 글을 통해 라선 특구의 일부 지역에서 사진 촬영이 허용됐고 특구 안에 있는 ‘황금의삼각주은행’에서는 실제로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를 북한 화폐로 바꿀 수 있었다며 라선이 평양 같은 다른 지역보다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이었다고 16일 전함.
- 프랭크 교수는 라선특구 내 부두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에 임대된 곳에서는 크레인이나 연결 철도 같은 부대 시설이 최근 갖춰지기도 했다면서도, 철로에 녹이 슬 정도로 실제 물류 활동은 미미했다고 전함.
- 이어 “라선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소도시보다도 뒤떨어지는 이유는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과 인권 문제 때문임이 명백하다”면서도 “많은 관측통이 북한의 이런 문제를 더 지속 가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의 경제 개방을 꼽고 있다”고 덧붙임.

라. 대외 경제 관계

● **아일랜드, WFP 대북 식량지원에 3억원 기부(12/1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아일랜드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내년도 대북 지원사업에 31만 달러(약 3억 4천 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보도함.
- 방송은 아일랜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WFP를 통한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WFP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이번 기부금은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임.

-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지리정보체계에 의한 ‘산불퍼짐 특성해석방법’ 연구완성 선전(12.18,중앙통신)
- 어량천2호발전소(함경북도 소재) 준공식, 12월 19일 박봉주·오수용·로두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12.19,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각종 뼈질환 치료제인 ‘불소피틴산 알약’ 연구개발 보도(12.19,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상임족 등 성·중앙기관들에서 올해 양강도 감자산지들에 ‘농업생산건물 신축(78동: 감자저장고 15동·씩티우기장 18동·알곡창고 16동·집집승우리 9동 등)’ 선전 (12.20,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김정은, 올 4월 외국문화 송두리째 제거 지시”(12/20, 마이니치신문)
 - 마이니치신문은 ‘노동당 내부 자료’를 인용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북한에 유입된 외국 문화와 오락을 “송두리째 제거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20일 보도함.
 - 신문은 올해 4월 작성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철저히 경계하고 단호하게 부수기 위해’라는 제목의 당직자 학습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우리의 내부에 침입한 이색적인 사상 요소는 베어낼 뿐 아니라 송두리째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함.
 - 또 학습자료에는 한국과 일본 등의 문화를 “사회주의 제도를 부식시키는 위험한 사상·문화적 독소”라고 비판하고 “방치해 두면 사회로 급속히 확산해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임.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역도산 증손자 북한서 유도선수 돼(12/15,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일본 프로레슬링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역도산 사망 51주기인 15일, 역도산의 딸 김영숙의 손자 류일훈이 북한에서 유명한 스포츠팀인 ‘4·25 체육단’ 소속 유도 선수가 돼 주목받고 있다고 15일 보도함.

- 이어 류 군은 현재 여자 역도 감독으로 활약 중인 역도산의 외손녀 박혜정의 아들로, 교도통신 취재에 “14살”이라면서 “역도산처럼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함.

● **북한 신세대 유행에 민감…성형수술로 외모 꾸며(12/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새 세대: 체제전환 혹은 체제수호의 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새 세대 탈북자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북한의 신세대는 생계가 아닌 유행을 위해 휴대 전화를 소유하고, 성형과 미용에 관심을 두는 등 기존 세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행동과 생활 세계를 가꾸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15일 보도함.
- 이어 김 교수는 북한 새 세대들의 유행이 김정일을 지칭하는 ‘장군님 스타일’에 치우친 점과 ‘김일성 휘장’이 패션이 되는 점 등을 사례로 들며, 새 세대의 소비 욕망이 국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자본주의적 개인의 징후라기보다는 이들이 국가와의 적당한 교섭을 통해 체제 유지에 동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뉴스는 보도함.

12.22-12.28

12월

4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김정은 黨 제1비서, 이희호 여사에 친서(12.24)
- 北, 통진당 해산 비판(12.22)
- 北, 南 유엔 인권모략 적극 가담 비판(12.25)
- 北, 원전 해킹 북한 소행설은 터무니 없는 날조 주장(12.28)
- 北, 육군 병력 축소 및 공군 병력 확대(12.25)
- 남한 주민 1명 불법입북(12.24)

2. 핵문제 및 외교

- 北, 우리의 변하지 않은 주적은 미국(12.22)
- 푸틴, 오바마·김정은에 동시 방려 초청(12.22)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 안건으로 상정(12.23)
- 北, 유럽 CIA 고문협력 비난(12.24)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메기공장 시찰(12.23)
-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24)
- 김정은 黨 제1비서, 군대 채소온실 시찰(12.26)
- 김정은 黨 제1비서, 수산 부문 공로자에 직접 표창 수여(12.28)
- 北, 김정은 조모 띄우기(12.23)

4. 경제

- 北, 북한, 경제발전 통한 부강번영 촉구(12.20, 22)
- 北, 올해 곡물 수확량 작년보다 증가(12.23)

5. 사회

- 北, 일부 인터넷 사이트 먹통(12.24)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통진당 해산 주범은 박근혜”…반정부 투쟁 선동(12/22, 조선중앙방송)

-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22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한 것을 거론하고 “이번 사태의 막후 주범이 바로 다름아닌 박근혜이며 그가 남조선에 유신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놓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함.
- 담화는 남한의 현 시국을 ‘유신독재 부활’로 표현하며 “행정이니 입법이니 사법이니 하는 것들도 다 청와대의 정치시녀, 꼭두각시일뿐이라는 것을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남조선 인민들은 유신독재를 되살리는 괴뢰보수패당의 파쇼적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일떠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함.

● 북한 “남한, 유엔 인권모략 적극 가담…대가 치를 것”(12/25, 조선중앙방송)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대변인 담화에서 “극악한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으로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 나선 괴뢰패당은 그 죄악으로 얼마나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담화는 유엔총회 본회의가 지난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2일에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사실을 거론하고 이는 “사실상 우리를 반대하는 선전포고”라며 남한이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의 돌격대” 노릇을 했다고 비난함.
- 이어 “추악한 반공화국 대결 광신자들이 우리에게 무모한 인권전쟁을 선포해온 이상 우리는 단호한 반격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라며 “우리의 무자비한 정의의 징벌은 미국의 앞잡이, 동족 대결에 미칠대로 미친 괴뢰역적패당에게 선참으로 (가장 먼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방송은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통진당 해산 빌미 대남 인권공세 ‘포화’(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인권 공세의 종착점은 도발자들의 파멸’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측에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기 전에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은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서나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비선 실제’ 국정 개입 의혹 등을 거론, 남측에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사회주의를 넘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라고 비난함.
- 또한, 신문은 이날 통진당 해산 판결 이후 남측에서 벌어지는 시민사회의 반발 움직임을 전하며 통진당 해산을 합법적인 정당에 ‘친북’의 감투를 씌운 ‘파소적 폭거’라고 비난함.

● 북한 “남한, 올해 남북관계 파괴” 거듭 비난(12/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올해 남북관계를 총평한 ‘끊임없이 이어진 북침 불량난 소동’이라는 글에서 “올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해 북침을 가상한 군사적 도발에 날뛴으로써 북남관계 개선 기회를 파괴했다”고 주장함.
- 특히 신문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해 올해 처음 적용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해 “극히 위험한 핵전쟁 각본”이라고 평가하며 “임의의 시각에 북침 핵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다른 글에서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를 “괴뢰 호전광들이 미국과 북침을 노린 모의를 벌이고 무력 증강에 열을 올렸다”고 혈뜬음.

● 북한 “원전 해킹 북한 소행설은 터무니 없는 날조”(12/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모략꾼들을 징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패당은 최근에 발생한 저들의 원자력발전소들에 대한 해킹 사건도 무작정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다”며 이는 “터무니 없는 날조설”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정부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이버 공격까지 반공화국 모략에 악용하며 도발을 걸어오고 있다”며 “역적패당의 히스테리적인 망동은 북남관계가 왜 지금과 같은 파국에 처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고 지적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정부, 박지원 방북 불허…현정은 방북은 승인(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북한의 요청으로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을 불허했으며, 함께 방북을 신청했던 나머지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현정은 회장은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은 모두 승인됐다고 전함.
- 이에 따라 김대중평화센터측에서는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 등 7명, 현대아산에서는 현정은 회장 등 7명이 24일 각각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금번 방북의 취지 및 지난 16일 박 의원이 방북한 만큼 정치인이 거듭 방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방북은 적절치 않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음을 뉴스는 전함.

● 김정은, 이희호 여사에 친서 “민족통일 위해 노력할 것”(1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김정은 북한 당 제1비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우리는 선대수뇌분들의 통일의지와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민족 통일 숙원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김 당 제1비서는 “다음해(내년에) 좋은 계절에 녀사께서 꼭 평양을 방문하여 휴식도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추운 겨울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유의)하시기를 바란다”며 친서를 맺었다고 뉴스는 전함.
- 김 당 제1비서는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보낸 별도의 친서에서 김정일 사망 3주기에 조의를 표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현정은 회장 선생의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음을 뉴스는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軍 “북한군, 지상군 병력 축소…공군 1만명 늘려”(12/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북한 및 주변국 군사력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북한군 전체 병력은 119만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육군은 102만에서 101만명으로 1만명 줄었고 대신 공군 병력은 11만명에서 1만명 늘어났다고 보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한군의 총병력 규모는 지난 2012년 말간한 국방백서에 나타난 병력 규모에 비해 변동이 없었지만 일부 부대의 소속 변동으로 육군과 공군의 병력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음을 뉴스는 전함.

- 이밖에 합참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스키드, 노동, 무수단 등 1천여발의 탄도미사일을 전역에 작전 배치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고정화된 방공무기를 보완하려고 사거리 100km 안팎의 기동화된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보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독도 근해 표류 北어선 구조…내일 송환(12/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보도를 통해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이 지난 19일 우리측에 구조돼 23일 북측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고 전함.
- 지난 19일 오후 독도 근해에서 표류하던 7t급 저인망 북한 어선이 우리 해양경찰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으며, 이 배는 함경남도 단천항에서 정박 중에 닻줄이 절단돼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10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상에서 북한 주민과 선박을 인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 통지문을 23일 관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발송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김희중 대주교 내년 방북 추진 알려져(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김희중 대주교가 23일 광주대교구청에서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민관과 종교인의 대북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 현재 종교인들과 그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김 대주교는 “지정학적 배경 때문에 남북관계는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목소리를 많이 내야 우리 정부에도 힘이 된다고 본다”며 “경제적으로도 북한과의 교류를 늘려야 상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을 뉴스는 전함.

● 작년 방북자 7만6천여명…2008년의 40% 수준(1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통계청의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기준으로 방북자 수는 7만6천503명(연인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보도함.
- 이는 MB정부 5년간 방북자가 가장 많았던 1년차 때인 2008년에 18만6천443명이

방북한 것에 비하면 41%에 불과한 수치라고 뉴스는 전함.

- 이어 2013년 방북자 중 개성공단 관련 방북자는 7만5천990명으로 전체 방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함.

● **남한 주민 1명 불법입북...남북 26일 송환 합의(12/2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우리 국민 마모(52) 씨가 지난달 말 불법 입북했다면서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를 설득해 부모들이 살고 있는 곳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마 씨가 불법 입북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남쪽에서 자기를 정신병자로만 치부하며 자유를 구속하므로 공화국에서 살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그의 구체적인 입북 경위는 언급하지 않음.
- 연합뉴스는 24일 통일부가 북한 매체의 보도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통지문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부는 북측이 제의한 대로 오는 2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24일 오후 북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北 인권’ 문제 의제 상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이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괴뢰패당이 제 코드 못 짓는 주제에 우리(北) 사회주의를 넘보는 것이야말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발’이라고 비난(12.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가 ‘美 CIA 고문’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南 괴뢰들은 친미주구, 식민지 노복’이라며 ‘미국의 인권유린만행에 바른말 한마디 못하는 쓸개 빠진 주구들은 우리(北)의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비난(12.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중앙총대변인 담화(12.23), 南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정치테러행위, 진보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교살만행, 동족에 대한 정치적도발”이라며 ‘反보수패당 투쟁’ 선동(12.23, 중앙방송·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北인권문제’ 참여(11.18, 유엔총회 제3위원회, 北 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 “주제넘은 망동, 남조선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독재사회, 인권불모지”라고 최근 ‘통진당’ 해산 결정 등 거론하며 비난(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對北 발언(도발시 응징능력과 의지 과시,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 것 등) 관련 ‘괴뢰군의 사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전방에까지 나가 객기를 부렸다’며 ‘美 상전도 우리(北)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막아줄 수 없다’고 위협(12.24,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매국이 애국을 칼질하는 전대미문의 파쇼폭거’라며 ‘박OO 패당은 역대 통치배들을 훨씬 능가하는 희세의 파쇼악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여실히 드러내 놓았다’고 비난(12.25, 중앙방송·민주조선)

- 원자력발전소 도면 유출 등 해킹사건 관련 '통치위기(정윤희 국정개입·통진당 해산 등)를 동족대결책동강화로 수습해 보려는 것'이라며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을 공화국과 연결시켜보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은 천안호침몰사건과 똑같은 모략소동'이라고 비난(12.27,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인터뷰' 상영 비난...“미국이 인터넷 가동 훼방”(12/27, 연합뉴스)

-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7일 대변인 담화에서 소니에 대한 해킹 공격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보수세력들이 성탄절에 영화 상영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담화는 영화 '인터뷰'는 국가수반의 명예를 침해할 금지한 국제법에 배치되는 '불순반동 영화'라며 "반테러를 주장하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의 극치"라고 비난했으며, "우리의 (공격) 대상은 한곳 개별적 회사들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날강도 무리들"이라며 소니 해킹설을 거듭 부인하고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한 증거 공개, 비공개 공동조사 등을 요구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우리의 변하지 않은 주적은 미국"(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우리의 변하지 않은 주적은 미국이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올해 조(북)미관계 1년사의 총화는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의 변하지 않은 주적 중의 주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올해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으며 대결을 노골적으로 선동했다"며 지난 2월의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과 '키 리졸브 연습'을 대표적 사례로 꼽음.
- 신문은 또 "정치군사적 압박으로는 우리의 '선택포기'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이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면서 "인권 공세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고 주장함.

- **북한, 남한·미국·일본 “인권 논할 자격 없다”(12/23,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23일 ‘민주의 교살자,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에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자’는 제목 아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정치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 남한의 인권을 문제 삼은 다수의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특히 안보리의 정식 안건 채택에 대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해 모략의 판을 더 크게 벌이려는 것”이라고 혈투음.
 - 민주조선도 23일 논평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살피려는 인간 세계의 보편적 윤리부터 배우는 것이 정신 분열증에 시달리는 미국을 구원하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비판함.

- **조선신보 ‘소니해킹설’ 부인…“북미 사이버전은 허구”(12/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오바마가 연출한 조미 사이버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북한의 인터넷 불통 사태 이후 ‘북미 사이버전’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황당무계한 허구”라고 일축함.
 - 특히 “(북한 인터넷 불통 원인이) 통신망의 점검 등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도 대통령의 호전적인 발언이 귀에 박힌 사람들은 모든 사태를 조미(북미) 대결의 줄거리에 맞춰보게 된다”며 북한을 ‘소니 해킹’ 배후로 지목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北 외교관 “영화 ‘인터뷰’ 배포에 물리적 대응 없을 것”(12/24, AP통신)**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이 영화는 “우리의 주권과 최고지도자의 존엄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조롱”이라며 북한은 24일 시작된 ‘인터뷰’의 온라인 배포와 성탄절부터 이어질 극장 상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보도함.
 - 그러나 김 참사관은 영화의 배포·상영과 관련해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해킹된 것과 북한은 연관이 없고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공동조사를 거부한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푸틴, 오바마·김정은에 동시 방러 초청(12/22, 타스통신)**

- 타스통신은 22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기념 70주년 행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당 제1비서를 함께 초청했다고 보도함.
-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유리 우샤코프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은 22일(현지시간) “2차대전 당시 반(反)히틀러 연합에 속했던 국가들의 정상들이 초청됐다”며 “지난(60주년) 승전기념 행사에 초청됐던 국가들이 주로 포함됐다”고 통신은 보도함.
- 우샤코프는 또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에게도 초청장을 보낸 사실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보인 초기 반응은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승전기념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통신을 통해 밝힘.

● **“러시아, 북한에 러시아어 교재 1천400권 기증”(12/25, 자유아시아방송, 러시아의소리)**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웹사이트를 인용해 연해주 정부가 문학, 역사, 언어 등 여러 분야의 러시아어 교재 1천365권을 북한에 기증했다며 기증식이 24일 주 정부 청사에서 열렸다고 전함.
- 림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기증식에서 북한이 오랜 기간 러시아어 교육에 관심을 쏟아왔다고 사의를 표시했다고 방송은 전함.
-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북러 양측이 북한 사회에서 러시아어를 대중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보도함.

아. 국제기구

● 뉴욕 맨해튼에 ‘북한 인권결의안 환영’ 포스터(12/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3일 유엔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과 반(反) 인권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는 포스터가 2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나붙었다고 보도함.
- 재미교포 한태격(66)씨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기획한 이번 포스터는 한글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를 환영합니다”라고 적었다고 뉴스는 전함.
- 이번 포스터는 타임스퀘어, 한인타운, 그랜드센트럴역 등 맨해튼내 중심가 3곳에 28일까지 게시된다고 뉴스는 덧붙임.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으로 다룬다(12/23, 연합뉴스)

-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고 연합뉴스는 23일 보도를 통해 전함.
- 북한은 22일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오준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에서 처음 논의됐다는 것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 인권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북한, 유럽 CIA 고문협력 비난…“인권유린 공범”(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날날이 드러난 인권유린공모자들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국 등 EU 21개 국가들이 CIA에 비밀감옥과 심문기지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의 인권유린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국제법을 심히 위반한 것은 응당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라고 강조하고 유럽은 인권문제를 논할 기본 자격마저 상실했다고 강조함.

- 北, ‘올해 北-美관계 1년사의 총화는 미국이야말로 우리(北)의 변하지 않은 주적중의 주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제와 반드시 총결산할 것이며 쌓인 원한을 풀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12.22,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가들의 발언(미국 세계지배구조 이미 힘을 상실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개탄의 목소리는 미국이 이제는 역사의 퇴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것’이라며 ‘악마의 제국이 늙어가고 망해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12.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재러시아 동포 정일심, 12월 22일 평양 출발(12.22,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정계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對北 ‘전략적 인내정책’ 비판(의회조사국 보고서 등)을 전하며 이는 “미국의 對北 정책에 총파산을 선고하고 우리(北)의 병진노선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음을 실증하는 일대 쾌거”라며 ‘對北정책 숙고’를 주장(12.23, 중앙통신)
- 美 당국자들의 ‘北 인권문제’ 언급(12.10.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의 ‘세계 인권의 날, 탈북자 초청 대화’ 등을 “핵 소동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北)의 제도전복을 인권을 무기로 이루어보려는 것”이라며 ‘CIA 고문만행 등 미국의 국내외 인권유린실태’ 비난(12.2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철호 에티오피아 주재 北 대사, 12월 23일 주재국 대통령(물라투 테소메)에게 신임장 전달(12.26, 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장기근무 해외공작원 소환명령”(12/22, 산케이신문)

- 산케이 신문은 22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지난달 해외 장기근무자에 대한 소환을 명령했다고 보도함.
- ‘재외 공관 근무자와 공작원 중 직책을 불문하고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한 사람은 귀국시키라’는 김 黨 제1비서 특별지시가 11월 담당기관에 전달됐다고 신문은 전함.

- 또 신문은 김 黨 제1비서의 비밀자금을 취급하는 노동당 39호실의 러시아 지역 책임자가 지난 6월 이후 제3국에 망명을 타진한 일과 당 산하 기관의 중국 주재 당국자가 실종된 사건 등이 지시의 발단이 됐다고 소개함.

● **북한 김정은 잇단 ‘주민생활 챙기기’…메기공장 시찰(12/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보도를 통해 김 黨 제1비서가 평양 메기공장을 시찰했으며, 이번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으며 인민봉사총국의 최영남 총국장과 김광성 당 책임비서가 이들을 맞았다고 전함.
- 통신은 김 黨 제1비서가 물고기 양식은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일부 일꾼들이 아직도 이런저런 조건 타발만 하면서 양어에 혁명적으로 달라붙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함.
- 이어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공업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며 공장 현대화를 위해 설계·시공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 김정은, 군 장성 이끌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을 맞아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라고 전했지만 정확한 참배 시점은 밝히지 않음.
- 이번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 군 고위간부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군대 채소온실 시찰…과학화 강조(12/2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군대에서 운영하는 채소온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김 黨 제1비서는 새로 건설된 온실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농사의 과학화·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협동해 선진영농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신문은 전함.
- 이어 신문은 김 黨 제1비서가 교육을 통해 선진 과학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며 우수한 경험과 기술을 소개하고 관련 당 정책을 설명하는 월간 잡지를 새로

만들 것을 지시했으며,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수산 부문 공로자에 직접 표창 수여(12/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인민군대 수산 부문의 모범적인 일꾼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꾼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1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수여식에 앞서 김 당 제1비서는 연설에서 수산 부문이 올해 어획 목표 초과 달성으로 ‘물고기 대풍’을 이뤘다며 “수산 부문에서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나갈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됐다”고 강조하고,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가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 책동을 더 악랄하게 벌이면서 우리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다”며 수산 부문에서 잡은 물고기를 “포탄 한 발, 총탄 한 발”에 비유함.
- 이어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한 해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전투적 과업을 받아안게 되는 것은 당 중앙이 수산 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며 당 창건 70주년인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독려함.
- 표창 수여식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이 참석하였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김정은에 충성 다짐(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1면 사설 ‘선군혁명업적은 최후승리의 만년초석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는 선군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밝힘.
- 신문은 또 2~3면에서 김정은 당 제1비서가 이날을 즈음해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소식을 자세히 전함.

● **북한, 군 후방일꾼대회 개최…김정은 서한 전달(12/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인민군 제2차 후방일꾼대회’가 개최됐다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서한을 대회에 전달했다고 밝힘.
- 통신은 후방일꾼대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시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김 黨 제1비서가 후방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기간 인민군대의 후방일꾼들이 군인생활 개선을 위해 애를 많이 썼다”고 치하하고 후방일꾼들을 “우리 黨의 영원한 군수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병들”로 치켜세웠다고 소개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은 조모 ‘띄우기’…생모 고영희엔 ‘침묵’(12/23,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김정숙의 97회 생일을 하루 앞둔 23일 ‘수령결사옹위의 신념 굽이치는 오산덕’이라는 제목의 기행문을 실고 김정숙의 탄생 설화, 항일투쟁 활동, 김 일성 주석과의 혁명활동 등을 자세히 소개함.
- 함경북도 회령군에 있는 생가 방문기인 이 글은 김정숙을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강그리 바쳐오신 백두산 여장군”이자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태양복,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게 하여주시는 어머니”이라고 부각함.
- 우리민족끼리도 23일 ‘태양의 해발로 영생하시는 백두산 녀장군’, ‘백두광명성을 받들어 올린 혁명의 어머니’ 등의 글에서 “항일대전의 격전장에서 자제분을 키우며 민족만대의 중흥을 담보하여 놓으신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 절세의 백두산 여장군은 인류사의 어느 갈피에도 없다”고 주장함.

● **북한, 헌법절 맞아 체제 우월성 강조하며 준법 촉구(1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 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인민의 낙원”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최근 서방의 인권 공세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에 겁먹은 자들의 최후 발악”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이어 2면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인민의 헌법’에서도 사회주의헌법 제·개정 과정을 돌아보며 “‘김일성-김정일헌법’의 채택으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 길을 따라 전진해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 무기를 틀어쥐게 됐다”고 자평함.

-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등, 12월 24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청소년학생들, 12월 24일 김일성 父子동상 참배 (12.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12.30)’ 3주년에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12월 25일 리일환(당중앙위 부장)·현상주(직총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12.25, 중앙방송)
- 2014년 국가표창 수여식, 12월 25일 김영남·최태복·양형섭·김평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2.26, 중앙방송)
- ‘김정은 현지말씀 관철’ 위한 김정숙 평양방직공장과 평양메기공장 종업원들의 쫓기모임, 12월 25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 및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와 결의문 채택(12.26, 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함경북도)·평양메기공장 현지 요해 및 일꾼 협의회(철강재 생산에서 원료·연료의 국산화비중 높일 것, 양어의 과학화·집약화 실현 대책 수립) 진행(12.26, 중앙통신·평양방송)
- ‘헌법절’ 42주년을 맞으며 ‘조선식 사회주의는 김일성·김정일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인민대중 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라며 ‘당의 영도 따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조선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이며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워나갈 것’을 강조(12.27,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1995.12.25) 발표 19돌 즈음 ‘장군님의 영도사는 천만군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혈연의 정과 의리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빛내어 온 성스러운 역사’라고 칭송하며 ‘원수님의 영도에 의하여 우리 사회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12.27,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 (12.28, 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2월 23일 모범적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할 데 대한 정령 제292호 발표(12.28,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허병(황해남도 삼천군 거주) 氏에게 100회 생일상 전달(12.28,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3년 탈상’ 북한, 경제발전통한 부강번영 촉구(12/20, 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1면 ‘올해 전투목표들을 무조건 점령하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의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절연물공장, 협동농장, 광산 등 일선 산업 현장의 계획 초과 달성 등의 성과를 부각시킴.
- 또 신문은 2면과 4면에서도 수산업과 의약품을 통한 경제발전상을 소개하는가 하면 주택지구에 잔디밭 대신 텃밭을 가꾸 채소 부족을 해결하고 감나무를 심은 농촌마을을 선전하기도 함.
- 이에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탈상 후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첫 현지지도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아 학생 교복 생산문제를 강조했다는 점을 전함.

● 북한 “포전담당제로 올해 농업생산 증대”(1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정당성을 힘있게 과시한 의의깊은 한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 한해 가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포전담당제, 과학영농, 다모작으로 생산 증대를 이뤘다고 평가함.
- 신문은 올해 모내기·난알털기 등 농사 일정을 예정보다 빨리 끝내고 생산량과 수매계획을 적절히 세운 것을 포전담당제 확대 성과로 소개함.
- 이어 “우리 식의 경영관리방법인 포전담당 책임제는 모두가 땅의 주인, 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포전 배분으로 농민의 생산 열기가 높아졌다고 자평함.
- 신문은 또 과학영농이 확대 적용돼 생산에서 ‘비약’을 이뤘다며 무(無) 바이러스 감자 종자 확보, 기상관측장의 협동농장 배치 등을 주요 성과로 들었으며 옥수수·감자의 다모작 확대 노력도 부각함.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한 관리 “올해 곡물 수확량 571만…작년보다 많아”(12/23,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 내각 수매양정성의 김지석 부상은 23일 “올해 가뭄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확량이 571만t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만t 증가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에 밝힘.
 - 김지석 부상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밀 2만2천900t이 23일 남포항에 도착한 데 감사의 뜻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으며, 또한 러시아가 지원한 밀을 평양 제분공장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러시아 정부의 ‘對北 무상 지원 식량 5만t 납입 완료’ 기증식, 12월 23일 남포항에서 진행(12.23, 중앙통신·중앙방송·조선신보)
- 함주추상1호발전소(함경남도 함주군) 건설 준공식, 12월 26일 태종수(함경남도黨 책임비서)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 및 ‘黨 감사문’ 전달(12.26,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이과대학 화학생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포도당검출용 효소시험지의 ‘수입대체 비용절감·위생학적 문제해결’ 선전(12.26,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 또 ‘먹통’(12/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날 오후 8시께 다운된 이후 11시간여째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류경·려명과 김일성방송대학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강당도 24일 오전 6시30분까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전날 다운됐던 웹사이트들은 24일 자정께 또 다운됐지만 1시간여 만에 복구돼 현재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미국의 인터넷망 연결정보 제공업체 딘 리서치는 전날 북한과 전 세계 인터넷 사이의 연결망이 오후 3시41분(한국시간 24일 0시41분) 끊겼다가 1시간여 만에 다시 개통됐다고 전했다는 뉴스는 전함.

● 북한 인터넷망 옛새째 접속 불량…중국 서버 ‘다운’(12/2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8일 오전 11시 북한의 주요 매체 웹사이트 접속을 시도한 결과,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류경’, ‘려명’은 여전히 접속 불가능 상태라고 보도함.
-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에 서버를 둔 이들 웹사이트는 지난 23일 북한 주요 웹사이트들이 일제히 다운된 이후 접속 불안정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또 독일 베를린에 서버가 있는 대외용 포털사이트 ‘내나라’의 경우 접속이 간헐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웹사이트는 현재 완전 정상화됐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민족통신 웹사이트도 접속이 가능한 상태라고 뉴스는 덧붙였다.

● “북한 전력난 여전히 심각…수시로 정전”(12/28, 이타르타스통신)

- 북한의 전력난이 여전히 심각해 수도 평양에서 요즘도 전력 공급이 수시로 끊기고 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이 현지발로 28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의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평양의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도 하루에 여러 차례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전이 되면 인터넷과 국제전화도 끊긴다고 전함.
- 북한 여러 지역에는 수력 발전소들이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가뭄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전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함.

- 김일성父子 동상 제막식, 12월 24일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에 건립(12.24, 중앙통신)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과 김정숙 생일 97주년 관련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12월 24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12.24, 중앙통신)
-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과 김정숙 생일 97주년 관련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12월 24일 각지에서 진행(12.24,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현지지도 표식비·혁명사적 표식비, 태권도전당 등(함흥목제품공장·수성천종합식료공장·자강도 산림과학연구소 등) 건립 및 각각 준공식 진행(12.26, 중앙방송)
-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김정숙 생일 97주년 기념, 12.3 개막) 폐막식, 12월 26일 빙상관에서 진행(12.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전국민족음악경연 진행(40여개 단체 참가) 및 결과 보도(12.26, 중앙통신)
-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12.30)’ 3주년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12월 28일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황해북도 황주군 용천협동농장에서 진행(12.28, 중앙통신·중앙방송)

12.29-12.31

12월

5주차

1. 대남

-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라. 대남 군사 관계
- 마. 남북 경제 관계
- 바. 남북 사회 관계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나. 주요 매체 논평
- 다. 회담 관련
- 라. 대미국
- 마. 대중국
- 바. 대일본
- 사. 대러시아
- 아. 국제기구
- 자. 기타 국가

3. 대내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다. 공식 행사
- 라. 주요 기관 행위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4. 경제

- 가. 정책 동향
- 나. 주요 조치
- 다. 경제 상황
- 라. 대외 경제 관계

5. 사회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나. 시장 관련
-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마. 사회 동향

• 개요

1. 대남

- 北, 남한 국방백서 ‘주적’ 표현 비난 및 통일대박 부정(12.29)
- 北,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군사적 도발” 강력 반발(12.30)
- 北, 남측 대화 제의에 통준위 비난 공세 및 대북정책 전환 요구(12.30~31)

2. 핵문제 및 외교

- 北, “러시아 크림 병합은 전적으로 합법” 주장(12.30)
- 北, 미국에 ‘소니 해킹’ 공동조사 촉구(12.30)
- 北, 중국과 체육교류의정서 체결(12.30)

3. 대내 정치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여성 방사포병 구분대 훈련 참관(12.30)
- 北,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12.29)

4. 경제

- 北, 포전담당제로 식량난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12.29)

5. 사회

- 北, 영화 ‘더 인터뷰’ 막으려 국경 단속 강화(12.30)
- 北 인터넷망, 먹통 8일 만에 정상화(12.30)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한 국방백서 주적 표현은 ‘통일대박’ 부정”(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북남관계 파국을 부채질하는 고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은 “신평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들이 체제대결 각본이며 북침전쟁 선언임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신문은 남측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주적 표현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장본인은 남측이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문제 압박 등을 그 사례로 꼽음.
 - 특히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유지하는 것은 남측이 “새해에도 반공화국 적대의 식을 고취하며 군사적 도발에 계속 광분할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와 끝까지 힘으로 대결하려는 흉악한 기도”라고 비난함.
- **북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강력 반발…“군사적 도발”(12/3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0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 약정)은 “기만적인 북 위협설에 기초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침략하기 위한 엄중한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이며 “사태의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함.
 - 매체는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미국·남조선·일본 사이의 3각 군사동맹 구축이 본격화되게 됐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핵전쟁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짙게 드리우게 됐다”고 지적함.
 - 이어 매체는 남한 정부가 “백년숙적들과의 군사적 결탁”에 나섰다며 “민족의 안녕과 존엄은 안중에도 없는 희세의 반역아들”이라고 비난함.
- **북한, 대화 제의에 반응 없이 통준위 비난 공세(12/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6면에 ‘체제통일의 개꿈에 사로잡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체제대결을 본격화할 기도 밑에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 며 통준위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정부의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정부가 대화 채널로 내세운 통준위를 강하게 비난함.
- 신문은 통준위가 준비 중인 통일현장에 대해서도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위험한 전쟁문서”로 규정하고 “괴뢰반역패당의 반통일 범죄행위를 역사와 민족은 철저히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악랄하게 감행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정부가 반복 ‘대결 망동’을 벌였다며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는 도발적인 뼈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 소동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대결 흥심을 드러낸 북인권법 조작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치마두른 독재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매도함.

● **북한, 대화 제의에 답 없이 ‘대북정책 전환’ 요구(12/31,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31일 논평에서 “북남관계를 파국 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아닌 남조선 괴뢰패당”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대화 제의의 전면에 나선 통일준비위원회를 거듭 비난했으며, 이 밖에도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비판, 대북전단 살포, 한미 합동군사연습, 대북 인권 공세 등을 ‘반공화국 대결책동’의 사례로 들며 비난함.
- 이어 신문은 31일 6면 전체에 세월호 참사,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사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올해 주요 국내 사건들도 한꺼번에 거론하며 대남 비난 공세의 강도를 높임.
- 또 ‘반역의 한해에 대한 민심의 고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반인민적 악정이 빚어낸 필연적 산물”로 규정했으며 다른 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까지 언급하며 박 대통령을 비난함.
- 평양방송도 31일 “괴뢰패당이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는 한 새해에도 북남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으며, 특히 올해 남북관계 악화의 주원인으로 남측의 ‘비방중상과 악담’을 꼽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비판 발언을 열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조선신보 “국방력 강해야 남북 교류협력도 가능”(12/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1일 평양발 기사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30일(보도 날짜) 참관한 여군 방사포 부대 포사격 훈련에 대해 “인민들은 이를 자위적 전쟁억제력의 과시로 간주한다”고 설명하며, 훈련장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의 총 포성이 울릴 수 있다는 자각”을 언급하며 “싸움준비 완성”을 독려했다고 전함.
- 이어 “조선의 자위적 힘이 강해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가 삼천리 강산에 마련될 수 있으며 예컨대 북남 사이의 민족적인 협력과 교류도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북한의 국방력이 강해야 남북 교류협력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매체는 강조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러시아 크림 병합은 전적으로 합법”(12/30, 타스 통신)

-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타스 통신은 30일 정동학 북한 외무성 공보국장이 타스 통신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전적으로 합법적인 조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고 30일 보도함.
- 통신은 정 국장이 “러시아 국민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영도 아래 외부의 압력과 제재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낼 것”이라며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공정하다고 간주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북

- 러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은 북한의 변함없는 정책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내년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북한, 미국에 ‘소니 해킹’ 공동조사 촉구(12/3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30일 ‘미국은 소니 픽처스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더 큰 봉변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흔들 목적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소니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데 이어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는 먹잇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승냥이의 기질 그대로다”라고 비난함.

● 조선신보 “쿠바 데탕트’는 미국 봉쇄정책 실패 의미”(12/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1일 ‘조선과 쿠바는 사회주의 수호의 전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1959년 이후 계속된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조치를 언급하며 “두 나라(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합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의 파탄을 의미한다”라고 밝힘.
- 매체는 미국-쿠바 국교정상화는 북한 내에서도 화젯거리라며 “미국이 제재와 압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간섭을 일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향간의 평가”라고 분석함.

마. 대중국

● 북한-중국, 체육교류의정서 체결(12/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인용하여 북한과 중국이 새해에 체육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2015 체육교류 의정서'를 29일 평양 인민문화궁에서 체결했으며, 이에 손광호 북한 체육성 부상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북한 김정은, 라울 카스트로에 쿠바혁명 기념 축전(12/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쿠바혁명 56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냈으며, 축전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영웅적 쿠바 인민은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당신의 영도 밑에 미제와 적대세력의 제재 봉쇄와 침략 위협에 맞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며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밝혔다고 전함.

- “미국은 원천적인 테러국가, 국제테러 왕초”라며 미국 국가의 태동과정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반테러전 주민살상과 최근 CIA 고문자행 등 거론하며 “미국을 지구상에서 송두리째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12.29,중앙통신)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따른 미국 정부의 對러 제재강화 발표를 전하며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조작, 러시아에서 정권교체 목적”이라며 ‘러시아의 對美 강력대응 입장’ 지지(12.29, 중앙방송)
-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정세가 조성된 것은 미국의 反北 정책에 따른 무력증강·북침 전쟁연습과 관련이 있다’며 미국의 ‘남한과 한반도주변 무력증강’ 폭로(12.29, 평양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여군 포사격 훈련 참관…김여정 동행(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여성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여성 방사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치하하고 “임의의 시각에 불의의 정황을 주면서 예상 못 할 형식과 방법으로 부대들의 훈련을 강도 높게 조직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군사훈련 참관에 김여정 부부장 외에도 최룡해 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경찰총국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최영호 공군사령관, 김영복,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이 동행했으며, 박정천 화력지휘국장이 훈련장에서 이들을 맞이했다고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최영호 공군사령관 상장으로 승진(12/30, 노동신문,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노동신문이 30일 1면에 게재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여성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 참관 관련 사진에서 이달 초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공군부대 시찰을 수행때만 해도 중장(별 둘)이었던 최영호 공군사령관이 상장(별 셋)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공군사령관 부임 직후 승진했음을 알 수 있다고 30일 보도함.

● **올해 北김정은 수행횟수 황병서 압도적 1위(12/30,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일본의 해외 정보 청취·분석기관인 라디오프레스가 올초부터 지난 29일까지 북한 관영매체가 전한 김정은 黨 제1비서 동정 보도를 근거로 집계한 결과, 황병서의 수행 횟수가 130회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보도함.
- 통신은 이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또 다른 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60회였고,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15회,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3회로 각각 집계되었다고 전함.
- 또 지난 29일까지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올해 동정은 173건으로 2013년의 230건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이는 다리 부상으로 9~10월에 걸쳐 약 40일간 공개활동을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공개 활동 중 군 관련이 절반 가까운 85건이었다고 통신은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북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3년…“수령결사옹위”(12/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월30일) 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고 보도함.
- 중앙보고대회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매체는 전함.
- 이어 리영길 총참모장이 경축 보고를 했으며,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며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백두의 칼바람정신’ 강조… 김정은 총성 독려(12/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온 뜻깊은 한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수님께서 심어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고 강조하며, 김정은 黨 제1비서만을 믿고 받드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질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함.
- 신문은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백두의 혁명적 신념으로 우리 인민은 강성국가 건설의 새봄을 맞이할 것”이라며 “혁명적 신념으로 수놓아진 올해를 통해 2015년이 더욱 휘황찬란하게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특히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지난 10월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자는 것”이며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말한 사실을 소개함.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포전담당제로 식량난 해결 발판 마련(12/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농업 증산을 달성했다며 이는 “포전담당책임제와 같은 김정은 시대 농업정책이 온 나라 협동벌의 현실에 착실히 뿌리내려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라고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인 농업개혁 조치인 ‘포전담당제’의 정착으로 고질적인 식량난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 이어 신문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올해 2월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내년에 ‘더 높은 알곡고지 점령’을 목표로 내건 점을 들며 “조선의 농민들은 최고영도자의 호소에 화답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해놓았다”고 덧붙임.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북·러 접경 중국 연변, 올해 관광객 15% 증가(12/31, 연변일보)

- 연변일보는 연변주 관광국 통계를 인용해 올해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중국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총 1천34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다고 31일 전함.
- 신문은 올해 관광 총수입은 216억위안(약 3조8천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같은 지역 관광산업 호황의 주된 원인으로 항공편 확충을 비롯한 교통 여건 개선과 북한, 러시아 등 인접국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꼽음.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쿠바, 경제·과학기술 협력 의정서에 조인(12/2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한과 쿠바 정부 사이에 “2015년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발전을 위한 회의 의정서와 2015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29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정서에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북한 주재 쿠바 대사가 서명했다고 29일 보도함.

● “올해 전세계 대북지원 560억원…18%↓”(12/3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해 올해 대북 지원액이 5천14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의 6천300만 달러(약 691억 원)에 비해 18%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함.

- 농업과학원(모판종합영양제 개발 등) 및 건설·석탄공업(새 발파기 개발)·전력공업·수산부문(어항예보지원체계 프로그램 완성 과학자·기술자들의 “올해 인민경제 주요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도 선전(12.29,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접촉식원자힘현미경 개발) 등(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식물성 살충제 개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평양기초식품공장 자동화 등) 평양시내 대학들의 “최근년간 가치있는 연구성과” 달성(12.29,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 '인터뷰' 막으려 국경 단속 강화... 벌써 역효과 생겨(12/3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북한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반입을 막기 위해 밀수꾼들의 CD, USB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30일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 주민 대다수가 '인터뷰'라는 영화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는데 당국의 이번 단속 강화로 영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오히려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인터뷰'가 북한 주민 사이에서 확산될 조짐이라고 전함.
 - 이어 소식통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내용인 만큼 처음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당분간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는 것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영화가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임.

마. 사회 동향

- 북한 인터넷망 일주일째 접속 불량...중국 서버 '먹통'(12/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오전 북한의 주요 매체 웹사이트를 접속한 결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김일성방송대학 웹사이트인 우리민족강당, 대외용 사이트 려명·류경·조선의오늘 등이 접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운' 일주일째인 29일에도 접속 이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뉴스는 먹통이 된 웹사이트는 모두 중국에 서버를 둔 것이며,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공식 도메인(.kp)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와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친북매체 웹사이트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라고 전함.

● **북한, 내년 9월 외국인 대상 아마추어골프대회 개최(12/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북한이 매년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5회 국제 아마추어골프대회를 내년 9월 6~7일에 할 예정이라고 대회 주관사인 영국의 루핀여행사 홈페이지(www.northkoreanopen.com)를 인용해 보도함.
- 대회 주관사에 따르면, 대회는 연습경기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지는 본선 경기 하루씩 모두 이를 일정으로 진행되며 남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이 참가할 수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골프대회를 포함한 이번 여행상품의 가격은 최소 1천 159달러(127만원)이고 대회 등록은 루핀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월께 북한 평양에서 국제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해왔으며 루핀여행사는 대회 진행을 주관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주민, 남한의 탈북자 도움으로 ‘인터뷰’ 관람(12/29, 자유북한방송)**

- 자유북한방송은 29일 중국을 거쳐 남한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지닌 일부 북한 주민이 남한에 사는 탈북자의 정보를 토대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관람했다고 보도함.
- 매체는 영화를 본 한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그렇게 비하하고 어린이 취급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나, 그(김정은)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도 ‘위대성 교육’만 받아온 우리(북한)사람들의 심리엔 ‘대중적인 모욕’처럼 생각될 것이다”고 전하며 “우리(북한)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영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영화”라고 혹평 했다고 전함.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기자가 김 黨 제1비서에게 ‘왜 주민에게 식량을 주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이 가슴을 죄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함.

● **아시안컵 축구대회 북한 사령탑에 조동섭 감독(12/30, 로이터 통신)**

- 로이터 통신은 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북한이 조동섭 감독을 사령탑으로 하는 엔트리를 제출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이 징계를 받은 윤 감독 대신 조 감독에게 아시안컵 지휘봉을 맡긴 것”이라고 해석하며 “북한 측에 감독 선임 배경을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힘.

● **북한 인터넷망 ‘떡통’ 8일만에 완전 정상화(12/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오전 10시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를 접속한 결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김일성방송대학 웹사이트인 우리민족강당, 대외용 사이트 류경·조선의오늘 등 모두 접속이 원활했다며, 지난 23일 이후 줄곧 접속 불안 상태를 보였던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들이 29일 오후부터 접속이 재개되어 현재까지 12시간 이상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30일 보도함.

● **북한축구, 아시안컵 최종명단 발표…박광룡 발탁(12/3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홈페이지에 호주 아시안컵에 나설 북한 대표팀 최종명단이 발표되었으며, ‘인민루니’ 정대세(수원 삼성) 대신 ‘북한산 스위스 폭격기’ 박광룡(바젤)이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북한 축구대표팀의 최전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보도함.

- 올해 ‘보건부문 성과(황해북도산원 등 건설, 옥류아동병원→각지 소아병원들간 ‘원거리의료봉사체제’ 수립, 에볼라 바이러스 방지사업 제약공업발전 등)와 사회주의 보건제도 우월성’ 선전(12.29,중앙통신)

11·12월

북한동향 일지

<11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1.1,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국제비행장 건설장 현지지도
11.3, 중통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작별 방문한 駐北 체코대사와 담화
11.5,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연설 및 지도
11.5,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개건공사, 중앙동물원 개건보수공장, 김종태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현지요해
11.6,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웅진·강령·신천·은률군 낱알털기 정형 현지요해
11.6, 중통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이임 주북 인도네시아 대사와 담화
11.7, 중방·중통·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정성제약공합공장 현지지도
11.9,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前 소련 국방장관(드미트리 야조브)의 생일 즈음 현영철을 통해 '친서와 선물 및 꽃바구니 전달
11.9, 중방·중통	현영철(인민무력부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담화
11.11,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중앙양묘장 현지지도
11.13, 중방	오수용(당 중앙위 비서), 4.15총성의 돌격대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참가 및 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
11.15,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 현지지도 및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과학자·기술자들에게 「감사」 전달
11.1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34군부대 산하 종합식료 가공공장 현지지도
11.1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67군부대 관하 18호 수산사업소 현지지도 및 수산사업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관람
11.17, 중방·중통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김정은 특사로 러시아 방문차 평양출발
11.17, 중방·중통	김영훈(체육상), 제18차 전국 체육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개막식에서 개막사
11.18, 중통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보위대학에 건립된 김일성父子 동상제막식에서 제막사
11.19, 중방·중통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푸틴러시아 대통령 면담 및 '김정은 친서' 전달
11.19,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국가책임일꾼들과 함께 인민군 2월20일공장 참관
11.21,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 시찰

보도일자	내용
11.21, 중방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러시아 조국전쟁중앙박물관 참관
11.21, 중방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레닌묘, 무명용사묘, 크레믈린 등 참관
11.21, 중방·중통	로광철(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러시아 무력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과 면담
11.21, 중방·중통	리광근(대외경제성 부상), 러시아 원동발전상과 면담
11.21, 중방·중통	김영훈(체육상), 제18차 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 폐막식에서 폐막사
11.23,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72연합부대와 제630연합부대 산하 부대들의 연합 합동훈련 지도
11.23, 중통	리성국(인민군 제4군단장), “연평도 포사격전투 승리” 4주년 군민연환 모임에서 연설
11.24, 중방·중통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러시아 일정을 마치고 귀환
11.25,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신천박물관 현지지도
11.25, 중통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하바롭스크주와 연해주를 방문하여 주지사들과 각각 회담 진행
11.25, 중방·중통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북국방위 성명(11.23)을 지지하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기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에서 결의문 낭독
11.26,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자강도 강계포도술공장·강계목재가공공장·강계연필공장 현지 요해 및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기지 조성 등 협의회 진행 및 생산공정 현대화’ 독려
11.2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현지지도
11.28,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여성추격기 비행사들의 비행 훈련 지도
11.28, 중방·중통	박근광(당 중앙위 부부장),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통일당 총비서와 담화
11.30, 중방	박춘남(문화상),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 일꾼·창작가·예술인·종업원들과 함께 ‘김정은 지시 관철’ 쫓기모임 진행

<12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12.2,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리향국(女, 함흥시 성천강구역)에게 '100살 장수 생일상' 전달
12.2,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963군부대직속 포병중대 시찰
12.2, 중통·중방	강석주(당 중앙위 비서),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이임 駐北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과 담화
12.3,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비전향장기수 '리공순'에게 80회 생일상 전달
12.3, 중통·중방	강하국(보건상), '국제 장애자의 날' 기념모임, 김원규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진행
12.3, 중통	리수용(외무상), 이임 駐北 러시아 대사와 담화
12.5,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흥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1313군부대 시찰
12.6,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9일메기공장 현지지도
12.6,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충일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12.8,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 시찰
12.9,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공연 관람 및 연설
12.9,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12.9, 중통·평방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작별 방문한 주북러시아대사와 담화
12.10,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은률광산·재령광산 현지요해
12.12, 중방·중통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김정은의 선군혁명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 참가
12.12, 중방·중통	전용남(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장), '김정은의 선군혁명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에서 맹세문 선창
12.13,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해군 제180군부대 시찰
12.16,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어린이 식료품 공장 현지지도
12.1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사망 3주기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2.17,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사망 3주기 중앙추모대회 참석
12.17,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김정일 사망 3주기 즈음한 '회고음악회(위대한 한생)' 관람
12.18, 중방·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파키스탄 수상에게 '학교 테러사건'관련 위문전문
12.20,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내용
12.23,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메기공장 현지지도
12.24,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2.24, 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23주년과 김정숙 생일 97주년 관련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
12.24, 중방·중통	김양건(당 중앙위 비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감사편지 전달
12.24, 중방·중통	김평해(당 중앙위 비서), 오수용(당 중앙위 비서), 최룡해(당 중앙위 비서), 현영철(인민무력부장), 김정숙 생일 97주년 즈음 대성산혁명열사릉 동상에 헌화
12.24, 중통	리영길(인민군 총참모장),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에 건립한 김일성父子동상 제막식에 참가
12.24, 중통	황병서(총정치국장),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에 건립한 김일성父子동상 제막식에 참가 및 제막사
12.25,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2차 후방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12.26, 중방·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6월8일농장에 새로 건설한 남새온실 현지지도
12.26, 중통·평방	박봉주(내각 총리), 김책제철연합기업소·평양메기공장 현지요해 및 일꾼협의회 진행
12.28, 중방·중통	현영철(인민무력부장), 김정은, 수산부문의 모범적일꾼들과 공로있는 후방일꾼들에 대한 당 및 국가 표창수여식 참가시 수행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낭독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